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 호 6월 25일

평양 로동 신문사 발행 1955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第6호 (115)

1955년6월25일

내 용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 연구소의 자료

브·이·레닌의 새 론문들

一九一三년 五월——六월에 『쁘라우다』지에 게재되였던 브·이·레닌의 론문 一四편을 아래에 발표한다。 八편은 서명 없이 게재된 론문이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가명으로 게재된 것이다。 이 론문들은 그 저자가 브·이·레닌 전집 발간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전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현재에 있어서는 새로 입수된 기록 문건에 기초하여 이 론문들이 브·이·레닌의 론문이라는 것이 확증되여 있다。

론문 『부르죠아지의 국제 정책』에서는 발칸에 있어서의 부르죠아 국가들의 정책이 분석되고 있다。 선정적(煽情的)인 보도로써 로획물(鹵獲物)분할로 인한 자본주의 정부들의 투쟁으로부터 『사회』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려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시도가 이 론문에서 폭로되고 있다。

일련의 론문들에서 레닌은 독일 로동 운동을 천명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한、극소수의 자본가들、군수품 제조업자들의 치부를 위하여 인민 대중이 략탈되는 데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격분의 증대가 론문 『독일 사회—민주주의와 무장』에서 천명되고 있다。 론문 『대의원 프랑크——대중적 파업을 지지』에서는 반동적 프로씨야 국회 선거법 반대 투쟁의 수단으로써 총파업을 리용하려는 독일 로동자들의 용의가 언급되

고 있다。 레닌은 론문『로동자들을 위한 휴가에 관하여』에서 독일 금속 로동자들을 례로 들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휴가를 리용하는 로동자 수가 얼마나 적은가를 뵈여 주고 있다。 론문『독일 카톨릭 교도들에 의한 대중의 조직』에서는 독일의 카톨릭당이 락후한 주민 층을 자본주의 제도의 옹호자의 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각종 각색의 선동 사업을 다 적용한다는 데 대하여 상세히 론하고 있다。

이번 발표되는 브·이·레닌의 론문 가운데는 一九一三년 四월에 일반적、평등적 선거권의 요구를 들고 나선 벨기 프로레타리아트의 총파업을 취급한 것이 하나 들어 있다。 즉 론문『벨기 파업의 교훈』에서 레닌은 벨기 로동자들의 기본 전과는 그들이 파업 진행에서 발휘한 조직성과 규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벨기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전부 다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그 원인은 벨기 사회주의자들、특히 의회 프락치야 성원들 가운데서의 기회주의와 개량주의의 지배이였고 또 로동자 단체들의 약체성、벨기 로동당의 약체성이였다。

여기에 게재되는 『쁘라우다』 사설 론문들——『제四차 국회에 대한 평가』、『「력사적」방안의 의의』、『누가 지지자인가?』에서는 부르죠아—지주적 제四차 국회의 활동이 특징지어지고 있다。

일련의 론문들에서는 로씨야에서의 개별적 로동자 그루빠들의 곤난한 처지가 밝혀지고 있다。 론문『건축 공업과 건축 로동자들』에서 레닌은 일방으로는 자본가들의 리윤 증대를 수반하며 타방으로는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그들 가운데서의 희생자 수의 증대를 수반하는 一九〇七——一九一〇년의 로씨야 건축 공업의 장성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선진 로동자들은 건축 로동자들을 계몽하며 결속시키는 데 특히 관심해야 한다는 것을 레닌은 강조하고 있다。 론문『농촌을 「진정」시키라는 지주의 목소리』는『새로운 토지 리용 합리화』란 구실 밑에 실시된 쓰똘리삔적 토지 정책의 파탄을 폭로하고 있다。

론문『물가고와 자본가들의 곤난한 생활』、『자본주의와 부녀 로동』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극소수의 자본가들의 부유화와 근로 대중의 빈궁화 및 령락을 여실히 특징짓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 연구소

부르죠아지의 국제 정책

정부 신문들과 자유주의 신문들은『발칸』정책에 대한 보도、소문、예상 및 타산으로 충만되여 있다。 거기에 무엇인들 없으랴! 각종『쎈세이슌』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각종 통신이『선정(煽情)』을 다투어 보도된다。 어제는 오지리와 몽테네그로、불가리야와 세르비야 간에 전쟁이 금시 터질 듯이 떠들다가 오늘은 앞을 다투어 어제 보도를 론박하고『평화는 확보되여 있다』고 주장한다。

어제는 엣사드—파샤가 몽테네그로와 비밀 조약을 체결했다느니、알바니야 정권을 탈취하려고 간계를 꾸미고 있다느니 하는 선정적인 뜬 소문을 돌리다가 오늘은 이 뜬 소문을 론박하고 오지리가 엣사드와 공모하고 있다는 새로운『선정적』인 소문을 돌린다。

항간(巷間)의 독자들은 이러한 진소리들을 귀가 솔깃해 들어 하나의 소화(小話)를 정말인 줄 알고『사회』의 주의를 바로 자기들、투기업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에 쏠리게 하려는 투기업자들의 뒤를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항간의 독자들은 자기들이 리용 당하고 있다는 것、『애국주의』니、『조국의 명예와 위신』이니、『대국들의 조직』이니 하는 요란한 문구로써 취인소 투기업자들과 온갖 자본주의적 투기업자들의 궤계가 의식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치 못하고 있다。『가장 생신한』보도와『가장 선정적인』보도를 팔아 리익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업인 큰 부르죠아 신문들이 날마다 조작해 내는 선정적인 뉴쓰의 사명은 바로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로부터、『고상한』정책의 진정한 리면으로부터 군중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려는 데 있는 것이다。

구라파의 보수주의 신문과 우리의 흑백단 또는 一〇월당 신문 그리고 또한 무소속파 신문은 이 놀음을 조잡 졸렬하게 진행하고 있다——례컨대 로씨야에서 그들은 날마다 오지리의 공격을 사촉하며 로씨야를 쓸라브인의『방어자』로 묘사하고 있다。『레취』및 그와 동류의 기관지들 따위의 자유주의적 신문들도 같은 놀음을 진행하고 있으되 다만 구라파 협정의 문제들을 심의하는 위정자 연하면서 그같은 놀음을 좀 더 미묘하게 교묘하게 은폐하고 오지리에 대한『반어(反語)』를 좀 더 조심히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은 오지리와 로씨야、三국 동맹과 三국 협정과의 이 모든 분쟁、이 모든 미묘한 수법들——그것은 모두 로획물 분할을 싸고 도는 자본주의적 실업가(實業家)들과 자본주의 정부들의 싸움에 불과하다。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빼앗고 『그들에게』 좀더 적게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속인(俗人)을 끌어 들이려고 하며 이 문제를 싸고 도는 분쟁에 속인의 흥미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쎄르비야、불가리야 및 희랍에서는 전쟁 비용 지불을 위하여、——또는 오지리에서는 동원 비용 보상을 위하여、——또는 로씨야에서는 같은 것을 위하여 또 대국 정책을 위하여 농민과 로동자들이 이제 얼마나 가렴 주구를 당하게 될 것인가、발칸 『새』 국가들에서나 아르메니야에서나 몽고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확보될 것인가 또 바로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이러한 데 대해서는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그것은 흥미없는 일이다。국제 상어들의 리윤은 그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아니 『평온』리의 리득 획득은 민주주의적 제도 때문에 지장을 받기조차 한다。대국들의 정책을 폭로할 대신에 보수주의적 신문도 자유주의적 신문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 정책으로써 상어들을 포만시킬 것인가 하는 론의들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쁘라우다』 제一〇一 (三〇五)호、一九一三년 五월 四일

농촌을 『진정』 시키라는 지주의 목소리

『노보에 브레먀』지가 리속있는 투기에도、정부에게도、지배적 지주 계급에게도 아첨하는 가장 불명예스런 신문의 하나라는 『영예』를 극히 정당하게 누리고 있다면 이 신문의 기고자인 멘쉬꼬브는 그러한 영예를 배나 더 누리고 있으며 또 배나 더 정당하게 누리고 있다。

멘쉬꼬브의 론문들을 보면 관리나 자본가나 귀족의 빼쩨르부르그 어떤 『충』들이 그에게 이러 저러한 론문 발표를 주문하였는가가 정확히 판정되는 수가 드물지 않다。얼마 전에 이 멘쉬꼬브는 『귀족적』 참의원을 옹호하며 소위 『민주주의적』 참의원 개혁안을 반대하는 한 론문을 주문 받았다。이 론문의 주문자가 지주 고관층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그러니만큼 악명 높은 농촌 『진정』 문제에 관한 지주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것은 더욱 교훈적이다。

『지방의 지주와 사회 활동가들이 빼쩨르부르그에 왔다가 나한테 들리는 경우가 퍽 많다』…이렇게 멘쉬꼬브는 말씀하신다。지주가 그한테 들리는가、그가 귀족 지주들의 사랑방에 들리는가、이것은 별문제이다。하여튼 그가 지주의 목소리로 노래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또 오직 지주의 솔직한 말을 듣는 데 그의 론문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주의 목소리는 계속한다：『그들의 말을 믿는다면——무엇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인가——一九〇五——六년의 뿌가쵸브 란은 결코 멎지 않았다。그것은 조용해지고 그것은 다른 덜 소동스런 형태들을 취하였으나 그 파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물론 농민들은 이전처럼 떼를 지어 짐달구지를 끌고 다니며 지주의 저택을 략탈하고 불사르는 일은 하려 하지 않는다。그러나 방화는 역시 부단히 계속되고 있다——때로는 집에다 불을 놓고 때로는 타곡장、때로는 헛간、때로는 창고、때로는 낟가리들에다 불을 지른다。괴씸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패들이 계속되고 있다…의회적 현대 七년 동안에 농촌의 무정부 상태와의 투쟁은 조금도 진전됨이 없다』。

이렇게 멘쉬꼬브는 『노보에 브레먀』에서 쓰고 있다。그는 분명히 흑백단、一〇월당 진영의 소위 『무뢰한』들에 대한 새로운 검거 처벌 대책을 위하여 『사회 여론』을 준비할 것을 주문받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문을 집행하면서 지주의 충복은 지주들의 진정한 기분과 그들의 불안의 진정한 원인을 입밖에 내고 있다。

적어 두고 기억해 두자、새로운 정벌적 법령들과 결정들로써 지주 양반들은 결코 멎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들을 취한 一九〇五——一九〇六년의 『뿌가쵸브란』과 싸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한 가지만은 다소 이상하다。一九〇五년과 一九〇六년에 정부와 합동 귀족 참의원은 『뿌가쵸브란』을 가리켜 공동체적 소유와 농민들 간에서의 토지 사유제 미발달의 결과라고 자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었다。지금은 정부 측의 모든 앞잡이、정부 측의 모든 당들、모든 신문들이 공동체의 파괴와 붕괴에 대해서、새로운 토지 리용 합리화와 농민들 가운데의 토지 사유 보급의 『대대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짓궂게 떠들어 대고 있다。만일 그렇다면、공동체 때문에 일어 났다던 『뿌가쵸브란』은 응당 멎었어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주들이 멘쉬꼬브의 입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결코 멋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결코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렇게 떠들어대는 『새로운 토지 리용 합리화』의 성과들이란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주 양반들이 자랑하고 있는 정책이 파탄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다.

엠 · 쁘

『쁘라우다』 제一〇一 (三〇五)호, 一九一三년 五월 四일

자본주의와 부녀 로동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단번에는 눈에 띄우지 않는 그러한 빈곤과 억압의 경우를 허다히 그 내부에 감추고 있다. 소시민, 수공업자, 로동자, 사무원, 소관리들의 령세한 가정은 그 생활이 형언할 수 없이 가난하여 가장 좋은 시절에도 가까스로 수지를 맞추어 나간다. 이러한 가정의 수백만의 부녀들은 로동 이외에 매일 매일의 필사적인 노력과 만사 『절약』에 의하여 푼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입히려고 애쓰는 하나의 『가정 노예』로서 생활 (더 정확히 말한다면 고뇌) 하고 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먹을 량식을 다소라도 보태기 위해 엄청나게 낮은 삯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가내 로동자를 자본가는 무엇보다도 이 부녀들 중에서 즐겨 채용한다. 이 같은 부녀들 중에서 또 자본가들은 (고대의 노예 소유자나 중세기의 농노 소유 지주들처럼) 아주 『헐한』 값으로 첩을 마음대로 사 들인다. 그리고 매음에 대한 어떠한 『의분』 (백중 九九의 경우는 위선적인)도 이 부녀 육체의 매매를 억제할 도리가 없다. 실로 임금 노예제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적으로 매음도 존속할 것이다. 인류 사회 력사상의 모든 피압박 및 피착취 계급들은 언제나 부득이 (바로 이 점에 그들의 착취가 있는 것이지만) 억압자들에게 첫째로는 자기의 부지불 로동을 제공하고, 둘째로는 자기의 부녀를 『상전』의 첩으로 제공하여 왔던 것이다.

노예제나 농노제나 자본주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다. 다만 착취의 형태가 변할 뿐, 착취는 존속하는 것이다.

문명의 중심인 『평화의 도시』 파리에서는 지금 『피착취 녀성 가내 로동자들』의 작품 전람회가 열려 있다.

진렬품마다 녀성 가내 로동자가 그것을 만드는 대가로 얼마나 받는가 또 한시간,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는가를 쓴 표 조각이 붙어 있다.

그래 실정이 어떤가? 녀성 가내 로동자는 어느 한 상품에 대해서도 一·二五 프랑 즉 五〇 끄뻬이까 이상은 벌어 낼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어보다 헤아릴 수 없이 훨씬 더 낮은 벌이이다.

례컨대 람프 갓을 두고 보자. 삯이 한 타스에 四 끄뻬이까. 또는 종이 봉지—一、〇〇〇개에 대해 一五 끄뻬이까. 벌이는 한 시간에 六 끄뻬이까.

리봉 등등이 달린 조그마한 장난감—한 시간에 二·五 끄뻬이까. 꽃일—한 시간에 二 내지 三 끄뻬이까. 남녀 내의—한 시간에 二 내지 六 끄뻬이까. 등등 이하 략.

우리의 로동자 협회나 직업 동맹들도 이와 비슷한 『전람회』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부르죠아지의 전람회들이 모아 들이는 막대한 리익은 주지 않을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녀성의 곤궁과 빈곤을 뵈여 주는 전람회는 다른 리익을 줄 것이다. 즉 그것은 임금 로동자와 임금 노예들로 하여금 자기의 처지를 리해하며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 보며 곤궁, 빈곤, 매음 기타 무산자에 대한 온갖 모욕의 이 지긋지긋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조건에 대해 곰곰히 생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쁘라우다』 제一〇二 (三〇六)호, 一九一三년 五월 五일

벨기 파업의 교훈

벨기 로동자들의 총파업은 알려진 바와 같이 반(半) 승리로써 끝났다(주一)。 아직은 로동자들은 다만 젬쓰뜨보 선거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가적 선거법의 문제까지도 심의할 위원회를 임명하겠다는 존승주의적(尊僧主義的) 정부의 약속을 받은 데 불과하다。 수일 전에 벨기 수상은 하원에서 동 위원회는 五월 중에 임명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물론 정부의 약속이란 것은 (『우로부터』의 온갖 약속이 원래 그런 것이지만) 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만일에 고집 불통하며 괴파하며 완고한 낡은 존승주의적 (흑백단적—승려주의적)『질서』에다 총파업이 일으킨 일정한 균렬을 일반 정치 정세가 실증하지 않았더라면 불완전한 승리에 대해서나마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파업의 전과는 정부에 대한 이 반짓바른 승리에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벨기 로동 계급 대중들 가운데서의 조직、규률、열성 및 투쟁에 대한 열의의 진척에 있다。 벨기 로동 계급은 그가 자기의 사회주의 당의 구호에 따라 능히 견결한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우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파업을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이다』。 파업 중에 지도적 로동자들의 한 사람이 한 이 말은 무기를 손아귀에 꽉 틀어쥐고 있다가 다시 사용하겠다는 대중들의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벨기 자본가 제씨에게는 파업은 그것이 자본에다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가、만일 벨기 자본이 독일 자본에 가망 없이 뒤떨어지고 싶지 않거든 양보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등등을 증명하였다。

벨기에서는 오래 전에 벌써 확고한 립헌 제도가 확립되여 정치적 자유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인민의 재산이다。 정치적 자유가 있는 이상 로동자들의 앞길은 환하고도 넓다。

파업의 적은 성공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요한 원인은 두가지다。

첫째 원인은 일부 벨기 사회주의자들、특히 대의원들 속에서의 기회주의 및 개량주의의 지배이다。 자유주의자와 동맹하여 행동하기에 습관된 이 대의원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 단행 시일 결정시에 동요가 있었고 동요는 전체

프로레타리아 투쟁의 성과、힘、전개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주의자들을 좀 덜 쳐다보고 그들을 좀 덜 신임할 것、프로레타리아트의 자립적、헌신적 투쟁을 좀 더 믿을 것——이것이 벨기 파업의 첫째 교훈이다。

부분적 불성공의 둘째 원인은 벨기에 있어서의 로동자 단체들의 약체성과 당의 취약성이다。 벨기의 로동자당은 『순전한』 협동 조합 일군、직업 동맹 일군 등과 같은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로동자들과의 정치적으로 조직된 로동자들의 동맹이다。 이것은 『끼예브쓰까야 믜쓸리』(주二)에서 예고로브찌가 또 『루취』(주三)에서 청산파들이 헛되이 도외시하고 있는 벨기 로동 운동의 커다란 결함이다。

사회주의적 선전에 좀 더 주의를 돌리고 원칙적으로 견결하며 사회주의에 충실한 엄격하게 당적인 튼튼한 조직의 결속을 위하여 좀 더 일할 것——이것이 벨기 파업의 둘째 교훈이다。

까·오

『쁘라우다』 제一〇四 (三〇八)호、一九一三년 五월 八일

주一 벨기 총파업은 一九一三년 四월一四——二四일 (신력)에 단행되였다。

주二 『끼예브쓰까야 믜쓸리』——자유주의적—부르죠아 일간 신문으로서 一九〇六년 一二월부터 一九一八년 一二월까지 나왔음。

주三 『루취』——멘쉐위끼—청산파들의 합법적 일간 신문으로서 一九一二년 九월부터 一九一三년 七월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행되였음。

건축 공업과 건축 로동자들

로씨야에 있어서의 최근 수년 간의 산업 앙양은 역시 건축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동반하여 왔다。 얼마 전에 『웨쓰뜨니크 피난쏘브』(주一)는 이 문제에 관하여 로씨야 一五八개 도시 시 참사회들에 대해 조사 (질문서에 의한)를 실시하였다。 웨쎌로브쓰끼씨는 『루쓰꼬에 쓸로보』(주二) 에서 이 조사서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매년 신축 또는 개축된 가옥 수:

一九〇七년	一一、九六一
一九〇八〃	一三、七〇九
一九〇九〃	一五、〇九三
一九一〇〃	一六、六七四

약 三년 간에 건축 공업이 거의 一배 반으로 장성한 것이다! 자본가 제씨가 이러한 산업 앙양에서 막대한 리윤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은 벽돌 가격에서 알 수 있다。 뻬쩨르부르그에서는 천매에 三三 루블리까지 하고 공업이 더 은성한 모쓰크바에서는 三六 루블리까지 한다。

도시 벽돌 공장이 五〇——六〇개 도시에 밖에 없는 관계로 건축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과의 투쟁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 게다가 또 우리 나라 도시들은 선거권의 제한、선거의 자유의 완전한 결여 등등으로 인하여 시의 리해란 것을 자기 주머니의 리해로 아는 한줌의 권세가들의 수중에 몽땅 맡겨져 있다。

건축 시의 믿을 수 없는 란잡、부주의、인명(人命)에 대한 란포한 태도——이것은 건축중의 가옥이 문허지는 일련의 주지의 사실들이 뵈여 주는 바와 같다。 건축 활동의 강화란 곧 청부업자들、기사들、자본가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수천 수만 루블리이며 자본의 제단(祭壇)에 로동자들이 바치는 무수한 희생이라는것——바로 이것이 산업 『앙양』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십만의 건축 로동자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그들의 임금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건축 로동자에 대한 일급(日給)은 도시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도시 인구수	건축 로동자에 대한 임금
五、〇〇〇미만	一루블리 三三 꼬뻬이까
五、〇〇〇——一〇、〇〇〇……	一〃 三六〃
一〇、〇〇〇——二五、〇〇〇……	一〃 四一〃
二五、〇〇〇——五〇、〇〇〇……	一〃 五三〃
五〇、〇〇〇——七五、〇〇〇……	一〃 五六〃
七五、〇〇〇——一〇〇、〇〇〇…	一〃 八七〃
一〇〇、〇〇〇이상 …………	一〃 八〇〃

최대 도시들에 있어서도 로동자의 임금은 하루에 二루블리도 못되는 것이다! 현재처럼 물가가 비싸고 또 가족을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도시나 농촌에서 부양해야 할 형편이니 이 로동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는 가히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또 건축 로동은 一년 내내는 계속되지 않는 계절 로동이다。 수개월 동안의 로동에서 로동자는 가족과 자신이 온 一년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돈을 벌어 내야 한다。

로동자들의 적빈、그들에 대한 생활 보장의 완전한 결여——이것이 상기 수자가 말하는 바이다。

건축 로동자들은 공장 로동자들보다 결속 조직되기가 곤난하다。 그러니만큼 선진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로동자 신문、자기들의 로동자 동맹、자기들의 보다 발전된 프로레타리아—동지들 한데서 밖에는 방조를 구할 데가 전혀 없는 건축 로동자들의 계몽과 단결에 더욱 절실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에프

『쁘라우다』 제一〇五 (三〇九)호、一九一三년 五월 九일

一 『웨쓰뜨니크 피난쏘브、쁘로미슐렌노쓰치 이 또르고블리』——재정성 주간 잡지로서 一八八五년부터 一九一八년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행되였음。

二 『루쓰꼬에 쓸로보』——자유주의적 경향의 부르조아 일간 신문으로서 一八九五년부터 一九一七년 一一월까지 모쓰크바에서 발행되였음。

제四차 국회에 대한 평가

제四차 국회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 즉 로동계급 대표들의 평가는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 평가는 지주적 및 지주—부르죠아적 국회의 계급적 성격과 또한 이 국회에서 지배 계급들과 이것 저것 협정하고 있는 정부의 성격을 타산한 기초 우에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우익 그것도 지주 제씨 자체는 이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도 역시 교훈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흥미있는 것은 남방 신문들에 게재된 끼쉬네브 시장(市長), 지주 싸나지노씨와의 담화인바 그는 제三차 국회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자였었는데 제四차 국회에 있어서는 『중앙』당에 산입되고 있다, 즉 一〇월 당원들보다 더 우익인 것이다. 생각컨대 이것 역시 더할 나위도 없이 견실한 그러한 기둥이다!

이제 그의 평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四차 국회는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참의원에는 인민 대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거역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되풀이해 말하거니와 국회는 허구에 불과하며 이러한 형편 하에서는 나라에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로씨야 말로는 참의원의 행동을 표시할 정어(定語)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란서 말로 「사보타쥐」라고 하는 것이다…』.

이 노한 지주는 국회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로동자들이 주시할 가치있는 그러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주의는 반동가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때에라야만 이들 반동가 제씨한테서 지배적 반동의 제도와 『질서』에 대한 진실한 평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한 지주(또는 수명의 지주)가 노하면 국가 통지나 국가 기구의 지주적 『질서』에 대한 묘사는 마치도 그 묘사가 사회—민주주의적 선동문에서 빼온 것같은 그러한 묘사로 되고 마는 것이다!

노한 우익 지주여, 제四차 국회도, 제三차 국회도 허구는 아니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정부에게 례컨대 정부 예산을 비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는 실로 전체 지주 계급과 전체 부르죠아 지배층이 정부를 방조함에도 불구하고 『짐차는 지금도 거기에 있다』(이 말은 끄릐로브의 우화에 나오는 말로서 일이 조금도 진척되지 않는다는 뜻이다——역자 주)는 데 있는 것이다!

지주 및 부르죠아지와의 정부의 동맹의 가능성은 조성되여 있다. 이러한 동맹을 위해 국회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조금이라도 헌법 비슷한 것은 전혀 생기지 않고 있다. 의연히 낡은 정체(政体)이다. 대신들도 역시 분명히 래일은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래일은 무슨 분부가 내릴까를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싸나지노의 말에 의하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참의원과의 국회의 일체의 『활동』도, 가장 요구성 적은 가장 一〇월당적인 가장 사소한 개혁들조차 실현될 가망이 없다는 일체의 자유주의적 통탄도, 또 끝으로 노한 지주—『립법자』의 로골적인 고백도——모두가 현 로씨야에 있어서의 헌법적 환상 및 개량주의적 기대의 무의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쁘라우다』 제一一〇(三一四)호, 一九一三년 五월 一五일

물가고와 자본가들의 곤난한 생활

물가고는 더욱 더 심해가고 있다. 자본가들의 제 동맹은 부단히 물가를 올려 수백 수천만을 긁어 모는 데 농민 대중은 더욱 더 령락해 가고 로동자의 가족들은 더욱 더 수지를 맞추어 나가기가 곤난해져서 굶주리고 가장 필요한 것조차 단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백만장자—산업가들의 기관지——『쁘로믜슐렌노쓰치 이 또르고블리』——는 물가고 격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일정한 가장 중요한 일련의 제품에 대한 가격들을 가산합으로써 산정되는 소위 물가 지수는 최근 수년 동안에 부단한 등귀를 뵈여 주고 있다. 다음에 드는 것은 四월 현재의 자료이다:

물가 지수

一九〇八년……	二、一九五
一九〇九〃……	二、一九七
一九一〇〃……	二、四一六
一九一一〃……	二、五五四
一九一二〃……	二、六九三
一九一三〃……	二、七二九

최근 六년 동안에 물가가 二、一九五로부터 二、七二九까지、즉 二四 프로쩬트나 올은 것이다!! 결탁한 자본가들에 의한 근로 주민 대중들、특히 로동자들의 략탈은 훌륭한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자본가 제씨는——상기 잡지에서도 정부가 관대히 허가하고 있는 자기들의 무수한 협회와 동맹들에서도——상공업에 대한 과세의 『불공정』을 계속 탓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수운 일일 것이다…로동자들은 웃을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

가련하고 불행한 백만 장자—산업가들은 각 도시 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관한 내각 문건에 인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도하고 있다。

一九一〇년도에 이 부동산의 수익은 二억 三천 九백만 루블리로 산정되였었다 (산정은 물론 관리들에 의하여 관청식으로 행해졌고 또 수천만이 가련한 상인 계층에 의해 은폐되여 있으리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있다)。 一九一二년에는、즉 불과 二년 후에는 각 도시 부동산의 수익이 벌써 五억 루블리로 산정되였다 (파란은 계산에 넣지 않고 로씨야에서만)。

합계 二년 동안에 각 도시 부동산의 순 수익이 二억 五천만 루블리 이상 증대한 것이다!! 농민、로동자들의 엄청난 곤궁、빈곤、기아의 수백만의 시내물로써 이루어진 얼마나 큰 황금의 강이 자본가들의 주머니 속에 흘러 드는가를 이에 의하여 가히 판단할 수 있다。

『현대적 물가고』——그것은 한줌의 자본가들이 미증유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근로자들은 빈궁해지고 령락하고 략탈을 당하는 현대적 형태 (자본주의적인)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가련한 자본가들은 탓한다: 자기들에 대한 세금이 분명이『불공정』하다 라고、아니 생각을 좀 해보라: 그들 한데서 순 수익의 六%씩을 받아 내고 있는 것이다。 一九一〇년에는 그들 한데서 (파란은 제외하고 로씨야에서만) 一천 四백만 루블리를 받아 냈고 一九一二년에는 二천 九백 八〇만 루블리를 받아 냈다。

백만 장자들에게서 걷운 세금은 합계 二년 동안에 약 一천 六백만 루블리 증가하였다。

로동자 동무들、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순 수익이 二년 동안에 二억 四천만 루블리로부터 五억 루블리로、즉 二억 六천만 루블리 증가한 경우에 一억

내지 二억 루블리의 세금을 받아 내서 안될 것인가? 로동자와 빈농들 한테서 짜낸 二억 六천만 루블리의 추가 리윤 중에서 학교、병원、기아자 구제、로동 보험에 쓸 적게 잡아 二억 루블리를 받아 내서 안될 것인가?

『쁘라우다』 제一一六 (三二〇)호、一九一三년 五월 二三일

독일 사회—민주주의와 무장

독일 국회 예산 위원회는 제一차 독회에서 군사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법률안은 채택이 보장되여 있는 것이다。 윤케르들——우리 나라 뿌리쉬께위치 및 마르꼬브의 형제들인——의 정부는 인민에 대한 새로운 억압과 동시에 또 무기 제조업자 제씨의 리윤 증대를 위하여 독일 부르죠아지와 함께 의좋게 『사업』하고 있다。 각종 군수품의 제조업자들은 장사가 잘 된다。 프로씨야 귀족 자식들은 『추가적』장교 직위를 얻는 쾌락을 미리부터 맛본다。 지배 계급들은 모두가 만족이다——도대체 현대 의회는 지배 계급들의 의사를 집행하는 도구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로운 무장을 변명하기 위해서는 의례껀 『조국』을 위협하는 위험성들에 대한 환상을 빚어 내기에 노력하는 법이다。 독일 재상도 쓸라브인 측으로부터의 위험성으로써 독일 속물을 위협하고 있다。 보십시요、발칸의 승리는 전 『독일 세계』에 적대되는 『쓸라브주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범쓸라브주의、독일인을 반대하는 전체 쓸라브인의 단결의 사상——이것이 위험성입니다、하고 윤케르의 재상은 주장한다。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출판물에서、의회 연설에서 또 집회들에서 이 위선적인 쇼비니스트적 망설들을 꾸준히 폭로하였으며 또 폭로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민의 다수가 쓸라브인인 나라로서 벌써 오래 전부터 정치적 자유와

립헌 제도를 향유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그것은 오지리이다。 이러한 국가 측으로부터의 군사적 음모를 두려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사회—민주의자들의 공격에 꼼짝 못하게 된 독일 재상은 뻬쩨르부르그에서 열린 범쓸라브주의자들의 소란스런 시위를 든다。 훌륭한 론거이다! 포、장갑차、대포、화약 기타의 『문화적』 필수품의 제조업자들은 독일에서도 로씨야에서도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 민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그들은 서로 트집을 드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로씨야 쑈비니스트들에게 겁을 집어먹고 로씨야인들은 독일 쑈비니스트들에게 겁을 집어먹도록 만든다! 독일인들이나 로씨야인들이나 다 로씨야와 독일과의 전쟁이란 생각하는 것조차 우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가련한 역할을 놀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하거니와 독일 쑈비니스트들은 국회 내에서 다수가 보장되여 있다。 그러나 독일 로동자들 사이에서는 분격이 커가고 있으며 쑈비니스트들의 후안 무치한 인민 재산 략탈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회적 투쟁 수단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말자는 요구가 커가고 있다。 제一 위르템베르그 선거구 사회—민주주의자 총회 (쉬툿트가르트)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이 통과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본 총회는 군사적 법률안을 반대하는 의회내 투쟁이 충분히 정력적으로는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총회는 인민의 재산에 대한 무기 제조업자들의 야만적 침범에 대해서는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하여 반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는 법률안이 위원회로부터 국회 전체의 심의로 넘어갈 때에는 의사 방해 앞에도 굴함이 없이 가장 정력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사회—민주주의측 국회 프락치야에게 기대한다。 총회는 당이 지금껏 진행해 온 의회내 투쟁을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총회는 대중적 파업도 포함한 전체 근로 주민을 망라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조직하는 데 착수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로동자들의 결정적이며 공격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 서서히 그러나 부단히 자라고 있다。 만일 의회 프락치야내와 로동 운동의 관리들 간에 허다히 있는 기회주의자들이 그러한 투쟁을 반대한다면 로동 대중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투쟁이 더욱 더 많은 공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쁘라우다』 제一一六 (三二〇)호、一九一三년 五월 二二일

독일 카톨릭교도들에 의한 대중의 조직

주민 대중이 무권리하고 정치적 자유가 없고 권력의 전횡이 지배하고 있는 락후한 국가들에서는 다소라도 광범한 정치 단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 안되는 극소수의 지주들 또는 백만 장자—산업가들만이 『동맹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그러나 이 극소수자는 비단 인민 대중을 조직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직을 불처럼 두려워하기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전체 주의를 지배층에、『상류 사회』에、권력에 돌린다。

헌법의 기초와 인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여 있는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자들 (그들의 유일한 힘은 대중을 계몽하며 조직하는 데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반동 당들까지도 대중을 조직하려고 한다。 국가 체제가 민주화되여 있는 이상 자본가들은 대중들 가운데서 지주(支柱)를 찾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존승주의 (흑백단주의와 종교)、민족주의—쑈비니즘 등등의 구호 밑에 조직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는 계급 투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인민의 가장 락후한 층들까지도 계급 투쟁 가운데 인입하여 그들에게 정치를 가르치고 자기 견해、자기 리익의 주장을 가르쳐 줌으로써 계급 투쟁을 더욱 의식적으로 되게 하며 더욱 광범하게 하는 것이다。

례컨대 독일의 반동 당인 『중앙』당 즉 카톨릭 당이 인민 대중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교훈적이다。 그들은 종교와 『애국주의』의 구호 밑에 자본주의 옹호를 대중들 가운데 불러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독일의 카톨릭 교도들은 인민 대중의 편견과 압매를 조직하기에 성공하였는바 그 일부 원인은 독일의 카톨릭교도들이 주민의 소수이고 또 이 소수가 한때 국가 측으로부터 박해를 당하였다는 데 있다。 피착취 근로 대중은 언제나 피박해자를 본능적으로 동정한다。 반동적 카톨릭교도들은 이 기분을 리용할 줄 알았던 것이다。

카톨릭교도들은 소위 『인민적 독일 카톨릭교도 동맹』이란 대중 단체를 창건하였다。 맹원 七五만명。 조직은 엄격한 중앙 집권제。 조직의 목적：『기독교적』 (실은 자본주의적) 체제의 옹호와 『파괴적』 (즉 사회주의적) 경향과의 투쟁。

동맹의 선두에는 二四명의 맹원으로써 되는 지도부가

서 있다。 그중 九명은 지도부의 사무 집행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개별적 대도시 등등의 대표자들이다。 카톨릭교도 가족 二〇 내지 四〇명에 대해서마다 『대리인』 한명씩 임명된다。 대리인은 모두 지도부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다。

카톨릭교도 제씨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보통 사회—민주주의 선동원들은 로동자들의 푼돈으로 살아간다고 짖거린다。 그러나 카톨릭교도들 자신이 자기들의 조직에서 꼭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다소라도 중요한 지점에서는 어디서나 그들은 유급 선동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사업은 완전히 공장식으로 조직되여 있다。 二〇명의 전문 사무원들이 『문필』에 종사한다: 어떤 자는 신학을 연구하고 어떤 자는 농업 문제를 연구하고 어떤 자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연구하고 어떤 자는 수공업자들을 연구한다 등등。 신문 잡지에서 절취와 발췌를 하고 기록이 행해진다。 속기자들이 일한다。 특별 도서실에는 四만권의 책이 있다。 신문들에 보낼 편지——수십가지 카톨릭 신문에 게재될 『통신』들이 작성된다。 특별한 『사회—정치적』 통신과 특별한 『호교론적(護教論的)』(즉 종교와 기독교를 옹호하는) 통신이 행해진다。 모든 문제에 관한 소책자 총서가 발행된다。 각종 강의 요강이 년 약 五천부 발송된다。 영화에 의한 선전에 종사하는 특별 지부가 있다。 안내소는 각종 참고서를 무상으로 급여한다: 一九一二년도의 참고서 급여 부수는 一천八백만 이상。

카톨릭교도 학생들이 선전 선동에 계통적으로 인입된다——특히 방학을 리용하여。 대리인들(그들은 수만명에 달한다)이 특별한 『사회학 강의』에 뫼여 든다。 사회—민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대한 특수 『훈련』을 위하여 당 지도부 관하의 二개월반 특별 강의가 리용된다。 二주일반 특별 강의가 농민、교원、점원 등등을 위해 설치되여 있다。

독일 카톨릭교도—흑백단원들은 괜찮게 사업한다。 그러나 그들의 전체 사업은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사업의 고식적인 모방인 것이다。

『쁘라우다』 제一二〇(三二四)호、一九一三년 五월 二六일

로동자들을 위한 휴가에 관하여

독일에 있어서도 금속 로동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식적 및 조직적 프로레타리아들의 첫 대렬에 서 있다。 그들도 로동자들을 위한 정기 휴가의 확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장주들은 보는 바와 같이 이 대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막대한』 지출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금속 로동자들은 그들의 동맹에 의하여 특별히 발행된 소책자에서 이러한 탐욕스런 위선적 구실들을 정확한 수자로써 론박하였다。 로동자들이 증명한 바에 의하면 독일 야금 공업의 九三개 주식 기업소에서 순 리윤이 一九〇五년부터 一九一〇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평균 一三·四%이였던 것이다!!

이 리윤을 불과 二%만 감소시킨다면 모든 로동자들에게 정기 휴가를 얻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휴가 제도는 아직 극히 미약하게 발전되여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로동자 예속화의 목적을 위하여 자본가들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독일 금속 로동자들은 휴가 문제에 관하여 一九〇八년과 一九一二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질문서에 의한)를 실시하였다。

一九〇八년에는 로동자들이 휴가를 리용한 기업소가 一三八개소이였다。 이 기업소들에 종사하는 로동자 七五、五九一명 중에서 휴가를 리용한 로동자는 一三、五七九명 즉 一七·九%이였다。

一九一二년에는 로동자들이 휴가를 리용한 기업소가 三八九개소이였다。 종업 로동자 一三三、九二七명 중에서 휴가를 한 자는 三四、二五七명 즉 一四%이였다。

금속 공업 기업소 매 一、〇〇〇개소 중에서 휴가를 준 기업소는 불과 三개소 밖에 안된다! 전체 금속 로동자들 중에서 겨우 一·八% 즉 五〇분의 一 미만이 휴가를 리용한 데 불과하였다。

휴가를 주는 기업소들의 다수——즉 그러한 기업소의 一〇분의 九 이상——는 공장에서 상당히 오래 동안 근속한 로동자들에게만 휴가를 허가하고 있다。 三八九개 공장(一三三、九二七명의 로동자를 가진) 중에서 一四〇、二〇九명의 로동자를 가진 八四개 공장에서는 五년 내지 一〇년(!!)을 근속해야 비로소 로동자가 휴가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여 있다。

명백히 이러한 휴가는 로동자를 위한 우스우리만큼 보잘 것 없는 개선으로서, 주로는 로동자를 공장에 비끌어 매 두기 위한 미끼이며 파업을 반대하는 투쟁의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휴가 기간은 다수 경우에 (상기 기업소들에서 종사하는 로동자의 七二%에 대하여) 一주일을 넘지 못한다. 一〇%의 로동자에 대해서는 휴가 기간이 一주일 미만이고 一六%의 로동자에 대해서만 一주일 이상 (二주일 이하)이다.

휴가를 주는 기업소들의 다수 (九七%)에서는 로동자들이 휴가 중에 종전의 임금 즉 평균 주급을 받고 있다.

요컨대 우리는 로동자들을 위한 휴가가 선진적 나라의 선진적 공업에 있어서도 형편 없이 적게 발전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정기 휴가의 필요성은 로동자들에 의하여 더욱 더 광범히 의식되고 있는바 조직적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완강성에 의하여 이 령역에 있어서도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엔·엔

『쁘라우다』 제一二四 (三二八)호, 一九一三년 五월 三一일

「력사적」 방안의 의의

제四차 국회에 의한, 一〇월 당원들과 까제트들의 투표에 의한 소위 정부 불신임의 방안 (내무성 예산에 관한)의 채택은 계속 출판물들의 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 사실 이 방안은——이 방안에 대한 자유주의적 출판물들의 주석과 꼭 마찬가지로——신중히 심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문제들이 여기에서는 참으로 원칙적인 것들이 제기되여 있으니만큼 이 문제들에는 다시금 또 다시금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된 날인 五월 二一일은 『력사적인 날자로서의 의의를 보유한다』고 『레취』(주) (제一三七호)

의 사설은 엄숙히 성명하였다. 이와 같은 요란하고 회떠운 문구들을 만들어 내는 데 우리의 자유주의자들은 솜씨가 대단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국회의 본 결정이 가지는 의의에 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려고 하자 마자 그들의 놀라운 무사상성과 무능성은 곧 드러난다.

자유주의자들은 국회 방안의 의의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툴 수 없는 사실들을 보려 하지 않는다.

첫째로 이 방안을 채택한 당들 중에서 一〇월당원들도, 진보당원들도 (까제트들은 실은 이들과 불가분의 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을 부인할 것은 제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까제트들 측에서 예산을 부인한 것은 민주주의를 꾀이는 하나의 연극 제스츄어에 불과하였다, 왜냐 하면 까제트들이 실은 一〇월당원들을 지지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력사적』 방안이란 하나의 문구이다, 왜냐 하면 부르조아 당들의 다수는 예산을 부인할 수 있는 자기의 다툴 수 없는 『의회적』 권리조차도 감히 행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까제트들은 一〇월당원들도, 진보당원들도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국회에서도 국내에서도 제로이다.

둘째로——방안의 사상—정치적 내용은 무엇에 귀착되는가? 『우리는 광범한 개혁들의 가장 급속한 실현을 주장하는 바이다』——이렇게 一〇월당원들의 채택된 방안은 선언하고 있다. 진보당원들도 그렇게 썼다. 『중앙』 당원들(즉 반〔半〕一〇월당원들, 반〔半〕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아니 좀 더 세차기조차 하여 『근본적 개혁들』!이 라고 하고 있다——이다. 까제트들도 전적으로 마찬가지의 개량주의적 견지에 서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표현이 좀 더 날카로울 뿐 사상은 전혀 개량주의적인 것이다.

세째로——까제트들로부터 一〇월당원들에 이르기까지의 방안에는 모두 반동적 견지가 명백히 표현되여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레취』의 그릇된 주장과는 반대로 一〇월당원들의 방안은 진보당원들보다, 아니 까제트들보다도 더 좌익적이지 우익적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하라:

(一) 진보당원들의 방안: (내각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동의 씨를 국내에 뿌리고 있다』.

(二) 까제트들의 방안: 『이와 같은 상태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三) 一〇월당원들의 방안: 『내각은 인민 가운데서 법령과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반정부적 기분을 격화시키고 있다』.

『최고 정치』의 언어로부터 보통의 인간적 언어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한가지를 의미한다. 즉 까제트들도, 一〇월당원들도, 진보당원들도 지주——물론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로서의——의 안전을

현재의 제도 하에서 보다 더 잘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네째로 상기 세 당은 모두 다 민족주의와 쇼비니즘의 견지에서 있다: 내각이『로씨야의 위력』(一〇월당원들의 방안과 진보당원들의 방안) 또는『국가의 대외적 위력』(일층 더 명백하다!)(까제트들의 방안)을『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하여 묵살되고 외곡된 제 사실은 이상과 같다。제四차 국회의『력사적』방안은 까제트들이 진보당원들의 도움을 얻어 一〇월당원들과 체결한 하나의 협정으로서、그것은 예산을 가결하고 반동적 민족주의 및 쇼비니즘의 견지를 명백히 표명한다는 조건 밑에 정부를 탄핵하며『근본적 개혁들』에 대한 념원을 표시하자는 것이다。

『쁘라우다』제一二六(三三〇)호、一九一三년 六월 二일

주『레취』——일간 신문、까제트당의 중앙 기관지。一九〇六년 二월부터 一九一七년 一〇월 二六일 (一一월 八일)까지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음。

누구가 지지자인가?

내무성 예산에 관한 제四차 국회의 악명높은 방안에 대하여 우리의 자유주의적 출판물들은 다음과 같이들 해석하고 있다。『정부는 이를테면 진공(眞空)에서 행동하고 있다』。『보조금이 계속되는 동안까지만 충실한 보조금 받는 신문들과 보조금 받는 정객들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국내에 벗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진지한』교수적『루쓰꼬에 뷔도모쓰찌』(주)의 의견인 것이다!

『정부는 완전히 고립되여 있어서 정부 자체가 조직한 그루빠들에서까지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것은『레취』의 의견이다。

이러한 론의들에서 자유주의의 진영의 교수、변호사、작가 및 대의원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유치성의 견본을 찾기는 아마 용이치 않을 것이다。이것이야말로 실로『다행이도 의회 없는』나라에서의 고칠 수 없는 의회적 크레친병이다!

진공에서、라고 당신들은 말하는가?

그러면 교수、대의원 제씨여、당신들은 ···들은 일이 없는가、합동 귀족 참의원에 대해서? 그들의 정부 정책 지지에 대해서? 지주 계급이 가지고 있는 로씨야의 최량 부문의 수억 제샤찐의 최량 토지에 대해서? 같은 지주 계급에게 속해 있는 저 모든 문무 현직(文武顯職)에 대해서? 같은 지주 계급 층 출신의 사탕왕 기타의 금융왕들에 대해서?

들은 일이 없다고? 오、영명하신 자유주의의 위정자들이여!

정부는 완전히 고립되여 있다、정부는 국내에 벗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당신들은 말하는가?

그러면 제씨들이여、당신들은 무엇인가? 당신들은 진보당원들 및 一〇월당원들과 함께 내무성 예산을 가결하지 않았던가!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 그러한『념원』을 표시하면서 돈을 얼마든지 선듯 내주는 잘 아는 백만장자들이 있다고 상상하라。제씨들이여、당신들은 생각하지 않는가、우리는 이 백만장자들을 자기의 벗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또 자기가 (백만장자들 가운데서)『고립되여 있다』고는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는。

그러나 당신들은 자기의 방안으로써 정부에게 물질적 지지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커다란 정신적 지지까지도 주었다。이것은 극히 중요하니 당신들에게는 난처한 이 문제를 공중 앞에서 당신들이 회피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리라고는 생각치 말라。

국회에서 벌어진 론쟁은 무엇에 관해서였던가? 경찰의 개혁과『법 체제의 정상적 한계』:에 대한 념원을 표명하고 돈을 주자——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돈을 주되 근본적 또는 광범한 개혁들에 대한 념원을 표명하자——一〇월당원들은 자기들이 반혁명적 민족주의 및 쇼비니즘의 견지에 서 있다는 것을 첨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모두 요술을 피운다: 첨가에 대해서는 이를 묵살하면서 그들은『근본적 개혁들』의 요구에 기뻐 날뛰는 것이다! 그들의 목록에다 여편한 청산과 잔 재주군의 지적대로『련합의 자유와 토지 법령 개정』이란 것을 첨가했더라면 아주 만점이였

을 것을…

농노제적 지주들은 반동을 지지하고 있다. 부르죠아지는 개혁을 지지한다.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방안』으로써 정부에 정신적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부르죠아지는 동시에 자기의 반혁명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에 정신적 지지를 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지는 수십차의 『정신적』 타격보다 백배나 더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국회의 『력사적』 방안은 六·三 체제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 섰다는 것을 백번채 확증하였다. 그리고 부르죠아지는 상기 진지에 머물러 있는한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력사의 경험은 우리에게 부르죠아지는 자유주의자들이 거부하고 회피하는 바로 그 위기타개가 닥쳐오지 않는다면 수십년이라도 개혁을 몽상하며 막다른 골목에서 허송 세월하며 뿌르쉬께위치들의 명예를 참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쁘라우다』 제二二七 (三三一)호, 一九一三년 六월 五일

주 『루쓰꼬에 웨도모쓰치』——자유주의적 지주 및 부르죠아지의 일간 신문으로서 一八六三년부터 一九一八년까지 모쓰크바에서 발행되였음.

대의원 프랑크—대중적 파업을 지지

기회주의적 익의 가장 저명한 대표자의 한 사람인 유명한 바덴 사회—민주주의자 프랑크가 대중적 파업을 프로씨야 선거 개혁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서 지지해 나선 것은 독일 사회주의 당내의 한 사건이다. 베를린 교외 월메르스도르프 사회—민주당 단체는 프랑크를 초청하여 대중적 파업이란 제목을 가지고 강

연을 하게 하였다. 부르죠아 신문들은 『바덴』에서 온화한 해열적(解熱的)인 연설이 울려 나오리라고 기대하면서 대회에 대하여 특서 대필하였다. 무료 광고가 호화스러웠다. 집회는 굉장하고 유달리 으리으리 하였다.

그러나 프랑크는——그가 과격한 기분의 베를린 로동자들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지, 남부 독일의 보다 자유로운 제도에 관습된 이 남방 사람이 자기가 베를린에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된 저 융케르들(독일의 귀족—흑백단원들)의 철면피한 지배에 격분했기 때문에 그런지——대중적 파업을 열렬히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다.

연사는 우선 프로씨야 국내 정책부터 풀기 시작하였다. 융케르들의 지배, 프로씨야 국회의 반동적 선거법(우리의 제三차 국회 선거법 (주一)과 비슷한 선거법),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제 보장의 결여에 대하여 프랑크는 무자비하게 내려쳤다. 연사가 프로씨야 선거법에 의하면 유곽 주인이 제一급의 선거권을 향유하고 총리대신은 다만 제三급의 선거권을 향유할 뿐인데 이것이 프로씨야적 『질서』의 특징이라고 지적하였을 때 집회는 그의 평가를 한결같은 웃음으로써 강조하였다.

베를린 로동자들은——하고 프랑크는 농담을 하였다——야교브(一九一〇년에 시위를 금지하려고 헛되이 지도하였던 시 경찰서장)와의 투쟁으로써 그들이 가두 기동 련습을 하는 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연사는 력사상의 다음과 같은 대중적 파업들의 례를 상기하였다: 영국 챠티스트(주二)들의 파업, 一八九三년, 一九〇二년 및 一九一二년의 벨기 사람들의 파업, 一九〇三년의 서전 사람들의 파업, 一九〇四년의 이태리 사람들의 파업, 一九〇五년의 로씨야 사람들의 파업——이 마지막 것에 대해서는 연사는 상세히 론급하여 로씨야 로동자들이 당시 자기들의 이웃이며 형제들인 오지리 로동자들에게 얼마나 방조를 주었던가를 강조하였다. 정치적 파업의 위협 하나만으로써도 당시는 오지리 로동자들이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는 데 충분하였던 것이다.

프로씨야와 독일에는——하고 프랑크는 부르짖었다——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로동 운동과 가장 보급된 로동자 출판물이 있다.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에게서 대중적 투쟁을 배우자! (집회의 폭풍우같은 박수 갈채).

물론 새로운 투쟁 형태는 희생과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하고 프랑크는 계속하였다——그러나 희생과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정치적 전투란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본 일이 있는가? 일단 투쟁의 필요성을 자각한 이상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하며 우리는 도중에 암초가 있으리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암초가 무서워서 항만에 머물러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일어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는 다른 해안에는、 우리들이 지향한 바 목적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집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프랑크의 연설은 반동이 독일 로동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분격케 하였는가를 다시금 또 다시금 실증하였다。 독일 프로레타리아트 사이에서의 강력한 항의는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성숙되여 가고 있다。

까리취

『쁘라우다』 제一三二 (三三六)호、 一九一三년 六월 一一일

주一 제三차 및 제四차 국회의 흑백단—까제트적 구성을 보장한 六•三(一九〇七년 六월 三일 (一六일) 선거법을 두고 말함。

주二 챠티좀——一九세기 三〇년대 말부터 五〇년도 초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대중적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

흥미있는 대회

어제 六월 一二일 하리꼬브에서는 흥미있는 대회가 열리였다。 이 대회는 두가지 점에서 흥미있는 것이다。 첫째로 그것은 인민 교육에 대한 통계를 취급한 최초의 전 젬쓰뜨보 대회이다。 둘째로 이 대회는 당국이 특별한 주의를 돌리는 영광을 누렸다。 대회 의장이 당국에 의하여 임명되였고 전문가들 역시 당국에 의하여、 『루쓰꼬에 쓸로보』에서 베•웨쎌로브쓰끼가 말한 바와 같이 『로과(濾過)』되였다。 출판계 대표들은 대회 참가를 금지 당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심지어 『로씨야적』 견지에서 볼 때에도 지나치게…조심스럽게 보이는——은 대회가 우크라이나 중심지의 하나에서 소집되고 있다는 것으로써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을 것이다。 전 젬쓰뜨보 대회에는 비단 우크라이나의 통계 일꾼 및 젬쓰뜨보 일꾼들 뿐만 아니라 로씨야의 모든 민족에 속하는 이 방면의 일꾼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필시 대회의 토의 제목이 당국의 비위에 그다지 맞지 않을 것이다——론의가 다만 통계의 조직에 국한될 것이며 무엇을 하였는가 왜 적게 하였는가 또 더 많이 더 잘 해야 한다는 데 국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씨야에서는 인민 교육이 세계의 어디보다도 락후해 있다。 국회 의원 바다예브가 자기 연설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흑인들까지도 문맹자가 불과 四四% 밖에 안되는 데——구라파에서는 一 내지 二%——로씨야에서는 문맹자가 七九%나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인민 교육은 실로 허다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역시 종전보다 급속히 장성 발전하고 있다。 인민 교육의 진상을 안다는 것은 인민 대중 일반、 특히 로동자들의 직접적인 가장 절실한 리익이다。

인민 교육에 대한 통계는 구라파식으로 한다면 아주 용이하게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매개 남녀 교원은 매개 학생에 대해서도 (년령、 민족 소속、 가정 생활 수준、 부모의 경제 형편 등등)、 매개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 정도、 봉급 액수、 로동일、 민족 소속 기타 등등) 해마다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통계 일꾼들은 이러한 자료를 해마다 연구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교양 및 교육 상태에 대해서도、 인민 생활의 각 방면에 대해서도 극히 풍부하고 극히 귀중한 재료들을 국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만일…하다면…만일…하다면…。 출판계 대표들은 하리꼬브 대회 참가를 금지 당하였고 대회 의장은 당국에 의하여 임명되였고 전문가들도 베•웨쎌로브쓰끼가 『루쓰꼬에 쓰로보』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당국에 의하여 로과되였다。

우리는 구라파의 인민 교육 통계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였다。 여기에서 무슨 구라파가! 입을 다무는게 수다。

엔

『쁘라우다』 제一三四 (三三八)호、 一九一三년 六월 一六일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자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당과 광범한 당원、비당원 대중과의 밀접한 호상 관계를 규정하는 우리 당의 기본적 정치 로선이며 기본적 조직 로선이다。

『우리 당은 항상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과 밀접히 련계를 가지며 인민들과 같이 살며 인민들의 리익을 자기의 리익으로 알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온갖 정책들을 세우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하는 정치 로선을 내세우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一권 五五二페지)。 그러므로 당의 모든 구호와 정책들은 인민 속에서 나오며 또 정확하게 인민 속으로 들어 가서 인민 자신의 구호와 결정으로서 인민 대중에 의하여 집행된다。

우리 당의 이 정확한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은 군중 로선과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대중으로부터 나온 의견 (산만하며 계통이 없는 의견)을 집중 (연구를 거쳐서 집중적이고 계통적인 의견을 만든다)하여 집중된 의견을 또 다시 대중 속에 주입시켜 그를 대중의 의견으로 만들므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그를 견지케 하며 그들 자신의 행동으로써 실천케 하며 그들의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의 정확 여부를 검증케 함으로써 일반적이며 지도적 의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 우리 당의 기본적 령도 방법이다。 지도적 골간과 광범한 대중은 조직 과정에서와 투쟁 과정에서 옳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상、옳바른 지도적 의견은 오직 군중으로부터 집중되고 그것이 또 다시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견지되는 것이여야 한다는 사상、지도적 의견을 실천에 옮길 때에는 일반적 호소와 개별적 지도를 련결시켜야 한다는 사상——이는 곧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의 주요 조건들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우리 나라의 구체적、력사적 조건에 가장 상응한 정치 로선과 함께 정확한 군중 로선을 확립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기 정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였으며 광대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킨 강력한 대중적 정당으로 장성 발전되였으며 오늘과 같은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정확한 군중 로선에 립각하여 자기 발전의 매개 시기와 발전 단계에서 당 내외의 온갖 반당적、반인민적、반국가적 분자들을 광범한 혁명적 기본 군중으로부터 고립 분쇄하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과업 완수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당과 김 일성 동지는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매개 당원들이 프로레타리아트적 군중 관점으로 자체를 무장하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이 복무하며 인민 대중과 잠시라도 리탈하지 말고 인민과 한 덩어리가 되여야 하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당의 로선을 해설하여 주며 그들의 심정을 연구하며 그들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 인민적 사업 작풍으로써 일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자기 사업의 성과 여부를 인민 대중의 근본적 리익에 알맞는가? 또는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서 옹호를 받는가?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매개 당원들이 군중의 뒤꼬리를 따르지 말고 앞을 내다 볼 줄 알며 군중을 교양하고 군중을 령도할 줄 알며 군중을 이끌고 부단히 앞으로 전진하라고 가르쳐 왔으며 또 가르치고 있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군중 로선은 우리 당과 같은 새 형의 맑쓰—레닌주의 당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며 맑쓰—레닌주의 당으로 하여금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당들과 또는 기타 온갖 기회주의적 당들과 뚜렷이 구별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징이며 그를 보다 비할 바 없이 강력한 백승 불패의 당으로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 조건이다。 오직 우리 당과 같은 맑쓰—레닌주의 당들만이 인민 대중의 무궁 무진한 력량을 볼 줄 알며 자기의 모든 힘의 원천을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 속에서 찾는다。

우리 당은 자기의 일체 활동에 있어서 항상 자기의 계급 로선——프로레타리아트적 군중 로선을 고수하면서 군중과 리탈할 수 있는 좌우경적 편향들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당은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인민 대중의 창조적 력량을 믿지 않으며 대중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보며 대중에 대한 귀족적 태도를 취하는 온갖 종류의 부르죠아적、관념론적 견해로부터 흘러나오는 개인 영웅주의、관료주의、명령주의、독단주의 등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군중의 각성 정도를 넘어 섬으로써 군중의 자원적 원칙을 위반하는 좌경적 조급병이다。

당은 또한 군중 속에서 지도적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군중의 자발적 의사에만 맡겨 버리고 군중의

뒤꼬리를 따라가는 우경적 추미주의、자류적 경향 등등도 반대한다。왜냐 하면 그것은 군중의 각성 정도에 뒤떨어짐으로써 군중을 령도하여 앞으로 전진한다는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인민 대중에 대한 이 모든 좌우경적 편향들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우리는 자기가 리해한 것을 광범한 군중도 자기처럼 모두 리해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이와 반면에 자기가 리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군중도 다 리해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군중이 리해하였는가 리해하지 못하였는가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군중 속에 들어 가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

우리들、매개 일꾼들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당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을 똑똑히 인식하고 인민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이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이 자기 자체의 힘으로 자기를 해방시킨다는 위대한 맑쓰의 명언을 확신하고 대중의 자각적 투쟁을 불러 일으키며 그 투쟁을 정확하게 조직 지도한다。 당은 이 임무의 범위를 뛰여 넘어서지도 않으며 또 뛰여 넘지도 않는다。 만일 우리 당이 대중을 제쳐 놓고 인민 대중이 해야할 모든 투쟁을 독판하여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당은 자기의 계급적 지반으로 되는 인민 대중과 리탈되며 인민의 선봉대로 될 수 없으며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과 정부의 모든 결정과 지시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중의 자각을 불러 일으켜 대중과 함께 그것을 집행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대중의 각성 정도와 준비 정도를 지나치게 뛰어 넘어서도 안되며 그와 반대로 대중보다도 뒤떨어져서 그 뒤꼬리만 따라가도 안된다。 우리는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대중과 같이 살고 같이 일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들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군중 우에 올라 앉을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있는 군중과 한 덩어리가 되여 군중의 각성 정도에 근거하여 군중의 각성을 깨우쳐 주고 제고시키며 군중의 자원적 원칙에 의거하여 점차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또한 우리 혁명 발전의 매개 시기와 매개 정형 밑에서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제때에 정확한 정책과 임무를 군중 앞에 제시하며 그를 군중 속에 적극적으로 침투시켜 군중을 령도하여 전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중 속에서 발생되는 일체 결점과 오유들을 예리하게 적발하여 제때에 시정하여야 하며 또 군중 속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싹들과 창조적 발의들을 발견 포착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들을 대중 속에서 육성 발전시키며 일반화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군중 로선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지도할 수 있었고 그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킬 수 있었으며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받게 되였다。

당은 오늘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축성을 위한 투쟁을 당면 임무로 제기하고 당의 조직자적、령도자적 역할을 제고하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당과 군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이 제시한 이 임무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 동원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도 일부 일꾼들 속에 남아 있는 관료주의、형식주의 등등의 낡은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퇴치하고 당의 령도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으로써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만일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지 못하고 당의 령도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으로써 자기 자체를 무장하지 못한다면 광범한 대중을 우리 당의 주위에 집결시키지 못할 것이며 우리 혁명의 당면의 임무 수행에로 그들을 조직 동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복잡한 혁명적 과업들을 앞에 두고 당의 령도 방법과 간부들의 사업 작풍을 가일층 개선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옳은 령도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의 군중 관점——혁명 군중을 위한 군중 관점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군중 관점——이것은 우리 당、정권 기관、경제 기관 일꾼들의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기본 출발점으로 된다。

혁명 군중을 위한 군중 관점이란 우선 모든 것을 인민 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며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관점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 대중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자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당 단체들과 국가 기관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인민에게 복무하는 기관이며 당 및 국가 기관 일꾼들은 그들이 어떤 기관의 어떤 직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간에 모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매개 당원들이 가져야 할 군중 관점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민에 대한 관리가 아니요、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인민들의 충복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튼튼히 의거하여 매개 당원들은 언제 어데서나 군중의 리익을 높이 내세우고 모든 일을 군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매개 당원들이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한다는 것은 항상 가장 광범한 군중의 최대의 리익에 자기의 개인의 리익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리익、전체의 리익과 자기 개인의 리익을 옳게 부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구한 리익에 자기의 일시적 리익을 결합시켜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조건적으로 전체의 리익에 자기의 개인적 리익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기관 본위주의, 지방주의 등과 투쟁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을 위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

혁명 군중을 위한 군중 관점이란 모든 일에 대하여 군중 앞에서 책임지는 관점이다. 군중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고 볼 수 없다. 매개 당원들이 인민의 충복인만큼 자기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나라의 주인인 인민 앞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중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과 정부 앞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 속에서 완전히 집행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수령 앞에, 자기의 지도 기관, 자기의 상부 앞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매개 당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군중의 리익을 위하여 성심 성의로 복무하여야 하며 자기의 모든 재능과 정력을 인민 대중을 위하여 바쳐야 하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인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혁명 군중을 위한 군중 관점이란 혁명 군중의 무궁 무진한 창조적 력량을 믿는 관점이며 인민의 해방은 반드시 인민 자신의 힘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관점이다. 인민 대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며 무궁 무진하며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가치의 창조와 사회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력량이다. 혁명은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한 광범한 군중의 행동이며 당은 인민 대중에 의거해서만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축성을 위한 우리의 혁명 투쟁은 혁명적 군중 자신이 하는 사업이며 그의 성공 여부는 그에 인민 대중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가에 의존된다. 당이 군중 속에서 놀아야 할 역할은 인민 대중의 자각과 그들 자체의 투쟁을 불러 일으키며 그들의 투쟁을 정확하게 조직 지도하여 앞으로 부단히 전진시키는 데 있다. 이 원칙을 위반한다면 관료주의, 영웅주의, 명령주의 등이 발생되며 군중과 리탈하게 된다.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은 인민 대중과의 불가분적 련계 속에 있으며 그들의 창조력에 의거하는 데 있다. 때문에 매개 일꾼들과 당원들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꾸준히 대중 속에 해설 선전하여 그들의 자각성을 제고시키면서 모든 사업을 군중에 의거하여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혁명 군중을 위한 군중 관점이란 인민 대중에게서 배우는 관점이다. 당의 모든 정책을 인민 속에서 내오며 인민 대중 속에 그것을 정확히 침투시켜 집행케 하려면 우리는 인민 대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에게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인민 대중은 무궁 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집단적 지식과 경험은 어떤 개

인의 지식과 경험보다 비할바 없이 풍부하며 실제적이며 위대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창의 고안과 창발적 전의 등으로 당과 국가에 거대한 리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 일꾼들은 군중을 옳게 령도하려면 자기 개인의 지식과 지혜를 인민 대중의 무궁 무진한 지식과 경험으로써 부단히 보충하여야 한다. 지도 일꾼들은 인민 대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는 학생으로도 되여야만 인민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으로, 령도자로 될 수 있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결함을 지적한다면——그 말이 옳기만 하다면 그 말대로 시정하여야 하며 인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대로 하여야 한다.

혁명적 군중을 위한 우리 당의 군중 관점은 이러하다. 만약 이러한 군중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의 정확한 군중 로선을 관철할 수 없으며 기필코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관료주의자로, 형식주의자로, 탐오 랑비 분자 등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대중에 대한 신뢰, 그들의 모든 창조적 력량에 대한 지지——이것은 우리들, 매개 당 간부와 당원들의 의무이다. 높은 자리에서 대중을 내려다 보며 대중의 창조적 력량을 믿지 않으며 그들을 경시하며 그들과 리탈하는 경향 등——이 모든 것은 대중에 대한 귀족적, 관념론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의 정신에 립각하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일부 일꾼들 속에 남아 있는 관료주의, 공명주의, 독선주의, 개인 영웅주의, 탐오 랑비 분자들과의 견결한 사상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 사업, 당의 군중 로선과 당의 군중 관점에 대한 부단한 해설 침투 사업을 통하여 그 모든 낡은 사회의 추악한 오물들을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 매개 일꾼들은 인민에게 의존하여 사업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행동을 리해하며 사업에서 그들의 리해와 결부시킬 줄 알아야 하며 인민들을 옳게 동원할 줄 알며 인민들을 교양할 줄 알며 대중의 창조력에 대하여 믿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줄 아는 진정한 인민적 일꾼으로 되여야 하며 인민적 사업 작풍으로써 자기를 무장하여야 한다.

이것 없이는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할 수 없다.

쏘베트 군대에 의한 조선의 해방과 조선 인민의 창조적 투쟁

허 정 숙

조선 인민은 멀지 않아 끓어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위대한 쏘베트 무력에 의한 八·一五 해방 一○주년을 맞이한다.

쏘베트 군대에 의한 八·一五 해방, 그것은 비단 반세기에 걸친 악독한 일제 통치의 기반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로 수천년에 걸친 노예적 처지로부터 우리 인민을 영원히 해방하는 계기로 되였다. 여기에 바로 八·一五 해방의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거대한 력사적 의의가 있다.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월 혁명이 인류의 력사에서 근본적 전환——인류의 전사(前史—맑쓰)로부터 이를테면 그의 정사(正史)에로의 근본적 전환의 기원으로 되였다면 八·一五 해방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의 근본적 전환의 기원을 열어 놓았다. 그것도 바로 인류 력사에 새 기원을 열어준 그 나라, 그리하여 세계 혁명의 근거지로, 인류 해방의 기지로 된 그 쏘베트 나라의 무장력에 의해서였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진정한 자기의 력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모든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의 영광에 찬 一○년 간의 력사도 그 한페지 한페지가 위대한 쏘련 인민과 우리 인민과의 불멸의 친선, 불가분의 련계를 말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해방전 四○년간, 그리고 그 이전의 수천년간 우리 인민은 조선의 력사를 창조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한번도 나라의 주인으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주인으로 되여 보지는 못했었다.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고 우리 인민이 그들의 노예의 처지에 빠지게 된 것도 주로 우리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부패 무능한 봉건 통치 계급의 압제하에서 자기의 애국적, 혁명적 력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락후한 봉건적 전제하의 리조 사회에서 량반 귀족들의 전횡은 무제한하였으며 그들의 착취와 부패는 절정에 다다라 있었다. 인민 대중은 생산에 아무런 흥미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실정은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인민들의 애국적 력량을 동원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인민 우에 군림하여 세도쓰던 지배 계급이 자기들의 무능력을 폭로하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점되게 되였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四○년 간에 오직 가혹한 식민지적,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의 대상으로만 되여 있던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 전체 인민들에게는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있을 수 없었다. 민족 문화는 말살되고 소위 황민화 정책이 강요되고 있었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처지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비호를 받은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일제와 더불어 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을 착취 억압하였으며 일제의 노예화 정책 실현에 광분하였었다. 일제 통치 말기에 이르러 팟쇼적 탄압은 최고도로 강화되고 인민의 처지는 더욱 더 암담하였다.

일제의 철쇄에 얽매어 고통많고 서름많은 망국노 생활에 신음하던 조선 인민에게 서광은 멀리 북방으로부터 비쳐왔다.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월 혁명의 승리는 로동자, 농민——인민 대중이 자본가—지주의 정권을 전복하고 온갖 형태의 압박과 착취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는 것을 뵈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인민 대중이 로동 계급의 사상인 맑쓰—레닌주의에 의거하여 맑쓰—레닌주의 당의 령도하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一○월 혁명의 영향하에 맑쓰—레닌주의의 혁명적 사상은 우리 나라에도 강력하게 전파되면서 암흑 속에 헤매이던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에로의 길을 등대와 같이 밝혀 주었다. 조선 로동 계급은 맑쓰—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인민들의 선두에 나섰으며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주력군으로 진출하였었다.

조선의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주동력으로 하는 인민들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과 인민들 자신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민주주의적 조국 창건에의 열망에 찬 투쟁은 조선 인민의 영명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장성 강화되였으며 그의 력량을 축적하여 왔었다.

김 일성 동지는, 인류의 력사는 사회의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인민 대중의 력사이며 인민이야말로 력사의

주인이라는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립각하여 조선 인민에게 조선의 주인은 바로 자기들 자신이라는 자각을 갖도록 교양 주었으며 그들을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혁명적 력량으로서 불러 일으키였다。그리하여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광범한 인민 대중속에 깊이 뿌리 박게 하였다。 동시에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적극적인 투쟁 형태——무장 유격 투쟁에로 발전시켰으며 인민 자신이 자기의 무장 력량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전취하는 길을 열어 놓았었다。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면서 우리 인민이 어떻게 해방을 전취할 것이며 해방된 후에는 스스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어떻게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를 맑쓰—레닌주의적 실천적 강령으로써 천명하였었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 광복회 강령에서 『일본 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철도、은행、선박、농장、수리 기관 및 매국적 친일 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 운동의 경제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각종 세금、전매 제도를 취소하고 대중 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여 모든 경제 시설들이 인민들의 물질적、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위하여 인민들 자신의 손으로 운영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었다。 여기에는 벌써 산업과 농업에 대한 혁명적 조치의 필요성이 천명되였었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 광복회의 一〇대 강령에서 인민의 무장력을 창건할 것을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소 조선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고 령솔하여 백전 백승의 항일 유격 전투를 진행함으로써 조선 인민 군대의 애국적、혁명적 전통의 기초를 쌓았었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조국 광복회의 一〇대 강령은 조선 인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인민 대중을 빈궁과 압박에서 해방시키며 조국이 해방된 후에 있어서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의 대로를 천명한 것이였다。맑쓰—레닌주의 리론과 전략 전술을 조선 혁명의 현실적 제 조건에 적응시킨 명확한 이 강령을 가졌었기에 조선 인민은 조선 혁명의 장래에 대한 투철한 전망과 명확한 목적을 내다보면서 고도의 애국주의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조국 광복회의 一〇대 강령은 一五 성상에 걸쳐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게 준엄한 타격을 가한 유격 투쟁의 현실적 목표로 되였으며 조선 인민이 해방 후 실시한 모든 찬란한 민주 개혁들의 거대한 성과속에 구현 발전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일 유격 부대의 핵심을 공산당원으로 형성하였으며 각 부대에 당 단체들과 공청 단체

들을 조직하고 강철같은 조직 규률로써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였었다。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정치 로선은 국내외의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군중속에 당 조직을 확대하여 그의 군중적 토대를 뿌리 깊이 강화하였는바 조국 광복회가 조직된 시기에는 二〇만의 조직 군중을 망라하였었다。 이 조직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의 국경 지대 각 도시와 농촌에는 물론 멀리 함흥、흥남、원산、성진、철원 등 공장 지대에까지 널리 포치되여 국내 인민들의 혁명 운동을 지도하였으며 수만명의 애국적 로동자、농민들을 혁명에로 불러 일으켰고 그들의 투쟁을 조직 지도하였었다。

김 일성 동지의 이와 같은 정확한 지도하에 국내외 인민들의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은 날로 고조되여 갔으며 우수한 인민의 아들 딸들이 항일 유격 부대에 찾아 들어가는 수효는 격증되였었다。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항일 유격 투쟁의 빛나는 성과는 가혹한 일제의 탄압밑에 신음하던 조선 인민들의 가슴 속에 혁명 투지를 앙양시켜 해방에 대한 굳은 신념과 희망과 기대를 북돋아 주었었다。 그리하여 국내외에서 맑쓰—레닌주의적、혁명적 당의 기초를 굳건히 정초하여 놓았다。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항일 유격 부대는 중일 전쟁 시기에 일제 『관동군』、『조선군』 및 괴뢰 『만주군』과의 가렬한 전투를 통하여 중국 침략 전쟁을 확대하려는 그들의 심장부에 타격을 가하였으며 일제로 하여금 수만명의 정규군을 상시적으로 동원하여 발악적인 소위 토벌 작전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었다。또한 一九四〇년부터는 유격 부대를 수다한 소조로 분리하여 새로운 전술을 쓰게 하였으며 도처에서 일제의 군수 창고、철도、교량、경찰서、수비대 등을 기습 소탕하여 후방을 교란하였었다。 김 일성 동지가 지휘한 유격 전투는 일제가 의식적으로 축소하여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실로 二三、九二八회에 달하며 一五년간을 두고 일제를 전률케 하였다。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 이후 개별적 나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전 세계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한부분으로、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의 한부분으로 되였다。김 일성 동지는 이 맑쓰—레닌주의적 견지를 심각히 리해하고 이를 우리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실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우리 인민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면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직접으로 중국 인민의 항일 민족 해방 투쟁과 련결시켰으며 또 위대한 쏘련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성과와 련결시켜 쏘련에 희망과 시선을 돌리게 하였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선진 투사들은 오직 쏘련 인민만이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을

진정으로 원조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 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혁명 력량을 길러 왔었다。

조선 인민의 이같은 신념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진행하여 온 장기간의 민족 해방 투쟁은 과연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 성취되여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베트 국가의 무력에 의하여 드디여 해방되여 자기의 운명을 자기들의 손으로 해결하며 스스로 자기들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였다。

조선 인민은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쏘련에 의하여 오래 동안 갈망하고 기대하던 민족적 숙망을 달성하게 되였다。 해방자 쏘베트 군대가 우리 조국에 진주하게 된 사실은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쏘베트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를 철저히 타도하고 조선에서 그자들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조선을 식민지적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위업은 오직 세계 혁명의 기지인 쏘련의 무력의 정의적 활동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쏘련은 맑쓰—레닌주의의 실천적 모범이며 프로레타리아 혁명 투쟁과 식민지 해방 투쟁에 궐기한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승리의 고무자이며 그들의 온갖 창조적 투쟁 력량의 원천이며 또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의 옹호자이며 성새이다。 八·一五 해방은 이 쏘련과 우리 나라를 영구 불멸의 혈연적인 친선 관계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불패의 뉴대로써 직접 련결하여 놓았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들로부터 한량없는 정신적,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를 받으며 선진적인 풍부한 투쟁 경험을 직접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천재적 령도밑에 장기간에 걸쳐 장성 축적되여 온 조선 인민의 주체적 혁명 력량은 새 조국을 건설하는 주력 부대로서 자유로운 창조적 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되였다。

* * *

조선 인민은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지어진 유리한 조건하에서 우선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들을 완수하는 창조적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오래 동안 억압 당하던 인민 대중의 생존욕과 창조력은 마치 터진 화산과 같이 폭발』(김 일성) 되였다。

이 투쟁을 조직 지도하는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맑쓰—레닌주의적, 혁명적 당의 창건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이미 국내외에서 그의 로대가 확립되여 있었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해방과 동시에 곧 창건되기 시작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새 당은 강철같은 조직 규률로써 의지의 통일과 사상, 행동의 일치를 보장

하였으며 광대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근로 대중의 근본적 요구를 표현하는 자기의 강령을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낡은 의회식 민주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민적 민주주의 즉 광범한 인민 대중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로선과 그에 립각한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주위에는 광대한 인민 대중이 결속되였고 각계 각층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우리 당에 의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 창건을 위한 창조적인 투쟁은 당의 조직자적, 향도적 역할에 의하여 추진되였으며 담보되였다。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창건하고 자신이 그의 주인으로 되였다。 조선 인민은 이미 해방 전부터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조국 광복회 강령에 의하여 자기들의 정권 형태로서의 인민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숙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요구는 우리 인민의 의식 속에 널리 침투되여 창발적 력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쏘베트 군대가 진주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기구를 소탕하자 우리 인민은 곧 자기들의 창의로써 인민 위원회 형태의 주권 기관을 수립하였다。

이로부터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인민 위원회를 강화 발전시키는 투쟁을 꾸준하게 진행하였다。

一九四八년에는 미제와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이 망국 五·一〇 단선으로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 하였다。 조선 인민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전 조선적인 총선거로써 통일적인 최고 립법 기관을 창건하였으며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선거에는 북조선의 총유권자의 九九·九七%가 참가하여 전체 투표자의 九八·四九%가 민전 립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였고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의 극악한 탄압하에서도 총 유권자 수의 七七·五二%가 참가하였었다。

조선 인민이 자기의 정권을 창건하고 그의 주인으로 됨에 있어서 쏘련은 시종 일관한 원조를 주었다。 조선 인민이 자기들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들이 희망하는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환경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최고 인민 회의가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조선에서의 외국 군대의 철거를 제의하자 곧 자기 군대를 북조선 지역에서 완전히 철거하였다。 그리고 쏘련은 조선 인민의 주권을 존중하며 조선 인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국제 무대에서 견결히 투쟁하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하에 그의 강령에 기초하여 인민 주권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조국을 인민 민

주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대한 혁명적 개혁들을 실시하게 되였다. 이 투쟁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의 二○개조 정강에 의거하였다. 二○개조 정강은 조국 광복회의 一○대 강령을 해방 후의 조선 실정에 적합하게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조선 인민의 사활적 리익을 반영한 것이였다. 이 정강의 성과적 실천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며 인민 민주주의적 조국 창건의 토대로 되는 것이였다.

二○개조 정강을 실천하는 투쟁은 토지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였다. 토지 개혁은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를 봉건적, 식민지적 질곡에서 해방시키는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으로서 이를 선차적으로 해결함이 없이는 다른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지도하에 민주 개혁 실시의 첫째 과업으로써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 개혁은 『조선 사회의 락후와 정체의 기본 원인이 되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 즉 봉건적 착취 관계를 청산하고 조선 사회의 자유스러운 무한한 발전, 민주주의적 발전의 대로를 닦아 놓았으며』 (김 일성) 조선 농촌에서 일제 및 국내 반동 세력의 물질적 토대를 박탈하고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로력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대 변혁이였다.

조선에서의 토지 개혁은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실시된 어느 나라의 토지 개혁보다도 가장 철저하였으며 또한 동방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 선구적, 모범적 민주 개혁이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건된지 불과 한달도 못되여 이같은 위대한 민주 개혁을 二○일간이라는 단시일내에 아무런 혼란도 없이 승리적으로 수행한 것은 쏘베트 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과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령도가 있었음으로써 가능하였다.

조선 인민은 조선 사회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중요 산업 국유화는 조선의 사회 경제 체계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왔다.

인민 경제의 골간 부문인 중요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소유로 된 결과로 우리 나라 산업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게 되였으며 인민 경제를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즉 모든 중요 생산 수단은 자본가들의 최대 리윤 획득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국가와 전체 인민의 물질적 부를 증대시키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의 최대한의 충족을 위하여 리용되게 되였다.

중요 산업 국유화는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변혁이였다.

중요 산업을 국유화함에 있어서 쏘베트 군대의 방조는 특히 위대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략탈자들이 조선 인민을 략탈하는 수단이였던 모든 산업 시설들을 쏘베트 군대는 자기의 피로써 탈취하였고 그것을 복구 정비하여 전부 조선 인민에게 넘겨 줌으로써 조선 인민들이 자기 조국의 경제적 기초를 이룩할 수 있게 하였다. 공업 건설이 없는 국가 건설이 있을 수 없음에 비추어 이와 같은 쏘베트 군대의 원조는 조선 인민의 행복 창조의 물질적 토대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토지 개혁과 산업 국유화로써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로동자, 농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정치적 열성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로동자, 사무원들과 녀성들의 사회적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는 민주 개혁들도 실시하였다.

로동 법령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八시간 로동제와 사회 보험제를 부여하였으며 식민지적, 노예적 착취 제도에서 그들을 영원히 해방시켰다. 남녀 평등권 법령은 녀성들에게 사회, 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였다.

교육과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한 개혁들도 실시되여 일제의 노예 교육 제도는 근본적으로 소탕되였으며 전체 인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민족 문화의 개화를 위하여 극장 예술 단체들과 영화 시설들이 정비되였고 인민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사실주의적 문학 예술 작품들과 허다한 도서들을 창작 출판할 수 있도록 출판 기관들이 정비 강화되였다.

당과 정부의 가리키는 길을 따라 이와 같이 민주 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조선 인민은 변혁된 새로운 사회, 정치, 경제 질서에 기초하여 조국 창건의 물질적 토대를 이룩하는 인민 경제 건설을 계획적 (균형적)으로 진행하였다. 一九四七년, 一九四八년 및 一九四九—一九五○년의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북조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현저한 변모를 가져오게 하였다.

국영 산업의 총 생산액은 년년히 장성하여 一九四九년 말에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三七七·一%로 장성되였고 로동 생산 능률은 二八三·四%로 제고되였다. 농촌 경리에 있어서의 알곡 총 생산량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三九·一%로 장성되여 식량이 부족하던 북조선은 식량에 여유있는 지대로 전변되였다.

산업과 농업의 이같은 앙양은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튼튼한 물질적 담보로 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 체계를 확립하게 하였다.

문화적 건설면에 있어서도 찬란한 성과들이 쟁취되였다. 해방 전에 하나도 없던 대학이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五교나 창설되였으며 초급 중학교 수는 一九四九년에

이르러 해방 전의 二〇배로、인민 학교는 一八배로 장성되였었고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의 준비 사업이 진행되였었다.

경제、문화 건설에 있어서도 쏘련은 계속 부절한 원조를 베풀었다. 각종 기자재들과 원료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학자、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선진 기술을 배워 주었다.

인민들의 앙양된 창조적 투쟁 속에 인민 경제 건설이 승리적으로 진행되여 찬란한 민주 건설의 성과들이 이룩됨에 따라 이를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기 위하여 자주 독립 국가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인민 무력의 창건을 위한 투쟁도 빛나게 수행되였다. 당과 정부는 김 일성 동지의 항일 유격 부대의 고귀한 애국적 전통과 혁명 사상을 계승하고 선진 군사 과학과 무기들로써 무장되고 교양된 로동자、농민의 군대를 창건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영명한 지도하에 조국의 북반부를 인민 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위한 민주 기지로 전변시켰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지도하에 창설된 조선 혁명의 원천지——민주 기지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김 일성 동지가 백전백승의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해방 후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혁명 령도에서의 하나의 모범으로 된다. 그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민주주의적 조국 창건의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는 결정적인 방책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해방 후 남조선에 상륙한 미제의 침략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제가 둥지를 튼 남반부가 장차 어떻게 전변되여 가리라는 것을 예견한 데서부터 출발되였다. 그것은 쏘련 군대가 진주하여 지어준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북반부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위력한 근거지를 창설하고 이에 의거하여 조선의 혁명 과업들을 전 조선적으로 완수할 것을 예견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 혁명의 원천지——민주 기지가 창설된 것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한다 할지라도 우리 조국을 침략할 수 없게 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경제、군사적 요새를 이룩한 것을 의미한다. 이 요새는 또한 조국이 통일되는 날 남반부에서의 신속한 민주 건설을 보장할 것이다.

조선 인민이 자기의 창조적 투쟁으로써 조국의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축성한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위대한 의의가 있다.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조선에서와 같이 철저한 민주 개혁들이 진행된 것은 전 세계 약소 민족 해방 운동 특히 동방 제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모범적、고무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은 해방 이후 력사적인 민주 개혁들과 평화적 민주 건설에서、민주 기지의 창설 강화

에서 이미 자기들의 력사에서 일찌기 류례 없는 창조적 력량을 뵈여 주었다.

우리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더욱 무궁무진한 창조적 력량——맑쓰—레닌주의 당의 령도하에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통일 단결된 인민의 창조적 력량을 더욱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三년 간에 걸친 전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 창설 공고화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그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뵈여 주었다.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하에 우세한 적의 맹폭격하에서도 생산은 끊임없이 계속되였으며 지하에서 공장은 돌았고 밤에 낮을 이어 수송과 식량 증산이 보장되였다. 민주 기지는 철옹성같이 견고하였다.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관철된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은 무진장한 력량의 원천으로 되였다. 전선에서 인민군 장병들은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원쑤들의 오만한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었다.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는 쏘련을 위수로한 국제 민주 진영 및 량심과 리성을 가진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원조가 집중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들은 직접으로 지원군을 조직 파견하여 피로써 우리를 원조하여 주었다.

영웅적 조선 인민군은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과의 협동 작전하에 질풍같은 진격전、대규모의 포위 섬멸전、기습 작전、저격 전투、땅크 및 비행기 사냥군조 등 다양한 전술로써 원쑤들을 대규모적으로 섬멸 혹은 소탕하였다.

우리 인민군 부대들은 三년 一개월 여에 걸친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행정에서 적 一、〇九三、八三九명을 살상 포로하였으며 一二、二二四대의 비행기를 격추、격상 혹은 로획하였으며 五五二척의 적의 대소 함선들과 선박들을 격침 또는 격상시켰으며 수 많은 군수 기재들을 파괴 또는 로획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전쟁에서 미제의 『세계 최강』의 신화는 산산히 깨여졌으며 단숨에 우리 조국을 강점하려던 원쑤들의 어리석은 망상은 여지없이 분쇄되였으며 적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도발하던 그 계선에 주저앉아 정정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는 곤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인류의 안전과 세계 평화의 성새인 쏘련은 류혈적 조선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계속 부절히 투쟁하였으며 드디여는 그의 이니샤티브로써 조선 정전의 길을 열어 주었다.

조선 인민은 위대한 승리로써 정전을 달성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민주 기지를 고수하였으며 세계 평화에 응분의 기여를 하였으며 동방 약소 민족 해방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우리의 승리 그것은 조선 인민의

고상한 애국주의와 위대한 창조적 투쟁의 결과였다。

정전을 달성한 조선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기본 방향에 의거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장엄한 평화적 로력 투쟁에로 한 사람같이 궐기하였다。 전시의 긴장과 동원된 태세를 늦추지 않고 우리 인민은 정전 후 불과 반년 동안에 정리 및 준비 사업을 완료하고 방대한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 실행에 착수하였다。

전체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현실적 담보로 되는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에서 비상한 열성과 창조적 로력을 다하여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첫해인 一九五四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한 조선 근로자들은 三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할 것을 굳게 다지면서 대중적 증산 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조선 로동 계급의 창조적 적극성과 전체 인민들의 들끓는 평화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의 결과인 우리 나라의 기술—경제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우리 나라를 현대적 공업 국가로 만들며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현저히 제고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거대한 복구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투쟁 행정에서 우리 나라는 더욱 아름답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전변되여 가고 있는바 一九五四년도에 벌써 황해 제철소、성진 제강소、 김책 제철소、흥남 비료 공장、승호리、천내리、고무산 등 쎄멘트 공장、남포 유리 공장등을 비롯한 一二〇여 개에 달하는 대중 공업 기업소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복구되였으며 희천 기계 제작 공장、평양 방직 공장、락원 기계 제작소를 비롯한 四〇여 개소의 대 중 공업 기업소들이 신설되였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대규모적 평남 관개 공사 제一 계단 공사가 완성되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은 이미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매일 매시간마다 그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三개년 계획의 첫해인 一九五四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三개년 계획 실행의 결정적 해인 一九五五년도 一・四분기 계획도 역시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평화적 조국 통일의 위업 달성을 위하여 일치하게 나선 조선 인민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다시금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강력한 생활력과 그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실증하였다。

결과에 一九五四년의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은 一一〇・三%로 초과 완수되여 전전 一九四九년 공업 생산 수준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三%릉가하였다。 앞으로 一九五五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하는 날에는 공업 총생산액에 있어서 전쟁전 一九四九년 수준을 一・五배 이상으로 초과하게 될 것이며 三개년 계획에 예견된 一九五六년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인바 이것은 공업 총생산액 수준에 있어서 三개년 계획을 二년 간에 완수하는 것으로 된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농촌 경리도 급속히 복구 발전되고 있는바 애국적 근로 농민들은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기본적으로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농호의 약 四三%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 망라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업은 사회주의적 협동화와 기계화의 광활한 전망 속에 장족적 발전이 예견되고 있다。

지금 조선 인민은 三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평화적 로력 투쟁에서 얻은 성과를 더욱 공고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五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바 五개년 계획의 수행은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를 더욱 공고화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 ❈ ❈

조국의 북반부에서 우리 인민이 해방 후 二—三년 동안에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를 식량에 여유있는 지대로 전변시키고 일제가 파괴하고 간 경제를 복구 부흥시켜 一九四六—一九四九년간에 산업 생산량을 四배로 약진시켜 전쟁전 시기에 이미 우리 인민의 생활에 황금 시대를 이룩하였다。

미제 침략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하면서 우리 인민을 쉽사리 굴복시키고 공화국 북반부에 설정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말살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

원쑤들은 三년 간의 전쟁에서 우리의 도시와 농촌、경제 및 문화 시설들을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그러나 폐허에서 일어선 우리 인민은 전후의 복구 건설에서도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여 나날이 새로운 빛나는 성과들을 뵈여 주고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들은 자기들의 로력 투쟁의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갖인 창발성과 애국적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편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식민지적 테로 통치하에

서 산업과 농업은 과멸의 일로를 밟고 있는바 겨우 남아 있는 중소 공장들 중에서 一九五四년도에만 하여도 三〇八개소가 폐쇄되였다。 농민들은 략탈과 고리 대부에 견디지 못하여 一九五四년 중에 백만 농민이 리농하였으며 그중 四八만은 작년 一一월 전에 절량된 농민들이였다。 그자들의 공식 수자에 의해서도 남반부에는 현재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죽엄의 거리를 헤메고 있다。

공화국 남반부에서 인민들은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창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신의 생명조차 유지할 길도 없이 날로 부패와 타락, 령락과 아사의 생지옥에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三천리 강토의 북방과 남방에서의 인민들의 이와 같은 대조적인 형편은 무엇을 말해주며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해방 후 一〇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동안에 공화국의 남 북반부에서의 정세와 인민들의 처지는 어찌하여 이렇게도 달라졌는가? 그것은 다만 한가지 근본적인 사실의 차이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북반부에서 우리 인민은 쏘련 군대에 의한 해방의 결과 나라와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였고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와 창조적 활동을 구축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전 백승의 맑쓰—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새 형의 혁명적 당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으며 쏘련 인민을 비롯하여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나라 인민들의 혈연적인 국제주의적 지지와 원조를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력량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반부에서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역도들의 극악한 노예로 되여 있다。 그들에게는 아사할 자유 이외에는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다。 그들에게는 창조적、 건설적 로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박탈되여 있다。

남반부 인민들의 이러한 노예의 처지、 그것은 비단 그들 자신의 불행이며 고통일 뿐만 아니라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의 불행이며 고통인 것이다。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은 조국의 분렬과 남반부 인민들의 처참한 처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해방 후 오늘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은 조선 인민의 이같은 정당한 투쟁을 원조하며 조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국제 무대에서 시종일관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 정부 수립과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一九四五년 一二월의 모쓰크바 三국 외상 회의 결정을 비롯하여 그 후 루차의 유·엔 총회들에서의 조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쏘련 정부의 제안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불굴의 투쟁、 가까이는 작년 一월의 베를린 四개국 외상 회의에서와 작년 四월의 제네바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쏘련 정부의 노력、 이 모든 것

은 우리 인민의 정당한 념원과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위대한 쏘련 인민과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의 한결같은 의지와 적극성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미 제국주의 독점가들은 오직 자기들의 범죄적인 리윤 추구를 위하여 세계 지배를 망상하면서 제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반대하며 그들의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거부하면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으로써 평화、 민주주의、 사회주의 진영을 위협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정전 협정을 유린하고 리승만 괴뢰 군대를 증강시키며 전쟁 물자들을 반입하면서 전쟁 재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영광스럽고 기쁨에 찬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목전에 둔 오늘에도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은 국토와 민족의 인공적 량단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계속 받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이것은 다만 우리 인민의 념원으로만 머물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하루 속히 촉진되여야 하며 실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촉진시키기 위한 허다한 예비들과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국의 민주 기지—북반부에서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수、 초과 완수로써 인민 경제의 복구와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촉진시키며 농업의 협동화와 농업 생산의 전반적 앙양을 달성하며 이리하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고도로 향상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노력과 긴장으로써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며 저주하는、 남 북반부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을 남김 없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결속시켜 우리 인민의 통일 단결을 확대·강화하여야 할 것인바 미제의 침략 정책이 남반부에서 극소수의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전체 주민들을 파멸의 구렁에로 몰아넣고 있는 오늘날 민족 통일 전선을 강화하는 이 령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직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반부에서 더욱 더 거리낌 없이 감행되는 미제와 리승만의 팟쇼적 테로 통치는 인민들의 날로 장성하는 치렬한 반항에 부닥치고 있으며 해결의 길 없는 심각한 자체 모순에 날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

한편 또 오늘의 국제 정세도 조선 인민의 정의의 위업 달성에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고 있다。 미제의 『힘의 립장에 선』、 모순에 찬 침략 정책은 날이 갈수록 도처에서 파탄되여 가고 있으며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평화 애호적인 쏘련의 대외 정책은 걸음마다 승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 인민은 국제적 분야에 있어서 계속 장성 강화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억센 력량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의 핵심이며 조선 인민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에서의 정치、 경제 및 과학의 위력한 발전에 의거하면서 민주 기지 강

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며 종국적 목적을 달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맑쓰—레닌주의에 의거하는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우리 당의 령도하에 지난 一〇년 간의 자기들의 창조적 력량이 얼마나 위대하였던가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맑쓰—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됨으로써만 자기들의 창조적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평화와 제 인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의 거대한 기여

김 동 훈

최근 몇달 동안의 국제 정세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중요한 사건들로 충만되여 있다。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지난 五월 중순 파란 수도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데 대한 구라파 제국 회의는 의심할바 없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五월 一一일부터 一四일까지에 걸쳐 진행된 와르샤와 회의에는 구라파의 八개 국가 즉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파란 인민 공화국、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루마니야 인민 공화국、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및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가 옵써버로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一九五四년 一二월 二일 상술한 국가들의 모쓰크바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모쓰크바 회의 참가국들은 만약 파리 협정이 비준된다면 자기 인민들의 평화적 로력을 보호하며 자기 나라의 령토와 국경의 신성 불가침성을 보장하며 온갖 침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들 즉 무장력의 조직과 그의 사령부의 조직 분야에서 공동 조치를 취하며 침략에 대처하여 자기들의 공동적 노력을 단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와르샤와 회의 참가국들은 모쓰크바 회의 선언에 기초하여 파리 협정의 비준과 관련하여 조성된 국제 정세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상세히 토의 분석하였으며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와르샤와 회의에서는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파란 인민 공화국、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회의 참가국 대표들은 또한 이 조약에 의하여 조약 참가국들의 합동군 사령부를 창설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는 방위력의 강화와 조약 참가국들의 합동군 조직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문제들이 해당 결정들을 채택하게 될 정치 협상위원회에서 심의되여야 한다는 것이 예견되여 있다。

와르샤와 회의의 이 결정은 서부 렬강들의 침략적 기도를 물리치며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 애호 국가들의 행동 통일을 위한 불패의 기초로 되며 이 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믿음직한 기초로 된다。

* * *

와르샤와 회의에서 채택된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과 이 조약 참가국들의 합동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정은 쏘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평화 애호 정책을 뚜렷히 반영하고 있다。 이 조약과 결정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데 대한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가장 절실한 념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조치들인 것이다。

와르샤와 회의 참가자들은 재군국화되는 서부 독일이 참가하는 새로운 군사 집단의 형성을 예견한 파리 협정의 비준이 새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평화 애호 국가들의 민족적 안전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파리 협정은 서부 독일을 재무장하며 그를 침략적 군사 집단 즉 북대서양 쁠럭과 새로 설치되는 『서구동맹』에 인입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리하여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재무장할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불란서 정부들과 상기 군사 쁠럭에 들어있는 기타 국가 정부들의 공식적인 군사 동맹자로 되는 것이다。 파리 협정에 기초하여 평화 애호 인민들을 반대하여 새 전쟁 준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군사 동맹이 형성된다。 바로 여기에 파리 협정이 전체 인류에 대하여 미치는 직접적인 위협성이 있는 것이다。

파리 협정은 서부 독일에 약 五〇만 이상의 수효를 가진 침략적 복수주의적 군대를 편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 서부 독일의 복수주의 군대는 항공력과 합대를 가질 것이며 一二개의 땅크 사단과 기계화 사단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시초일 뿐이다。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은 오늘날 벌써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자기들의 무력을 三〇개 사단에까지、 그다음에는 六〇개 사단에까지 증강시킬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파리 협정은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에게 침략을 위하여 원자 무기와 같은 대량 살륙 무기까지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 서부 독일의 복수주의 군대는 얼마 전에 구라파 인민들을 살륙 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 넣었던 퐛쇼 침략의 조직자、 공모자였던 히틀러 장군들의 지휘를 받는다。

미、 영、 불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이 독일 복수주의자들과 군사적 동맹을 체결하는 정책은 이 계층들이 오래 전부터 실시하여 온 정치 로선의 연장인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전쟁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 이 정치 로선은 독일 제국주의의 군수 공업의 잠세력을 복구시키는 정책에서、 서구라파의 일련의 국가들이 히틀러 도당과 공모하는 정책에서 그리고 히틀러의 침략을 쏘련과 동구라파의 기타 나라들로 내몬 정책에서 실천적으로 구현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 무엇을 가져 왔는가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퐛쇼 독일의 침략을 받은 것은 첫째로 서구라파 국가들 자신이 아니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구라파 국가들의 침략 계층은 또 다시 독일 복수주의자들과의 군사적 동맹을 맺는 침략적 정책을 우둔하게 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명백히 세계 지배를 수립하며 전쟁에 의하여 최고 리윤을 보장받으며 착취제도를 영구 불변한 것으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의 가장 모험적이며 침략적인 계층들의 야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침략 계층들은 독일 군국주의 세력측으로부터의 침략을 반대하여 쏘련과 체결하였던 조약들에 의하여 규정된 의무를 란포하게 위반하면서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는 얼마 전에 一九四二년의 쏘 영 조약과 一九四四년의 쏘 불 조약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부 렬강 지배층은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 동맹으로써 평화 애호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는 망상적인 타산을 하고 있다。 서부 렬강 지배층의 근시안적 정책은 제二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一〇년밖에 안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벌써 구라파의 한복판에 새 전쟁의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파리 협정의 비준과 관련하여 조성되고 있는 정세하에서 구라파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화 애호 인민들은 이러한 사질에 대하여 수수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구라파의 평화 애호 국가들은 자체의 안전과 전반적 평화를 고수하기 위하여 응당한 대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날 파괴적 전쟁의 모든 공포를 직접 체험한 인민들이 자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자기의 안전과 평화적 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국히 당연한 일이다.

* * *

와르샤와 회의의 력사적 의의는 그것이 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민들의 노력을 더 한층 긴밀히 단합시켰으며 구라파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일보 전진을 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와르샤와 회의의 결과가 현재에 있어서나 또 장래에 있어서 국제 정세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평화를 위한 정당한 투쟁에 있어서 모든 인민들의 믿음직한 지주인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적 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이는 평화 애호 국가들의 안전을 더 한층 공고화할 수 있게 하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평화적 로력과 그들의 위대한 전취물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와르샤와 회의에서는 실로 침략 세력에 대치하여 평화 애호 국가들의 공동 행동의 확고 부동한 기초가 굳게 다져졌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쏘련을 선두로 하는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에는 력사상 일찌기 그 전례가 없는 새로운 관계 즉 목적과 리익의 공통성에 기초하였으며 동등권, 국가 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여 있다. 이 나라들은 충심으로부터 호상 원조하며 전반적 앙양을 달성할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들 간의 관계에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고귀한 원칙들, 자유롭고 동등한 인민들의 형제적 친선의 고상한 사상이 구현되여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친선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쌍무 조약들에 의하여 호상 련결되여 있으며 이 조약들은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고수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 협정이 비준된 결과 구라파에 조성된 정세는 구라파의 평화 애호 국가들에게 증대된 침략의 위협에 대처하여 자기들의 노력을 단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라파의 평화 애호 八개국 간에 체결된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현 사태 발전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이 조약은 구라파에서의 새 전쟁 준비를 반대하며 재생되는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반대하며 서방 침략 쁠럭의 온갖 책동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있어서 앞으로 평화 애호 인민들의 효과적이며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八개국 간에 체결된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구라파에서 조약에 참가한 국가 또는 수개 국가가 어떠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의 집단으로부터 무장 공격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동 방위에 관한 임무가 규정되여 있다. 조약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조약 참가국들은 유·엔 헌장 제五一조에 의거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기타 조인국들과의 합의 밑에 무력 행사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온갖 수단을 다함으로써 공격을 당한 국가들에 대하여 즉시 원조를 줄 것이다. 이 조치와 더불어 합동군 사령부의 조직은 어떠한 침략자들도 능히 분쇄할 수 있는 견고한 담보로 된다.

조약에 참가한 국가들의 무력의 합동군 사령부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경제적 호상 원조와 기타 분야에서의 호상 협조의 긍정적 결과들과 경험 및 이 나라들의 인민 경제의 강화 발전에 의거하고 있으며 친선과 협조의 위대한 사상과 불패의 통일에 의거하고 있다.

합동군 사령부는 이 나라들의 무장력의 편성에 있어서 선진적 쏘베트 군대의 경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여 준다. 합동군 사령부는 이 나라들의 무력으로 하여금 어떠한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침공자들에 대하여서도 능히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구라파의 평화 애호 국가들은 비단 공동 방위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공동적 리해 관계에 저촉되는 중요한 모든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호상 협의하며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도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할 것이다.

* * *

와르샤와 회의의 결정은 구라파와 전 세계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력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결정은 평화 사업의 승리를 위한 전반적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의 수립을 위한, 조정되지 않은 국제적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회 제도의 차이를 불문하는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과 협조를 위한 평화 애호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믿음직한 기초로 되는 것이다.

와르샤와 회의의 참가자들은 구라파가 호상 대립되는 쁠럭에로 분렬되는 것을 항상 반대하고 있으며 집단적 안전 체계의 수립만이 모든 구라파 인민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여 주는 정당한 길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와르샤와 회의 참가국들은 사회, 국가 제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구라파 국가들이 참가하는 집단 안전 체계의 수립에 대한 확고한 지향을 표시하였다.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조약이 우선 어떠한 다른 나라도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조약 참가국들의 노력과 자기의 노력을 단합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나라들에 문을 열어 주고 있는 거기에 있

다。 쏘련을 위시한 구라파의 평화 애호 국가들은 이 조약에 기초하여 모든 구라파 인민들의 평화적 노력을 단합시키기 위하여 계속 투쟁할 것이다。 조약 참가국들의 이 지향은 조약 원문에 명백히 반영되여 있다。 조약 제一一조에는 조약국들이 부단히 노력할 구라파에서의 집단적 안전 체계 창설 및 이 목적을 위한 집단 안전에 관한 전반적 구라파 조약 체결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전반적 구라파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날부터 본 조약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규정되여 있다。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의 이 특성 자체가 벌써 이 조약의 방위적 성격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침략적 북대서양 조약、서구 동맹 또는 동남 아세아 조약과는 달리 이 조약은 전략적 진지들과 공격에 유리한 기지들을 강점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인민들을 위협 공갈하는 정책에 복무하지 않는다。

와르샤와 회의의 결정들은 인민들 간의 평화적 관계의 기본적이고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데 대한 모든 국가들의 의무에 기초하고 있으며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정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고 있다。

와르샤와 회의의 결정의 평화 애호적 성격은 조약 참가국들이 앞으로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면서 전반적 군비 축소와 원자 무기、수소 무기 및 기타 대량 살륙 무기의 금지에 대한 효과적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 데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회의 참가국들은 또한 국제적 분쟁 문제들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와르샤와 회의 결정들은 또한 평화와 협정의 정신으로 모든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대오 국가 조약의 체결은 아직 조정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명백한 증거로 되며 기타 문제들의 해결의 모범으로 되는 것이다。

평화와 구라파 안전의 리익에 부합되게 오지리 문제가 조정된 것은 커다란 원칙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는 쏘련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의 승리로 되는 것이다。

오지리 문제가 해결된 실례에서 전 세계 인민들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위하여 아직 리용되지 않고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과 만약 관계측들이 성의를 표시한다면 이 가능성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조정에 관한 현실적 협정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더 한층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쏘련은 전반적 평화를 유지 공고화할 것을 지향하는 국가들과 그를 위한 력량을 지지하고 있다。 오지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로선을 따르는 력량은 쏘련의 지지를 받았다。 구라파와 아세아에는 침략 쁠럭에 가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국가들 간의 협조를 발전시키며 전반적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사회 제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노력을 단합할 커다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오지리 문제의 종국적 조정은 전후 구라파 력사에서 중요한 도표로 기록될 것이다。 구라파의 기타 미해결 문제들을 우선 독일 문제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파리 협정의 비준이 독일 문제의 해결 도상에 더욱 큰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애호 국가들은 독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쏘련 내각 수상 느·아·불가닌은 와르샤와 회의에서한 자기의 성명에서 새로운 조건하에 있어서도 독일의 민족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과업의 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부 독일의 재군국화를 용허하지 않으려는 독일 인민 자체의 애국적 력량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된다。

와르샤와 회의의 결정은 독일의 애국적 력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자기 조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위하여 앞으로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있다。 파리 협정이 서부 독일 주민들로부터 평화적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독일의 재통일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면 와르샤와 조약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게 독일의 평화적 재통일에 관한 회담을 진행할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와르샤와 회의 결정의 목적이 구라파 인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는만큼 이는 독일의 민주주의적、평화적 재통일을 위한 과업과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八개국 조약 조인에 제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대표단 수석 옷토 그로테볼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명의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가 조약에서 독일의 평화적、민주주의적 재통일을 지향하는 독일 인민에 대한 커다란 지지를 보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였다。 그 선언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이 조약을 조인함에 있어서 통일된 독일은 통일 전에 체결된 해당한 군사、정치적 조약과 협정들에 의하여 독일의 이러 저러한 부분이 부담한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로부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와르샤와 조약에 참가하는 것은 독일 인민의 민족적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며 통일된 평화 애호적 민주주의적 독일을 창건하는 파업에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스스로 명백하다。

구라파의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독일의 서쪽 부분이 새 전쟁의 근원지로 전변되고 있는 정세하에서 독일의 재통일에 관한 문제는 구라파의 안전 보장의 과업과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쏘련은 독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쏘련은 전반적 군비 축소와 원자 및 수소 무기와 기타 대량 살륙 무기의 금지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쏘、미、영、불 四개국 정부 수뇌자들의 회담에 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 회담의 목적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념원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강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평화 애호 정책을 시종 일관하게 고수하고 있는 쏘련이 렬강 회담의 리념에 대하여 항상 긍정적 의의를 부여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 ＊

와르샤와 회의는 쏘련을 선두로한 사회주의 진영의 九억 인민들의 불패의 통일과 위력을 시위하였다。 와르샤와 회의에서 체결된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구라파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를 공고화하며 조약 참가국들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그들 간의 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또 튼튼히 하며 그들의 발전을 현저히 촉진시킬 것이다。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단결은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격퇴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강대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최근 년간 국제적 사건들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은 평화와 사회주의의 진영의 력량이 확고히 장성하였으며 국제 관계에서의 세력의 호상 관계가 이 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와르샤와 회의에 六억 중국 인민의 대표가 옵써버로 참가한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와르샤와 회의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과 긴밀히 련계되여 있는 인민 중국은 아세아 문제들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전 세계 정세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옵써버로 참가한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는 와르샤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평화는 분리될 수 없다。 만약 구라파에서의 평화가 유린된다면、만약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구라파의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여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정부와 우리의 영웅적 六억 인민은 우리 형제적 국가들의 정부 및 인민들과 더불어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오늘날 아세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은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아세아의 평화 애호 국가들의 리해 관계는 구라파의 평화 애호 국가들의 리해 관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가 추구하는 침략적 전쟁 도발 정책은 비단 구라파 뿐만 아니라 아세아와 기타 지역들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구라파에서의 침략을 반대하는 강력한 수단인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구라파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을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아세아의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와르샤와 회의 결정의 거대한 력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와르샤와 회의의 성과들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되며 『힘의 립장에 선』 정책에 대한 치명적 타격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오산을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써 평화 애호 인민들을 놀라게 하며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고 있었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의 망상적 계획과 관련하여 쏘련 내각 수상 느·아·불가닌은 와르샤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만약 우리들이 수수 방관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 진영은 물론 더 좋아 할 것이며 그들은 자기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자신을 무장시키고 자기의 의사를 타국에 강요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들을 반대하여 군사 쁠럭들이 설치되며 우리 나라들이 군사 기지들에 의하여 포위되고 원자 전쟁에 의하여 위협당한다면 우리들은 수수 방관한 채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우리들은 대항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회의와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결정들이 이러한 조치들중 하나로 되는 것이다』。

오늘날 강력한 력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쁠럭이 아니라 쏘련을 선두로한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이다。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의 인민들은 자기들의 강대한 힘을 믿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 애호 인민들을 위협할 수도 없으며 불의의 사태에 직면하게 할 수도 없다。 쏘련을 선두로한 강력한 불패의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 제국은 자기들의 단결과 통일로써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계급적 교양의 강화와 출판물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몇가지 문제

리 창 수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지향하는 현 계단에서의 당 사상 사업의 총적 임무를 천명하고 당원들의 계급적 교양을 일층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조성된 국제 국내의 정세와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제시된 당의 가장 적절한 대책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해방 후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중요 산업이 인민의 소유로 되였으며 개인 소농 경리로 분산되여 있던 농촌 경리는 오늘 당의 지도하에 사회주의적 집단화의 길에 점차 들어서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공업에서 국영 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九〇%, 협동 경리는 七—八%, 개인 경리는 二—三%이다. 농업에 있어서도 벌써 전체 농가 호수의 四一%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거점인 농업협동 조합에 망라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은 절대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의 중요한 물질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사회의 물질적 제 조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하여 당원들과 지도 일꾼들의 사상 의식의 개변은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의 일부 당원들과 근로 대중들의 머리 속에는 오랜 력사를 걸쳐 계급 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들인 자본주의적, 봉건적 견해와 관습, 낡은 도덕과 풍습 및 종교적 편견 등이 청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시각각으로 부르죠아 사상을 산생시키는 현존한 자본주의적 소상품 경리는 적으나마 일꾼들의

사상 의식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주객관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낡은 사상 잔재는 현실의 반영인 인간들의 의식과 생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과의 강력한 사상 투쟁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발전의 특수성 및 우리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 침략의 둥지를 틀고 있는 미제와 그의 졸도 리승만 반동 도당들은 온갖 기만과 날조, 허위와 위선적 방법으로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각종 파괴와 암해 공작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진 운동을 방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발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우리 당의 기본 군중인 로동자와 농민 그리고 인테리들은 그 구성으로 보아 많은 부분이 혁명의 불길 속에서 세련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계급적 의식도 높은 수준에 처하여 있지 못하다.

이상의 모든 사정들은 현 계단에 있어서 당 단체들 앞에 당원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을 고상한 맑쓰—레닌주의적 의식으로 무장시켜야 할 당면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 *

우리의 출판물들은 사상 전선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판물은 당원 근로 대중 속에서 맑쓰—레닌주의와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며 모든 긍정적인 것을 포착 지지하며 부정적인 것을 폭로 시정하는, 당의 수중에 있는 강력한 무기의 하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쓰딸린은, 출판물은 맑쓰—레닌주의 당의 가장 예리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출판물의 방조하에 당은 매일 매시로 로동 계급 및 근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보다 더 신축 자재한 기구는 없으며 출판물처럼 당과 대중 간에 정신적 련결을 맺는 다른 수단은 없다고 교시하였다.

출판물이 노는 높은 역할과 그가 가지는 기능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출판물의 질적, 량적 장성에 항상 높은 배려를 돌리고 있다. 당의 심심한 배려에 의하여 해방 후 우리 출판물들은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량적으로도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 신문』을 비롯한 二九종의 각종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는바 그의 一회 발행 부수는 八一만 여부에 달하고 있으며 이 외에 수 많은 공장, 기업소 신문들이 로동자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 발행되고 있다.

『근로자』, 『인민』을 비롯한 각종 잡지들은 三二종에 달하고 있으며 그의 一회 발행 부수는 九四만 여부에 달하고 있다.

금년 한해 동안만 하여도 각종 교과서를 제외한 맑쓰—레닌주의 고전들을 포함한 一、○○○여종의 각종 도서들이 출판될 것인바 그의 부수는 一천만 여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수효에 달하고 있는 우리 출판물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 교양 사업에 있어서 당의 적극적 방조자로 되고 있으며 사상 전선에서 예리한 무기로 되고 있다。

특히 정기 간행물들은 흥미있는 형식과 방법으로 당과 정부의 정책을 전체 인민들에게 해석 선전하며 그들에게 맑쓰—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을 주입시키며 우리 문화의 개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출판물들은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와 三년 간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 시기에 있어서도 전체 인민들을 당의 부름에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선전、선동、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수행하고 있다。

신문들과 잡지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산생되는 새로운 선진 경험을 제때에 보급 선전하며 낡은 것、보수적인 것、침체적인 것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복구 건설 사업에 막대하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출판물의 특성의 하나인 출판물과 대중들과의 련계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출판물들은 당 정책의 안내자이며 사회 여론의 지휘자인 수 많은 로 농 통신원들과 광범한 열성 필자들을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고 있으며 수백만 독자들의 조언과 방조에 의하여 그 내용을 부단히 질적으로 개선 향상시키고 있다。 이 거대한 력량들은 우리 출판물의 정치—사상적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출판물들은 사상 사업에서와 경제 건설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부족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 교양 사업에 존재하고 있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김 일성 동지가 우리 출판물들의 중요한 결함들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출판물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류사한 제목으로 내용이 빈약하며 불필요하게 장황한 선전문、론설들을 류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일반 당원 대중들에게 기본 문제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많은 출판물들이 맑쓰—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과 공인된 명제를 지루하게 되풀이하고 있으며 무미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우리 신문、잡지 및 소책자들이 금년 초에 『착취란 무엇인가?』、『계급이란 무엇인가?』、『생산력이란 무엇인가?』등 당원들에게 준 교양 자료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 몇개의 인용문을 삽입하였거나 혹은 그것이 힘든 문체로 무미 건조하게 서술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양 자료들에는 필자의 창발적인 문제 제기도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또한 제 사건 현상을 맑쓰—레닌주의적으로 분석 리해하도록 당원들에게 적절한 방조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출판물들이 문제의 취급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과 서술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설교한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지식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사상 장성에 지장을 줄 것이다。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에 대한 창조적 태도는 몇개의 명제들과 사전들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거나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명제들이 제기되고 작성되였으며 적용된 구체적 조건들과의 련계 속에서 그 명제의 기본 사상을 깊이 리해하며 또 이것을 새로운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알며 맑쓰—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맑쓰—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맑쓰—레닌주의의 타협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출판물들이 그것을 범하고 있는 다른 표현은 출판물들이 당원들과 근로 대중 속에서의 애국주의 사상 교양 문제를 취급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것은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의식을 부단히 제고하며 근로자들의 전투적 애국주의 정신과 감정을 제고시키는 것은 출판물들의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이 임무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사회、국가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위대한 성과에 대한 선전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출판물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남의 것은 많이 선전하나 우리의 성과에 대해서는 적게 선전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가치있는 많은 업적을 쌓았으며 우리 인민들은 특히 八·一五 해방 후 一○년 간에 당과 수령의 령도 밑에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출판물들이 이 업적과 성과를 선전하는 것은 당원、근로 대중 속에서 애국주의 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가장 실효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맑쓰—레닌주의적 원칙에 확고히 립각하면서 우리 출판물들이、우리의 선조들이 창조한 력사적 공적들과 함께 八·一五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진행한 민주 혁명의 계급적 본질、우리 사회 경제 발전의 각 계단에 있어서의 기본 경제 형태들과 계급적 제 관계、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및 그의 대상과 동력、우리 혁명의

전망、 우리 당 투쟁 력사에서 제기되는 리론적 문제들을 심오하게 체계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애국주의 사상 교양과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출판물들은 우리 선조들의 가치있는 업적들과 해방 후 우리 인민들이 쟁취한 제 성과를 선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생동성과 우월성을 백방으로 선전하여야 하며 자본주의 제도의 불가피적 멸망을 자기 지면을 통하여 계통적으로 선전 확증하여야 하는바 이것은 또한 애국주의 사상 교양에 있어서 출판물이 놓아야할 거대한 역할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중요한 문제의 취급에 있어서 출판물들은 문제를 취급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한 문제와 관련된 기사 론설들의 높은 사상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전문、 선전 론설을 비롯한 각종 기사들에 대한 필수적 요구로 되는 것은 높은 사상성과 계급성이다。

아무리 서술이 류창한 글이라도 비록 그것이 높은 사상성과 계급성으로 일관되여 있지 않는다면 당원 대중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서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기 간행물들에는 내용이 빈약하며 사상성이 결여된 론설 기사들이 종종 발표되고 있다。

적지 않은 신문、 잡지들이 량곡 수매 사업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반영함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였다。 량곡 수매 사업은 농촌에 산재한 농민들의 여유 량곡을 국가가 집중 수매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량곡 생산이 적은 지대의 농민과 도시의 근로자 및 주민들에게 량곡을 원활히 공급하여 그들의 생활상 안정을 보장하며 개인 상인들의 폭리적 투기를 반대 제압하며 부농화한 일부 농민들의 고리대적 착취 현상을 방지하며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량곡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이였다。

그러나 일부 신문、잡지들은 량곡 수매 사업의 정당성을 계통적으로 해석 선전할 대신에 많은 경우에 농민들의 단순한 리해 관계에만 호소하였는바 론설과 기사들에 취급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농민이 몇가마니의 여유 량곡을 국가에 팔아서 얻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계급성과 사상성이 저급한 이와 같은 론설 기사들이 우리 당원들 특히 농민들의 계급적 의식을 제고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당 정책의 본질을 대중 속에 정확히 해설 선전하며 또 침투시키는 것이 출판물들의 선차적인 중요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 잡지들의 기사、 론설들에서는 당 정책의 본질적인 것을 적시에 취급하지 않으며 또 그 내용에 있어서 계급성과 사상성이 결여된 사실들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결함이다。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 사회의 성숙된 물질적 생활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 투쟁의 훌륭한 지침으로 되는 행동에서의 맑쓰—레닌주의다。

과학적인 당 정책 문제들을 해설 선전하며 그것을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킴에 있어서 신문、 잡지들은 기사와 론설들의 사상성과 계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출판물들이 기사와 론설을 통하여 군중 속에서의 대중 정치 사업의 광범한 전개에 심중한 고려를 돌리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당 선전의 과업이 당원들의 사상적 교양과 간부들을 맑쓰—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시키는 데 있다면 대중 정치 사업의 과업은 모든 우리 나라 인민들에게 당의 정치적 영향을 주며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정치—문화적 수준을 제고하며 당과 국가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업 수행에로 그들을 동원하는 데 있다。

우리 신문들과 잡지들은 대중 속에서의 정치 사업의 전면적 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대중 정치 사업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 리용하여 자기 지면에 가치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과 정부 정책을 해설 선전함에 있어서 그의 대외 정책에 대한 문제를 계통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출판물들의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출판물들은 우리 당과 정부의 평화 애호 정책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제안과 방책을 광범한 군중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며 또 그것을 위하여 대중들이 궐기하도록 선전 교양하는 문제에 특별한 고려를 돌리면서 해당한 기사、 론설들을 계통적으로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과 정부의 대외 정책을 선전함에 있어서 출판물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과 리 승만 역도들의 망국적 대외 정책을 폭로하는 기사、 론설들을 풍부한 자료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형식으로 지면에 발표하는 것은 선전 선동적 의의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리 승만 역도들의 망국적 대외 정책의 본질과 남반부 정치、 경제 정세에 대한 계통적인 폭로는 괴뢰 정부의 불가피적 멸망을 확신시키는 데 있어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출판물들은 이러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기사나 론설을 통하여 사실을 폭로하는 데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중의 창조적 로력 투쟁을 고취하는 사업과 결부시켜야 하며 또 이 창조적 로력 투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전 세계 평화의 유지 공고화에 막대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해석 선전하여야 한다。

출판물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을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로 교양하는 것이다.

로동은 사회와 인간의 존립에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되며 그것이 없이는 국가와 인민들의 번영과 행복은 상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우리 나라 헌법에도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로동은 공화국 공민들의 가장 영예로운 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력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수많은 로력 영웅들과 로력 혁신자들이 배출되였으며 그들은 국가와 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람들의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로력에 대한 정확한 보수, 로동에서 위훈을 세운 생산 혁신자들과 모범 로동자들에게 주는 국가적 우대와 인민들의 존경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출판물들은 광범한 근로 대중들을 로력적 위훈에로 고무 추동하며 그들 속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제기들을 광범히 보급 선전하며 호상 협조적 정신과 태도로 교양하며 증산 경쟁에서 보다 높은 로력적 앙양과 성과를 쟁취하도록 선전 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출판물 특히 정기 간행물들은 근로자들의 로동에서의 창조적 열성의 직접적 표현인 증산 경쟁 운동을 취급함에 있어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일부 신문, 잡지들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과 증산 경쟁을 취급함에 있어서 실속있고 내용있게 취급하지 못하고 흔히 단편적인 보도로 국한시키고 있으며 로동과 경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진 분자들의 성과가 어떤 형태와 방법에 의하여 달성되였는가를 뵈여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산 경쟁 운동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계통적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도 있다.

특히 신문들은 증산 경쟁 운동의 일정한 기간의 사업에 대한 총화 사업을 추진시키면서 경쟁 행정에서 산생되는 모든 긍정적 경험들과 모범들을 일반화하는 한편 증산 경쟁 행정에서 발현되는 온갖 결함과 부족점들을 비판 폭로 시정하며 증산 경쟁 운동의 금후 발전을 추진시켜야 한다.

쓰딸린이 교시한 바와 같이 출판물들은 증산 경쟁에서 『대중 자신들이 경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수백만 로동자 대중들이 계약을 체결하며 경쟁을 수행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정형과 로동자 대중들이 자기 자신의 혈연적인 사업으로 경쟁 사업을 간주하는 정형을 명확하고 확신성 있게 뵈여 주어야 한다』.

증산 경쟁 운동——이것은 대중들의 창발성과 애국심의 표현이며 그들의 혁명적인 실무적 자기 비판이며 따라서 우리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본적 조건의 하나이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문들은 증산 경쟁 운

동을 계획 숫자 달성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품의 원가 저하와 그의 질의 제고, 오작품의 퇴치, 기자재의 절약 등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전개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중 정치 사업을 어떻게 추진 개선시킬 것인가를 구체적 사실을 통하여 가르쳐 주어야 한다.

계급 교양 사업에서 출판물이 노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 대중들에게 국가 및 공동 재산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소유하도록 교양하는 문제이다.

국가 및 사회 재산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는 비단 그의 보호와 그에 대한 주의 깊은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의 물질적 부의 증대, 로동 생산성의 부단한 제고, 생산품의 원가 저하와 품질의 개선, 우리 인민 경제의 발전 및 강화 문제와 긴밀히 결부되고 있다.

출판물들은 오작품을 생산하며 국가 및 공공 재산을 횡령 절취하며 직무를 태만함으로써 국가와 집단에 손해를 주는 자들을 대담하게 폭로하며 경제 및 문화 건설의 성공적 해결을 방해하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판의 불길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의 열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사상 정치적 및 기술적 장성을 억제하는 온갖 해독적 표현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출판물의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관료주의는 대중의 창발성과 대중 속에서 발현되는 새 싹을 질식시키며 낡은 것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적 잔재 요소이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료주의는 문자 그대로 관료 행동이며 이것은 당과 군중을 리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관료 행동은 우리 당이 진행하고 있는 혁명 사업과는 도저히 상용될 수 없다. …혁명 사업은 인민을 위한 것이며 관료주의는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명주의와 아첨, 개인 리기주의, 결함과 융화하는 타협주의 및 맹종 맹동주의——이 모든 현상은 당이 용납할 수 없는 일제 사상 잔재와 부르죠아 사상 의식의 표현인 관료주의의 표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비계급적 현상들의 시급한 퇴치는 오직 당원들과 근로 대중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 사업의 성과 여하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 출판물들은 온갖 형태로 발현되는 관료주의의 표현들과 그것이 당과 혁명의 리익에 끼치는 해독적 현상들을 적발 폭로 비판하며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유효한 해결 방도들을 상세히 제기하여 주는 론문,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자기 지면에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신문, 잡지들 특히 신문들의 비판 사업의 전개는 우

리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 가장 실효있는 비판의 군중적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결함들에 대하여 신문들이 전개하는 비판의 정확성과 진지성은 비판 기사와 비판 론설들의 생명이며 또 그의 지도성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신문들에서는 다양한 쟌르로 지상에서 비판 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지나친 과장과 그리고 저급한 풍자로서 현상의 본질을 외곡하며 비판의 실효성을 심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데로부터 적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비판은 사업 개진을 돕는 적절한 신호와 계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정되고 오늘은 벌써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런 지나간 결함을 들고 때때로 신문들이 시비하는 일들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과장과 풍자로서 도리여 비판 받는 사람과 집단에게 불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비판도 없지 않다。 진지성과 지도성이 무시된 이러한 비판 기사나 론설은 그것을 작성한 필자나 또 신문 편집부 일꾼들의 무책임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판을 비속화하는 이러한 경향들과는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펠례똔들에서도 뵈여 주는 바와 같이 저급한 야유와 풍자로써 일관된 중상적인 서술에만 치중하고 사업과 병집을 시정하여 주려는 진지한 념원에서 출발하지 않은 기사、론설들이 우리 사업의 전진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신문、잡지들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발현에 대하여 제때에 정확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며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하는 추동적 역할을 높아야 할 것이다。 직면하는 모든 곤난과 애로들을 타개 극복하고 전진하도록 고무 추동하는 역할은 신문、잡지들에게 속한 중요한 기능이다。 신문、잡지들이 군중 속에서 난관과 애로들을 용감히 극복하는 정신으로 그들을 교양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건설은 아무러한 난관도 없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 난관들은 국가의 륭성과 번영을 위한 난관이며 우리의 전진과 승리를 위한 난관이며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난관인 것이다。

출판물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난관을 극복하는 투쟁에로 동원하며 우리의 전진 운동에 대하여 혁명적 락관주의를 견지하게 하며 이 난관 앞에서 용감하게 하며 일체 락후한 여론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도록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출판물들은 적들의 어떠한 반동적 준동이라도 제때에 분쇄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경각성을 제고시키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보장하며 사소한 해이성과 안일성도 묵과하지 않는 비타협적 투사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문과 잡지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대중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에서 그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이다。

문학과 예술은 우리 인민들을 맑쓰—레닌주의의 선진 사상과 새로운 도덕적 풍모를 소유하도록 교양하며 창조적 로력 투쟁에서 봉착되는 모든 난관과 애로들의 극복에로 인민들을 고무하여 준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것과 선진적인 것을 반영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의 장성과 승리를 백방으로 촉진시켜 주며 인민들을 우리 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우리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을 수호하는 애국심으로 교양하여 준다。

최근 년간에 우리 문학과 예술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무대 및 영화 예술도 포함한 우리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는 아직도 개선하여야 할 부족점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일부 작가들과 예술가들은 우리 현실과 력사적 사실을 외곡하며 생활의 론리와는 모순되는 일련의 평론들과 문학、예술 작품들을 종종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전 문학과 예술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이러한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문학、예술、창작 일꾼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판물들은 이 부문 사업의 발전에 주의를 적게 돌리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극히 적은 지면을 제공하고 있다。

설혹 취급한다 하여도 신문들과 잡지들은 창작품들의 정치 사상적 내용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그에 대한 심중한 비평을 줄 대신에 흔히 배우들의 연기에 국한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집이라는 명목하에 연기자들의 개별적 사진 혹은 연기의 부분적 장면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게재하는 것으로써 문학、예술에 대한 사상적 지도와 평가를 대치하고 있다。

출판물들은 창작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와 창작 일꾼들의 맑쓰—레닌주의적 사상 교양에 백방의 주목을 돌리면서 문학、예술의 사상적 내용과 그의 형상성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며 그 작품 속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민들의 교양에 도움을 주며 혹은 반대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그릇되게 소개하며 형상을 외곡함으로써 우리 사업에 어떤 해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신문、잡지들은 평론과 서적 해제를 정상적으로 게재하며 이 사업에 정치적으로 준비되고 숙련된 평론가들과 광범한 필자들을 적극 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우리 당은 출판물들의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

고 있다。

출판물 앞에 제기된 거대한 과업의 해결은 해당 일꾼들의 힘만으로써는 불가능하다。 광범한 열성 필자들과 로 농 통신원들과 기백만 독자들과의 긴밀한 일상적 련계를 강화하는 조건하에서만 이 중대한 과업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당은 출판물의 역할이 거대함에 비추어 출판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사업 개선에 심중한 당적 관심을 돌리고 있다。 당은 출판 기관들과 그 일군들에게 자기 기관내의 규률과 질서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과 인민 앞에서 책임지는 강력한 당적 의무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률과 질서가 없는 곳에는 사업의 성과가 있을 수 없다。 출판 일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소한 무질서와 해이성도 묵과하지 말며 예리한 정치적 경각성으로 매사를 관찰하고 그를 해결하여야 한다。

신문、잡지 편집국(부)들의 협의 기관인 편집 위원회들은 출판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매개 성원들의 창발적 의견과 열성을 적극 지지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하부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단체들과 당 위원회들은 출판물의 정치 사상적 내용의 개선에 심중한 주의를 돌릴 것이며 출판 기관 내 간부들의 선발과 배치 및 그들의 교양에 항상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당 단체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신문、잡지들에 발표되는 긍정적인 경험들과 훌륭한 모범들을 광범히 보급하며 우리의 전진 운동을 가로 막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투쟁함으로써 출판물 리용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신문 지상에는 근로자들의 편지와 신소 청원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는바 이것은 대중들이 당에 주는 신호이며 방조이다。 그러므로 매개 당 단체들은 신문에 발표되는 모든 가치있는 자료들과 근로자들의 비판적 지적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고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위원회들은 당원들이 출판물에 적극 참가하지 않으며 그를 체계적으로 읽지 않거나 연구하지 않으며 또 자체 사업에서의 좋은 참고서로 삼지 않는 현상과는 강한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출판물——이것은 매개 당 위원회가 출판물을 옳게 리용함으로써 당 단체들과 당원 및 근로자들과의 련계를 일상적으로 강화하며 그들에게 직접 의거하여 정치、경제、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연단이다。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출판물들은 전후 三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면서 당원들의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강화함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최 인 호

오늘 공화국 북반부 농촌들에서는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광범한 근로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농업 협동화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은 실로 거대한 정치、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놀 것이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요소의 증가를 촉진시키며 종국적인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김 일성)。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축성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공업의 확대 강화와 아울러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전체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맑쓰—레닌주의는 가르치기를 만약에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였다면 사회주의적 공업의 창설과 함께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실현되여야 한다고。 그것은 사회주의적 공업이 소상품적 개인농 경리에 의거하여서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공화국 북반부의 공업에서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영 공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아직도 소상품적 개인농 경리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특히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축성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 협동 경리를 가일층 공고화하는 것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된다。 왜냐 하면 만일 소상품적 개인농 경리를 그대로 둔다면——그에게 자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준다면 공업과 농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며 공업 발전과 나아가서는 전 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킴에 적

지 않는 지장을 줄 것이며 또한 농촌에서 계층 분화를 가져오게 하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기초 축성을 위한 투쟁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되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농촌 경리의 협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만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순조롭고 조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축성을 위한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 나라 농촌 문제에서 현재 우리들 앞에 가장 긴급한 과업으로 제기되여 있는 령세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농촌에서의 우리 당의 진지를 가일층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 * *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으로 되는 것은 공업이다。 공업은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 필요한 생산 수단을 보장하며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군수 기재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품들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공업은 레닌이 규정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이며 시초이며 또 결말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업이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들에 의존함이 없이 고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업은 자기 발전에 필요한 원료와 식량이 부족하고 공업 제품을 구매할만한 정도로 발전된 농업이 없다고 하면 그의 발전에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업을 위시한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도시—공업에 식량 및 원료들을 공급하는 생산자로서 그리고 또 공업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자로서의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만일 도시—공업이 요구하는 식량 및 원료들을 농촌 경리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농촌 경리가 구매할만한 능력을 못 가진다면 그때에는 인민 경제 발전에 일정한 불균형을 조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은 다만 농업 부문 자체의 요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기타 부문들의 절실한 요구로도 되는 것이다。

공업과 농업은 호상 긴밀한 련계 속에서 균형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요구이며 전체 인민 경제 부문을 발전시키는 기본 고리로 된다。 공업과 농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됨으로써만 도시와 농촌、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경제—정치적 련계가 강화되며 그들 간의 동맹

이 가일층 강화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의 요구에 수응하여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는 개인 농민 경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농촌 경리의 계획적 발전과 선진 과학이 달성한 최신 성과들을 그에 도입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전체 인민 경제 발전에 대하여 지장을 주고 있다。

개인농 경리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에 기초하고 있는만큼 그 기본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와 동형의 경제이다。 여기에서는 시시각각으로 자본주의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가치 법칙이 광범히 작용한다。

그러나 오늘 북반부의 개인농 경리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개인농 경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가 발갈이하는 근로 농민들의 소유로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 개인농 경리를 그대로 방임하여 둔다면 크나 적으나 농촌에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산생될 것이며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니 농업은 급속한 템포로 발전하는 공업에 필요한 량곡과 원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것이며 또 공업 발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함으로써 공업과 농업 발전 간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개인 농민들을 직접 사회주의 건설에 광범히 인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전체 인민 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농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농 경리를 사회주의적 대규모의 협동 경리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오래 동안 계속하여 오던 자기의 개인 소농 경리를 단시일 내에 버리고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로 즉시 넘어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형편으로 보아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키는 중요 고리로 되는 중공업의 발전이 아직 미약하며 우리 나라 농촌이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많은 피해를 당하였으며 또한 농민들의 문화 수준이 농촌 경리의 협동화를 전적으로 받아 들일만한 정도에까지 제고되지 못한 그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곤난은 더 한층 크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는 조직적인 협동 조합 운동의 전통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은 허다한 난관과 애로들에 부닥칠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난관과 애로들이 있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 나라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장할 수 있는 유리한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당과 정부의 시종 일관한 농업 정책—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일련의 대책들의 결과로 조성되였는바 당과 정부에 의하여 각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영 농 목장, 농기계 임경소, 종축장, 농사 시험장 등은 농민들에게 생산적 방조를 주며 선진 영농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선진적 과학 기술에 의거한 사회주의적 협동 농업의 우월성을 실제적으로 뵈여 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촌에 소비 조합망을 확장 강화하며 농민 은행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농민들에게 영농상 필요한 융자적 방조를 주었는바 이러한 것들은 로농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협동 경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당과 정부는 이와 같이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제반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는 한편 농민들이 협동 경리에로 자원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상 정치 의식을 제고하며 일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킴에 진력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개인 농경리에서 형성된 그들의 개인주의적 심리와 낡은 습성들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선진적 경제 형태, 새로운 생산 관계에 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농민들을 협동 경리에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의 일대 문화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농민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부단한 사상 정치 사업의 결과에 우리 나라의 광범한 근로 농민들은 자원적으로 협동 경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정도에까지 사상 정치 의식이 제고되였으며 농업의 협동화와 기계화의 유리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상적 각성과 문화성에 기초하여 당과 정부가 제시한 농업 협동화 정책을 지지하여 협동 조합에 참가하고 있으며 한편 위대한 쏘련 및 기타 형제적 제 국가의 선진 경험과 선진 농산 과학을 광범히 도입하면서 조직된 협동 조합들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아직 협동 경리에 들어오지 않은 개인 농민들도 우리 당과 정부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협동화의 길에 들어서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바 그들은 농업 협동 경리를 장래의 먼 전망으로가 아니라 직접 자기들의 생활의 일정에 오른 문제로 보게까지 되였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실지 생활을 통하여, 농촌에서 장성 강화되고 있는 협동 조합들의 실지 생활과 생산적 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 공업과 련

결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였다.

* * *

당은 오늘 농업 협동 조합을 공고 발전시키면서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자원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 경제적으로 공고화하며 그를 정확히 관리 운영하도록 국가 측에서 방조를 주는 것—바로 이것은 농업을 협동화의 길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우리 당이 취하는 구체적, 실천적 대책이다.

소상품적 개인농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강제 수단을 취하거나 농민들에게 속하는 생산 수단을 수탈의 방법으로 사회화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레닌은 강제와 수탈은 당의 일체 농촌 사업을 파탄시키는 방법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혁명을 반대하는 엄중한 범죄적 행위로써 이를 규탄하였다.

우리 당은 레닌주의의 이 명제에 충실히 의거하고 있다. 당은 자원성의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옳바른 선전과 교양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 개인농 경리가 사회주의적 협동화에로 비교적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준비 정도, 문화 수준, 농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되는 농업 협동 조합의 형태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협동 경리의 가장 낮은 형태로서의 로력 협조반은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제를 보존하고 있는만큼 가장 초보적이며 맹아적인 형태이다. 로력 협조반은 집단적 경리 운영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과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의 공고화, 그리고 또한 각자의 경험에 립각한, 집단적 로력의 우월성에 대한 점점 더 커가는 확신—이 모든 것은 광범한 농민 대중으로 하여금 보다 선진적인 생산 조직 형태를 탐구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반사회주의적 형태인 제二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은 로력 협조반과 비교할 때 한층 높은 협동 경리 조직이다. 이 협동 조합의 기본 특징은 농민들이 각자의 토지를 출자하고 유일 관리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을 조직한다. 토지와 기타 생산 수단은 여전히 농민들의 소유로 남아 있는채 협동 조합에 이관하여 이를 공동으로 리용하고 있다. 이 협동 조합에서는 수확에서 얻는 수입은 출자한 토지의 면적에 의해서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대부분은 벌써 각자의 로력에 따라—그것은 로동 일수로 계산된다—조합 성원들 간에 분배되는 것이다. 수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부분은 조합 성원들이 출자한 토지의 면적에 따라 그들 간에 분배되며 일정한 부분은 조합원들의 공동적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폰드와 조합의 예비 축적금으로 배당된다.

이리하여 여기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가 사실상 공동 소유로 전화되여 가고 있다. 매개 농민이 출자한 토지에 대하여 받는 수입은 그 토지의 량과 질에 따라 규정되나 그것은 순수입 농작물의 二〇%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의 로력 일수가 년간을 통하여 一二〇일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분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二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에서 공동 소유의 비중이 부단히 증대된다면 그는 더욱 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서는 개인 농민들을 협동 경리에로 인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二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 부문의 이와 같은 二중성——즉 일면으로는 개인 소유적인 요소이며 다면으로는 협동적 요소이다——을 제거하는 사업을 통하여 협동 조합 내부에 내재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사유적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극복함으로써 반사회주의적 경리를 완전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전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제一、제二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에서 답보하고 앞으로 더 전진하지 않는다면 소상품 농민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은 의연히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 있을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을 순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의 협동 조합으로、다시 말하면 집단 농장으로 전환시키는 것——바로 이것이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우리의 종국적 목적이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현존하는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경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 당은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이 자기 경리를 옳게 조직 운영하며 질서있고 규률있는 협동 조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개 조합원들의 로동에 대한 자각성을 제고하며 조합의 공동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로동 규률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주인공답게 조합 사업에 참가하도록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낮은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들을 더 높은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방조 이외에 몇가지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협동 조합 발전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그 수입을 증대시키고 조합원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조합에서의 로동 생산성을 부단히 제고하며 토지 리용률을 높이며 선진 영농 기술과 현대적 농기계들을 광범히 도입 적용함으로써 협동 조합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농산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조합원들은 출자한 토지에서 얻는 수입에는 매여 달리지 않고도 자기 자신의 로력으로써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협동 조합들이 자기의 견고한 경제적 토대를 가짐과 동시에 조합원들 가운데서의 일상적인 교양 사업과 정치 사업이 이와 배합된다면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이 제고될 것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신심이 굳건하여지고 개인 경리를 영위하려는 농민들의 지향은 약화되거나 또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오직 이렇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농업 협동 조합은 충분히 견고하여질 것이다.

당과 정부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생산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판매 및 신용 대부 등 일련의 대책을 통하여서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에 광범히 포치된 국영 상점 및 소비 조합 상점망들은 도시와 농촌 간의 공업 제품과 농산물 교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민 은행들은 농민、특히 빈농민들에 대한 융자를 통하여 영농상、생활상 방조를 줌으로써 농업 협동 조합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농업 생산의 발전에 방조를 주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고리 대적、투기적 현상들을 억제 제거하고 있다.

우리 당은 오늘 농업 협동 조합、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농민 은행들과 함께 농기계 임경소、국영 농목장、종축장 등등을 강화하면서 로 농 동맹을 더 한층 공고화하고 있다. 이리하여 농민들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인입하면서 소상품 농민 경리를 점차적으로 국가 계획 경제에 편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면서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착착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 협동 조합들을 적극 발전시키며 현존하는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광범한 농민들에게 완전히 뵈여 주지 않으면 안된다.

* * *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현 시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앞에 긴급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령세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는 문제이다.

당과 정부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령세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종 일관하게 특별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수효의 령세 농민들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력사적 토지 개혁에 의하여 전체 농민들이 자기 토지에서 자유롭게 영농할 수 있는 조건은 보장되였으나 그러나 원래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지역들에 사는 일부 농민들은 생산 수단、로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의 농산 수확을 가지고 一년간의 식량을 보장하지 못하며 또 농경지가 본시 협소한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경작하는 경지 면

적이 한 농호 당 일정보 내외에 지나지 않는 극히 적은 면적을 경작하게 되는 데로부터 자기의 경제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또 일부 농민들은 아직도 자기의 영농 사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축력, 농기구 등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 농기구들과 선진 영농 방법을 광범히 도입 적용하지 못하고 락후한 영농 방법을 계속 답습함으로써 단위 당 수확고를 현저히 높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三년 간의 전쟁 기간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만행과 략탈로 말미암아 농촌이 극심한 피해를 당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이 령락되고 축력과 생산 도구가 격감되여 영농상 필요한 경제적 토대가 미약한 데 있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제 조건과 리유로서 아직도 령세 농민들의 생활은 현저히 개선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당과 정부는 령세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전후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중심 임무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를 최단 기간내에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

그의 유일한 길은 농업의 협동화이다. 왜냐 하면 령세 농민들이 개인농 경리에 계속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는 자기들의 생활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에서 령세 농민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가 개인 경리에 기초하였고 땅이 척박하고 영농 방법과 도구가 락후한 조건하에서는 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이런 어려운 농민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로동자와 농민과의 동맹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령세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농촌 협동화이다』라고 교시하였다.

현존하는 령세 농민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의 산간 및 해안 지대 농촌에서 살고 있다.

산간 지대에는 평야 지대보다 축산, 양잠, 양봉 기타 각종 부업들을 광범히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

해안 지대 농촌들에서는 농업과 함께 수산업을 겸영함으로써 바다에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산간 및 해안 지대 농민들이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과 풍부한 원천들을 잘 리용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토대는 튼튼히 구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생활 형편도 현저히 개선 향상될 것이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이 모든 조건들을 타산하고 령세 농민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그것은 산간 지대에는 반농, 반목축업 형태의 농업 협동 조합을, 해안 지대에는 반농 반어업 형태의

농업 협동 합조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일성). 오직 이 길만이 령세 농민들을 빈궁과 령락으로부터 행복과 문명에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시적인 낡은 생산 방법에 기초한 개인 농민 경리에 매달리고 있는 령세 농민들을 선진적인 협동 경리에로 이행시키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꾸준한 사상 교양 사업과 그들에게 낡은 생산 방법을 개변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도록 생산적 방조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령세 농민들은 자원적으로 협동 경리에로 단합될 수 있으며 그의 경제적 토대는 현대적 농산 기술에 기초하여 장비 강화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의 령세성과 락후한 기술적 토대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경리의 령세성과 기술적 락후성은 개인농 경리 형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극복될 수 없다. 농산 작업의 고도의 기계화, 토지 리용의 고도의 합리화 등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을 협동화하고 그를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워야 하는바 농업 협동 조합들과 농기계 임경소들은 이 부문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 개인 소농 경리를 협동 경리에로 점차 단합시키고 이미 조직된 협동 조합들을 가일층 공고화함으로써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더욱 앞으로 전진시키는 문제는 농촌 진지를 강화하며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우리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업 협동 조합을 공고화하는 문제와 함께 아직도 우리 농촌 경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농민들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개인 농민들의 농산물 수확고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우리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산물 총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령세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전체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당의 농촌 정책을 광범한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침투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농민들이 단위당 수확고를 제고함으로써 농산물 증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진 영농 방법과 선진 농기계의 광범한 도입 적용 등 생산적 방조를 주는 한편 그들의 혁명적 각성을 제고시키며

그들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과 국제주의 사상、집단주의적 사상을 배양함으로써 농산물 증산을 위한 영예로운 로력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도록 고무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이렇게 되는 때에라야만 그들은 우리 나라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필연성을 실지 자기들의 생활과 생산 행정을 통하여 똑똑히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 * *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농업 협동화 운동의 발전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개변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것은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의 농업 협동화 운동은 농민들의 의식 수준、문화 정도 등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광범한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에 립각하여 점차적 방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우리 나라 농촌에 개인농 경리가 아직 남아 있고 미제와 리승만 매국 역도들이 남반부에서 공개적인 무력 침공 음모를 계속 진행하면서 온갖 기만적 방법과 선전 수단을 동원하여 자본주의적 사상을 북반부에 전파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으며 또 밀정、파괴、암해 분자들을 계속 북반부에 파송함으로써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방해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농촌에서의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며 낡은 것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일순간도 중지될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농촌에서의 낡은 것에 대한 투쟁은 농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경제 활동의 련쇄 속에서 집요하게 진행될 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러한 계급적 원쑤들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방해하여 보려고 조합내에 잠입하거나 혹은 그 밖에서 협동 조합 운동을 장해하려고 시도한다。그들 가운데는 조합내의 일부 락후한 농민들을 조종해 보려 하며 조합 내부 사업과 생산 작업에서 태공을 조직해 보려 하며 그들에게 자본주의적 독소를 주입시킴으로써 조합의 사회주의적 발전을 방해하여 보려고 노리고 있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일부 락후한 조합원들 가운데는 아직 자본주의적、개인 리기주의적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데로부터 조합 일을 마치 남의 일같이 생각하며 되도록 적게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수를 받으려 하며 조합 규률과 작업 질서를 위반하고 태공하는 전달꾼들도 있다。이러한 조합원들은 관리 일꾼들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일하는체 하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되는대로 일을 해 치우면서도 로력 일을 평가할 때에는 높은 점수를 받으려 하고 있다。

오늘 농촌에서의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은 협동 조합 내부에서 또는 그 밖에서 여러가지 형태로써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경제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여야 하는바 이 사업 자체가 곧 오늘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의 중심 고리로 된다。

오늘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경제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조합 공동 재산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며 둘째로 조합원들의 로력 일을 정당히 평가하며 세째로 농촌 전달꾼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네째로 조합 재산에 대한 탐오 랑비 형상을 근절하며 다섯째로 조합내에서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켜야 할 것인바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 협동화를 방해하려는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음흉한 시도로부터 협동 조합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해서는 농민들에 대한 계급적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을 사회적 소유를 애호 절약하며 로동에 대한 자각적 태도와 집단주의 정신으로 부단히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훈련 조직하며 그들 가운데서 적극성과 창조적 열성을 발휘하는 선진 농민들의 대렬을 확장하는 동시에 로 농 동맹을 가일층 공고화하는 사업을 부단히 전개하여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만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우리들 앞에 제기되여 있는 과업은 방대하다。그러나 우리는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의 지지 방조와 우리 당과 같은 새 형의 당 즉 우리 나라의 경제、정치적 독립과 륭성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으로 인민적 당을 가지고 있는만큼、그리고 또 오늘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동맹을 공고화하며 농민을 사회주의의 길로 인입하는 데 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경제적 방조와 자기의 령토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는만큼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제기한 제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양잠업의 발전과 그의 전망

윤 태 중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전후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당은 전후 급속히 복구 발전되는 견직 공업에 원료를 보장하며 근로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양잠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할 긴급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六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가까운 장래에 우리 나라에는 견방직 공장이 건설될 것이며 우리의 손으로 년간 수천만 메터의 명주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수령의 이 교시에 립각하여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관한 법령에는 우리 나라 양잠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과업이 명시되여 있는바 一九五六년에는 농민 경리에서의 춘 상전 면적을 八천 一백 정보에, 잠견 생산을 六천 四백 톤에 도달케 하며 국영 양잠업을 더 한층 개선하며 작잠 사육 사업을 강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당 중앙 위원회 一월 전원 회의는 양잠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그에 유리한 조건들을 타산하고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시하였다。『앞으로 二——三년내에 누에 고치 생산을 현재 수준의 二——三배로 증가시킴으로써 급격히 증대되는 경공업에서의 고치 수요를 최단 기간내에 완전히 충족시킴에 있다』고。

우리 나라 양잠업 발전에 가장 유리한 공간은 자연 지리적 조건이다。

우리 나라의 토양 조건은 일부 지대——량강도의 고원 지대, 자강도의 동북부 산악 지대, 함경북도의 서북부 산악 지대에 있는 산악 뽀드졸형 토양 지대와 지하수가 높은 일부 습지대, 토성이 중첨질이며 산성이

강한 현무암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뽕나무 육성에 적당한 지대들인바 거기에는 뽕나무가 광범히 분포되여 있다。 一九五三년도에 실시한 상전 적지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량강도의 신파군, 함경북도의 무산군 등 일부 지대를 제외하고는 우량 품종의 뽕나무들이 광범히 분포되여 있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후 조건도 양잠업에 가장 유리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후 조건은 누에 사육에 영향을 준다。 즉 기온과 습도는 누에의 체온 및 수분 배설에 영향을 주며 누에의 건강성과 잠견의 수확성에 직접 영향을 주며 또 일조와 강우량은 온도와 습도 뿐만 아니라 뽕잎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청명하고 온화한 우리 나라의 기후 조건은 이 모든 것을 극복케 하여 주는바 우리 나라의 양잠 기간 중의 기온은 잠실내에서의 온도 및 습도를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춘잠기(五월 중순——六월 중、하순)에 있어서 우리 나라 북반부의 평균 최고 온도는 五월에는 섭씨 一四·七——二二·一도、六월에는 섭씨 一八·〇——二六·九도이며 평균 습도는 五월에는 六四——七九%、六월에는 七一——八六%이다。 추잠기(八월 중순——九월 중순)에 있어서 평균 최고 온도는 八월에는 섭씨 二二·四——二九·四도、九월에는 섭씨 二一——二四·八도이며 평균 습도는 八월에는 八〇——八六%、九월에는 七〇——八〇%이다。

이와 같은 온도 및 습도는 누에 사육을 보호하여 주는바 어린 누에는 보온으로서 온도를 조절하며 자란 누에는 낮은 습도로써 그의 사육을 보장한다。

춘잠기와 추잠기의 중간 시기 즉 하잠기는 추잠기보다 고온 다습하여 추잠기에 비하여 양잠하기 곤난하나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 대책에 의하여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는 양잠업 발전을 위한 풍부한 사료 기지가 있으며 또 뽕나무 육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누에 사육에 있어서도 적당한 기후 조건들이 구비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농민들은 선조 때부터 누에를 쳐왔으며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옛적부터 잠견과 명주 산지로 유명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많은 농민들은 잠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잠의 초보적 기능은 우리 나라 농촌에 널리 침투되여 있다。 당의 시종 일관한 정책과 위대한 쏘련의 선진적 양잠 기술의 광범한 도입은 많은 농민들의 양잠 기술을 부단히 개선시켰는바 특히 오늘 농업 협동 경리의 발전과 관련하여 양잠 농민들의 기술 수준은 더욱 더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 양잠업 발전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오늘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경제 기술적 원조는 잠업 발전에 대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업 발전을 위하여서는 원료견을 처리할 수 있는 간견장의 설비가 있어야 하며 제사 공장이 있어야 하며 견직 공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늘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사심없는 원조와 민주 시장과의 친선적 련계밑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 사정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양잠업 발전을 위한 무한한 전망을 예견케 하여 준다.

당과 정부는 양잠업 발전에 유리한 우리 나라의 자연 조건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양잠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여 왔는바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양잠업은 현저히 발전되였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잠업 발전을 위하여 양잠 지대에 잠업 관리소들을 설치하고 묘목의 대량 생산으로 상전을 계속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잠종을 제조하여 이를 양잠 농가들에 공급하였으며 잠업 시험장들을 설치하여 양잠 기술을 일층 발전시키며 나아가서는 양잠 농가들에 유리하도록 고치 수매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 실천하여 양잠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전쟁 기간중 미제 무력 침범자들의 야수적 만행에 의하여 적지 않은 상전과 양잠 시설들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여 이 기간의 잠견 생산고는 전전 수준에 비하여 훨씬 감소되였다.

당과 정부는 전후 시기에 들어서면서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과 그를 위한 경공업 발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됨과 관련하여 파괴된 잠업의 복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일련의 적절한 대책을 취한 결과 一九五三년도에 五、四七一개의 누에 공동 사육반이 있었다면 一九五四년에는 그것이 一〇、一七一개로 증가되였으며 一九五四년도 고치 생산 계획은 一〇九%로 실행되였고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四二%가 더 증가되였으며 一九五五년도 춘잠 생산은 현저한 정도로 그의 복구 발전의 성과를 뵈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잠견 생산량은 장성 확대되는 경공업의 수요를 충족시킴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발전 속도가 완만하다. 우리 나라에는 앞으로 一——二년내에 년산 四、〇〇〇만메터의 견직물 생산 능력을 가지는 견방직 공장이 건설된다. 여기에만 하여도 현재 생산되는 잠견량의 약 四·四배나 되는 잠견이 요구되며 잠견에 대한 경공업의 수요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증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양잠업 발전 속도가 완만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이 취한 일련의 대책들을 우리의 많은 당 단체들과 농촌 경리 지도 일꾼、농산 과학 일꾼들이 불만족하게

실천하고 있는 데 있다.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당 단체들과 농촌 경리 지도 일꾼들은 양잠업 발전에 대한 당과 정부의 시책을 깊이 인식하고 양잠업 발전에 대한 관심을 현저히 높이고 있으나 잠견 생산의 기본 고리인 뽕나무의 증식 및 그의 비배 관리、황폐된 상전의 복구、광대한 산뽕 원천의 개척 리용、원잠 제조소 및 잠업 농장들에서의 잠종 개량을 위한 사업 등 양잠업 발전을 위한 당의 중요 대책들을 불만족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과업은 이와 같은 엄중한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고치 생산을 최단 기간내에 증가시킴으로써 급속히 증대되는 경공업에서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있다.

* * *

양잠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면적의 사료 기지를 창설하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에 요구되는 우량 상묘를 다량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우량 잠품종의 육성 사업과 질적으로 우수한 잠종을 다량 생산하여야 하며 선진 양잠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여 단위당 잠견 생산고를 제고하여야 하며 작잠 사육 사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거대한 사료 기지의 창설과 그의 효과적 리용에 관한 문제는 양잠업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 문제로 된다. 당과 정부는 이를 위하여 원잠 제조소와 국영 잠업 농장을 설치하고 우량 상묘를 대량 생산하였는바 이리하여 뽕 종자는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량으로 충당하게 되였으며 양잠 농가에 렴가로 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상묘 생산 기술도 현저히 발전되였다. 一九五四년에는 접목 활착률이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一五〇% 이상으로 장성하였는데 평안북도 염주 잠업 농장에서는 선진적 방법에 의하여 수목(穗木)과 대목(台木)간의 수액 유동 관계를 구명하고 랭장 방법을 적용하여 접시술 기간을 연장하면서 활착률을 一九五四년에 九二%까지 제고하였으며 순천 잠업 농장에서는 九〇% 이상 제고하였다.

양잠업에서 사료의 품질을 제고하며 수확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뽕나무 품종을 선택하는 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유감하게도 우리의 과학 연구 기관들에서는 아직 지방별로 장려할 우량 뽕나무 품종 선택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상묘의 계획적 생산은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현재 우리 나라에 분포되여 있는 뽕나무에 대하여 그 특성을 구명하여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지대

별로 결정하는 사업을 시급히 완성하며 그에 근거하여 상묘 생산 기관에 풍부한 모수원(母樹園)을 설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는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뽕종자 모수 상전을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접목 생산에 있어서 대목의 영향을 접수(接穗)가 받게 되므로 대목용(台木用)종자 채취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며 우량 계통 종자의 순계(純系)채취 또는 교잡 채취 방법에 의하여 얻은 것을 파종하여 구태여 접할 필요없이 실생묘를 그대로 리용할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접지술에 있어서 선진 기술을 시급히 일반화하는 문제는 상묘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생산 원가를 저하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상묘의 다량 증식과 관련하여 접시술 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로력 조직의 합리화에 있어서나 또는 시접 기능공을 단시일내에 대량적으로 양성하기 곤난한 현 조건에서 기존 기능자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활착률을 제고하며 전체 생산고를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므로 각종 시접 방법을 시기적으로 옳게 배합하여 초춘부터 늦은 여름에 이르기까지 시접할 필요가 있다.

뽕종자는 채종한 여름에 파종하면 발아률이 좋으나 시기가 늦으면 대목이 가늘어져서 이듬해 봄에 가서는 접목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뽕종자를 월동시킴에 있어서 그 저장 방법을 부적당하게 하면 발아률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거대한 상묘 생산 수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뽕종자 채취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종자를 제때에 채취하여야 하며 종자는 채취하는대로 조기 파종을 하여야 하며 늦어서 수매한 것은 특별한 저장치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상묘를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농민들을 이에 인입시켜야 하는바 현재 쏘련에서의 실례를 보더라도 꼴호즈에서의 상묘 생산은 전국적 총 생산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불때 협동 조합에서의 상묘 생산은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은 의심할바 없다.

협동 조합에서의 상묘 생산에 있어서는 접목법을 실시하기에는 아직 기능 정도가 미약한 곳에서는 성취법(盛取法)、곡취법(曲取法)들을 실시하도록 모수 상전을 조성함이 적당하다. 쏘련의 경험에 의하면 성취법으로서 정당 四〇、〇〇〇본 이상의 상묘를 생산하면서 추잠을 사육할 수가 있다.

협동 조합에서의 상묘 생산에 있어서는 대목으로 뽕뿌리를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좋지 못한 품종의 뽕뿌리는 수목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뽕뿌리의 리용은 다량적으로 상묘 생산이 요구되는 현실정에 비추어 다소간 그 질에 있어서 손색이 있다 하더라도 대목을 손쉽게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 앞에 제

기되는 거대한 량의 상묘를 전부 뽕종자 파종에 의한 실생 대목에만 의존한다면 다량적으로 요구되는 상묘를 제때에 보장하기는 매우 곤난할 것이나 뽕뿌리를 리용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는 능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산악 지대가 비교적 많고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잠견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전 면적을 확장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당 수엽량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정당 수엽량 제고의 기본 고리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며 로쇠한 뽕나무를 갱신하고 수엽량이 낮은 뽕나무 품종을 우량 다수확 품종으로 바꾸며 중경 제초 사업을 옳게 실시함에 있다.

뽕나무는 그 어느 작물보다도 많은 영양 물질을 요구하므로 토양의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가 요구하는 영양 물질을 원만히 공급한다면 현재 수준의 정당 수엽량을 三—四배 이상으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견 증산을 위하여 새로 상전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상전을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하며 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새로 확장하는 상전은 적어도 三—四년후에라야만 수확년도에 들어가나 기설 상전은 비배를 옳게 실시한다면 당년에 몇배 이상의 수확을 낼 수 있으며 또한 상전 확장에 요구되는 많은 상묘를 절약하며 상전 조성에 사용하는 토지를 다른 알곡 생산에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상전 확장을 그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잠견 생산에 요구되는 뽕잎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설 상전의 비배 관리와 함께 상전 확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상전을 확장하되 기설 상전의 비배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전의 비옥도를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자급 비료를 다량 증산하여 그의 시비량을 높이며 분토、객토、소토 작업을 광범히 실시하여야 하며 퇴비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유기 광물질 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상전에 두과 식물을 록비로 재배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의 결정에는 순상전에는 정당 퇴비 三〇톤 이상、산식 상목에는 一본당 퇴비 一五키로그람 이상을 시비하며 이외에 속성 질소 비료를 정당 二〇〇키로그람 이상 시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최소한도의 기준량이다. 그러나 이를 보장한다면 정당 수엽량을 一五톤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잠종 소립 매수를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물질을 흡수하여 자양분 있는 뽕잎을 생산하게 될 것인바 그것으로 사육한 잠견은 단단하고 무거워서 단위당 잠견 수확고를 제고할 수 있다.

만약에 상전 비배 관리 사업을 등한히 하여 뽕잎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잠종 소립 매수를 증가하더라도 누에는 언제든지 뽕잎을 만족하게 먹지 못하게 되여 사육 도중에 죽는 것이 많게 될 것이며 또 만일 살아 남아서 고치를 튼다 하더라도 그것은 빈약할 것이다.

뽕나무 식재시에는 충분한 준비 사업이 요구된다. 미리부터 개인별로, 필지별로 집 주위, 밭두렁, 각담머리, 수로 언덕, 휴한지, 비옥한 산록 등 식재 적합지를 답사하여 년차 계획을 수립하되 우선 부락에서 가까운데서부터 식재 계획을 실시할 것이며 식재 예정지는 충분히 기경하고 퇴비를 다량 시비한 다음에 식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비 사업이 없이는 상묘의 활착률과 성장률을 저하시키게 된다.

쏘련을 위시한 선진 양잠 국가들에서의 경험은 잠견 생산을 목적하는 양잠은 춘잠 제四——五령기에 있어서는 가지 뽕으로서 조상육(條桑育)을 실시하는 것이 로력을 매우 절약하면서도 잠견 생산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육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뽕나무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년에 성장하는 햇순의 길이를 고간식 육성으로 적어도 一메터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햇순의 성장이 매우 짧아서 현재 형편으로서는 가지 뽕으로서 조상육을 실시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따라서 양잠 사육에 있어서 막대한 로력이 적상과 급상 제사에 소모되고 있다. 그러므로 뽕나무 관리법을 개선하여 햇순의 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조상육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광범히 분포되여 있는 산뽕을 충분히 리용하는 것은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잠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산뽕 분포 상태의 조사와 병행하여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산뽕 지대의 관리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산뽕 집중 지대의 하초를 빈다든가, 잠목을 제거하여 광선을 충분히 쪼이게 한다든가, 높은 나무를 중동에서 베서 가지를 나게 한다든가, 로쇠한 것을 대밑에서 베서 아접(芽接)한다든가, 밀식되여 있는 것을 간벌한다든가, 산뽕 중에서 좋은 품종을 보호하여 우량 산뽕 품종으로 다른 좋지 못한 산뽕을 갱신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한다면 산뽕에서 더 품질이 좋은 뽕잎을 현재보다 몇배 이상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산뽕을 어느 시기에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로력 조직상으로 보든지, 누에의 성장에 따르는 적당한 엽질을 보장하는 면에 있어서든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산뽕에는 각종 품종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성질이 좀 다르며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뽕잎보다 빨리 굳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 양잠 농민들은 먼저 재배 뽕을 사용하다가 누에의 제五령기

에 뽕잎이 부족하게 되면 원거리의 산뽕을 리용하는데 그때에는 이미 뽕잎이 굳어져서 사료 가치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五령기 마지막 누에는 많은 수량의 뽕잎을 요구하기 때문에 몇사람씩 동원되여 수십리 밖에 가서 산뽕을 따오더라도 몇 회분의 급상 밖에 보장못하므로 누에는 굶는 시간이 더 많게 된다.

이러한 실정을 타산하여 누에 공동 사육반에서는 제一령기 누에는 집 주위의 울뽕을 사용하고 제二——제四령기에는 산뽕을 리용하면서 그 동안에 집 근처에 재배하는 뽕나무에서는 수확하지 않고 충분히 비배하여 두었다가 뽕잎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적상에 많은 로력이 소요되는 제五령기에 그것을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산뽕을 누에의 사료로서 리용할 수 있으며 제五령기에는 풍부한 자양분을 가진 재배 뽕을 리용하여 잠견의 수확고와 품질을 제고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료 기지의 확장과 병행하여 잠업의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중요한 고리는 잠품종 개량 사업과 잠종 제조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시책에 의하여 우리의 과학 일군들은 잠품종 개량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는바 과학원 원사 계 응상 박사가 선출한 『국잠 四七호』는 일제 시대에 놈들이 자랑하던 『특구 四호』에 비하여 전견량에 있어서 一三七%, 견층량에 있어서 一〇九%, 『특지 四호』에 비하여서는 전견량은 一六五%, 견층량은 一二八%, 『일 九호』에 비하여서는 전견량은 一三三%, 견층량은 一四五%로 각각 제고되고 있으며 『중 一〇八호』는 『지 一〇八』호에 비하여 전견량은 一〇九%, 견층량은 一一九%로 각각 제고되고 있으며 『일 一一二호』는 일제 시대의 『일 一一二호』에 비하여 전견량은 一二一%, 견층량은 一一〇%로 각각 제고되였고 『二〇七호』는 『신지 一〇二호』에 비하여 전견량은 一一六%, 견층량은 二九三%, 『신지 一〇三호』에 비하여 전견량은 一一五%, 견층량은 一四三%로 각각 제고되고 있으며 기타 다른 품종들도 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잠품종을 육성하여 낸 것은 우리 나라 양잠업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로 된다.

그러나 우리의 잠품종 육성 사업에서는 잠유기체의 생활성을 제고하는 데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잠유기체 자체가 자기가 영견한 견층을 뚫고서 나오지 못하는 데서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잠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자료 선택 방법, 교양 방법, 유기체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 관계, 그리고 각 기관과의 상호 련관성에 립각하여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미츄린 학설에 근거하여 잠품종 개량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의 잠품종 개량 사업에서 보다 큰 진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잠종 제조

사업에서도 우리는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一九五〇년에 잠종 제조 량은 一五四%까지 장성되였으며 전후에는 一九四七년에 대비하여서 전쟁에서 받은 피해를 복구하고 앞으로 잠업 발전에 요구되는 잠종 수량을 넉넉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놓았다。

그러나 이 부문의 사업은 다른 잠업 부문 사업에 비하여 질적으로 큰 개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것은 잠종 제조의 량적 면에만 치중하고 잠종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선진 기술을 완전히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우리의 원원 잠종 제조 기관을 위시하여 원잠종 제조 기관에서는 종자 고치 생산에 적합한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저간식(低幹式)육성에 의한 충실치 못한 사료를 사용하고 있는바 그것은 필연적으로 후대 잠종의 건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보통 잠종 제조 기관의 분장(分場)지도 사업에는 건강한 종자 고치 생산을 위한 일련의 기술적 대책을 미약하게 취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경우에 병독 예지 검사 정도의 소극적 방법에 국한하고 있는바 유충 사육 기간을 통하여 엄격한 도태 사업과 건강한 사육 방법만이 우량 잠종 제조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잠에서 잠종 一매 당 수견고를 제고할 수 있는 기본 고리의 하나인 건강한 잠종을 제조하기 위한 엄격한 도태 사업을 분장 사육의 매개 계단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확립하며 종자 고치의 품질 제고에 따르는 종자 고치 수매 가격의 대폭 인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는 종자 고치의 품질 제고를 위한 종자 고치 생산 분장 지대의 선정에 대하여 결정하였는바 잠업 일군들은 이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자연—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분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잠종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서 잠업 검사 기관의 역할 제고는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쏘련에서는 잠종 제조 사업에서 소요되는 총로력의 七五%까지는 검사 사업에 동원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비단 미립자병 뿐만 아니라 농병、연화병 등 잠병에 이르기까지 검사를 엄밀히 실시하여 후대 잠유기체의 건강 보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쏘련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립자병과의 생물학적 투쟁 방법은 누에의 용체 계단에 열 (섭씨 三一—三四도) 을 교체하고 환기를 세차게 하여 잠란 형성기에 잠유기체로 하여금 미립자 병독을 박멸하는 작용을 강화하게 하는 생물학적 방법에 기초한 것인바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잠유기체내의 미립자 병원체는 박멸될 것이며 그의 생산에의 도입은 잠종 제조 기관에서의 로동 지출을 반감하고 병독의 현미

경적 검사의 필요는 없게 될 것이며 잠종 제조 기자재를 절약하고 잠종의 질을 제고할 가능성을 준다。 그러므로 과학 연구 기관 일군들의 이 선진 양잠 기술의 보급은 양잠의 공동 사육과 밀접히 련결되고 있다。 공동 사육은 선진적 잠업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하여 주며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 잠견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여 주는바 지난해의 공동 사육의 경험은 바로 이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공동 사육에서 반드시 고려할 것은 무원칙한 륜번제에 의한 사육이다。 적상에서는 륜번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누에 사육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될 수 있으면 령별로) 에 사육자를 지정하여 고착시킬 것이며 로력의 질과 량에 따라서 분배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一—제二령기에는 가장 능숙한 기능자가 담당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도 효과가 있다。

쏘련에서 광범히 실시하고 있는 기간 단축 사육 방법은 공업용 고치 생산에 있어서 사육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막대한 로력을 절약하며 잠견 생산고를 제고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이것은 과학 연구 기관들의 사업에서와 선진 양잠 농민들의 경험에서 론증되고 있으므로 광범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온도 조절법과 습도 조절법에 대해서는 쏘련의 과학 연구 기관에서도 현재 연구 중에 있는바 우리 나라 과학 일군들도 잠품종별、사육 시기별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잠병의 예방을 위하여는 잠실、잠구의 소독이 특별히 중요한바 현재 잠실 소독 약품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곤난한 형편에 있으므로 가장 간이한 방법 즉 뜨거운 잿물로 잠실을 매질하며 잠구를 씻는 것——이것은 아포를 형성하지 못한 미생물을 박멸하는데 효과적이다——을 광범히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잠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잠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때문에 당과 정부는 전후 건설에서 긴요하게 요구되는 지방재의 일부는 잠실 건축에 돌리고 있다。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계획적으로 공동 잠실 건축 사업을 취진시켜야 할 것이다。 잠실의 효과적 리용을 위하여서는 잠가를 설치하고 개량 잠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바 그는 로력을 절약하고 누에 사육 관리를 위생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그러나 일부 지방들에서는 아직 누에를 방바닥에서 치는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시급히 시정하여야 한다。

일부 양잠 농민들 중에는 누에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상족하기만 하면 일은 다 된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족 중의 관리 여하는 잠견의 품질에 큰 영향을 준다。 개량섭(改良簇)을 사용하고 상족 후 二四시간 이내에 자리를 빼고 온도를 섭씨 二二—二三도 어간에서 정확히 보장하며 습도를 四〇—五

○%에 건조하게 하고 환기를 잘하여 주면 고치는 매우 적게 나고 상등 고치가 많아지며 고치의 질은 견층의 八五% 이상 제사하여 생사로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육하는 잠품종은 원종으로서 그 견층률이 一六·六—二○% 이상의 것이며 교잡종으로 사육한다면 一七—二○%까지 견층률을 가지고 있는 다사량 품종들이다. 우리가 만약에 사육중에 사료를 포식시키고 상족 중에 보호를 정확히 하고 잠견을 옳게 간견하여 제사 공장에 공급한다면 생견 一○○키로그람에서 생사 一四—一六키로그람은 넉넉히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양잠 농가들에서는 개량종을 사용할 대신에 솔잎을 사용하고 통풍을 잘할 대신에 방문을 밀폐하며 또 국가에서 간견장 시설이 아직 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농가에서의 간견 방법의 락후성과 심지어는 일부 제사 공장에서처럼 귀중한 원료견을 적재할 창고조차 설치하지 않고 고치를 로적하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생견 一○○키로그람에서 생사를 一○키로그람 미만밖에 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바 이는 양잠 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와 아울러 수매 기관과 제사 공장에서 잠견 취급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급속히 근절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잠견 생산은 현재 수준의 四·四배인 년산 二만톤에 그칠 것이 아니라 一○배 또는 그 이상 증산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와 같이 년 二회 즉 춘잠과 추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년 다회 사육이 요구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진 양잠 농민들의 년 다회 사육 경험과 과학 연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 사업은 앞으로 우리 나라 양잠업을 년 다회 사육에로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작잠 사료 기지와 유리한 기후 조건은 앞으로의 작잠견 증산에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을 타산한 우리 당과 정부는 작잠업 발전을 위하여 백방의 배려를 돌려 왔다. 작잠업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산림 면적을 제공하였으며 작잠 시험장, 작잠 시험지를 설치하여 작잠에 관한 연구 사업과 채종 사업을 진행시키며 각 잠업 농장을 기술적으로 방조하는 등 거대한 사업을 하였다. 그 결과에 작잠에 많이 전염되고 있던 미립자 병독은 점점 퇴치되여 가고 있으며 다사량 계통의 우량 품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과학 연구 시험 기관들에서나 작잠업 농장들에서는 수공업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그를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농업 협동 조합을 작잠 생산에 광범히 인입시키는 것이 필요한바 우선 작잠림 적지를 가지고 있는 협동 조합에 작잠 기능공을

다량 양성하여 보급시키며 그에 우수한 잠종을 공급하기 위하여 백방의 국가적 대책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양잠업은 각 부문에 걸쳐서 아직 수공업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부문이 허다히 존재하는바 잠업에서 기계화 문제는 그의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원가 저하를 위하여 긴급히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선진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기계화의 경험을 섭취하는 한편 국내의 과학 연구 기관들의 연구와 생산 기관들의 창의 고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 * *

우리 나라에서의 양잠업은 그 발전 전망이 풍부하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리한 자연 조건을 충분히 리용하며 당과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대책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다. 당과 정부의 시책을 깊이 인식하고 양잠업 발전에 극히 유리한 우리 나라의 자연 조건을 옳게 동원 리용하며 농업 협동 조합들과 일반 농가들을 조직 동원한다면 우리 나라의 잠견 생산량은 급속히 장성할 것이며 증대되는 견직 공업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 일군들 앞에는 선전 력량을 조직 동원하여 농민 대중 속에서 양잠업 발전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계속 해석 침투시킴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잠견 증산을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할 중요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당 단체들은 농민들 속에서 누에 사육에 대한 의욕을 계속 제고시키며 양잠 지대 당원들의 적극적 열성과 모범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함과 동시에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중요한 부업으로 양잠업을 의무적으로 진행케 함으로써 금년도에 계속 양잠 사육 지대를 더욱 확장하도록 지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당은 잠업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누에의 사양 방법 개선과 뽕잎의 대량적 생산에 높은 관심을 돌리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분산적이며 수공업적인 사육 방법을 퇴치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공동 사육 방법과 과학적인 사육 기술을 광범히 보급함으로써 금년도의 매당 잠견량을 가일층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상전의 급속한 복구와 식상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며 뽕나무의 비배 관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정당 수엽량을 제고하여야 하며 산뽕 원천을 금년 중으로 철저히 조사 완료케 할 것이며 현재 개량뽕들이 잘 육성되지 않는 산간 지대들에서는 재량뽕, 산뽕을 토대로 하여 그 지대에 적합한 상묘를 육성하며 농업 협동 조합들과 개인 양잠 농가들에서는 자가 상묘 생산, 뽕씨 채취 사업을 광범히 조직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우량 잠종 생산 보장을 위하여서는 원잠 제조소 및

잠업 농장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각 도에 전문적인 종자 고치 생산 지대들을 선정 고착시키고 이 지대들에 특별한 기술적 지도와 방조를 주며 잠병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 소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며 잠업 검사소들의 사업을 개선하며 잠종에 대한 국가 검사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양잠업의 급속한 발전의 중요한 고리는 농민 대중의 열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며 그들을 어떻게 조직 지도하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양잠 농민들에 대한 조직적、기술적 지도 사업을 개선 강화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고려한 국가의 잠견 수매 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양잠 농민들의 실지 수입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잠견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제고시킴으로써 양잠 사업에 농민들을 더욱 광범히 인입하며 상전의 복구 확장、사료 원천의 개척、선진적 양잠 기술의 도입 등 모든 사업에 그들의 열성을 계속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잠견은 우리 나라 견직 공업의 귀중한 원료이다。당 단체들과 잠업 부문 일꾼들은 양잠 지대의 전체 농업 협동 조합들과 농민들로 하여금 자체의 수입을 부단히 증가시키며 견직 공업 원료의 증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잠견 생산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고무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잔재와의 투쟁에서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역할

므·뜨·요브츄크

쏘련 공산당은 반세기에 걸친 자기의 영광스러운 력사 행정에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며 그것을 로동 운동과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침투시키는 사업에 제一차적 의의를 부여하여 왔다。쏘련 공산당의 위대한 수령이며 창건자인 브·이·레닌은 이미 자기의 초기 로작들에서 로동 운동에서의 기회주의적인 자연 생장성의 리론에 타격을 가하면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로동 계급의 의식 속에 침투되면 그것은 사회주의에 기초하여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 수 있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레닌과 그의 전우들은 제국주의의 련쇄를 그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파쇄할 객관적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는 혁명의 주관적 요인들——로동 계급과 농민、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혁명의 이 주관적 요인들을 발동시키며 그리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전복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혁명적 당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소유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적용하는 그러한 필수적 조건을 갖추는 때에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준비기 및 수행기에 있어서 레닌은 로동자들과 기타 근로자들의 의식을 개량주의적、배외주의적、사회—『방위론』적 등등의 환상의 영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해방시키며 혁명적 전투 행정에서 과학적 공산주의의 위대한 사상으로 근로자들의 투쟁을 밝혀주는 데로 공산당의 활동을 향도하였다。

대중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의식은 저절로는 형성되

지 않으며 스콜라적 연구의 결과로서도 형성될 수 없다는 것, 광범한 대중 특히 농민 대중의 의식에 사상적, 문화적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레닌은 쏘베트 제도의 조건하에서 명백히 통찰하였다. 나라의 전기화 및 공업화에 관한, 농민들의 협동화에 관한 레닌의 사상은 나라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에로 쏘베트 사람들을 고무하였다. 이번에는 또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성과들이 근로자들의 의식과 습성에서의 근본적 전환을 일으키는 기초로 되였다. 이리하여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다년간에 걸친 당의 사상, 정치 사업의 결과로 쏘베트 사회의 모든 계층——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의 의식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승리하였다.

쏘련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으며 평화와 제 인민의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쏘베트 인민은 근로자들을 창조적 로력에로 고무해 주며 그들에게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고취해 주는 맑쓰-레닌주의의 확고 부동한 원칙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三분의 一을 넘는 九억 이상의 주민들을 포괄하는 위력한 민주주의, 사회주의 진영을 고무 추동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수백만 근로자들도 과학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혁명적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을 따르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몇가지 특징과 자본주의 잔재의 집요성의 원인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내용은 맑쓰-레닌주의이며 그의 리론적 기초는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이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의식의 각이한 형태들에서 표현된다. 즉 맑쓰주의의 정치적, 법적 견해, 맑쓰주의 철학, 사회주의적 예술, 공산주의 도덕, 선진적 과학 등에서 표현된다.

쏘련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적 력량인 로동 계급의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쏘베트 사회의 다른 모든 계층의 세계관으로도 되여 있는 그 세계관이다. 물론 쏘베트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같은 정도로 사회주의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꼴호즈 농민들의 많은 층의 의식성과 문화성의 수준은 아직 로동 계급의 의식성과 문화성의 수준보다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로동 계급이나 꼴호즈 농민이나 쏘베트 인테리겐챠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사회주의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역할은

선행한 사회 구성태들의 발전의 성격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하에서도 사회 발전의 법칙들은 객관적이며 인간의 의식 및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는 당, 국가 및 전체 사회가 이 객관적 법칙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활동에 적용하며 그리함으로써 사회 발전의 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과거 력사에는 없었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쏘베트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바 그것은, 거기서는 사회적 개조를 위한 우로부터의 창의, 즉 쏘베트 사회를 지도하는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 측으로부터의 창의가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창의와 결합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레닌은, 쏘베트 국가는 대중의 의식성 때문에 위력하다는 것을 루차 강조하였다.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전반적 평화와 제 인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은 전체 쏘베트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객관적 세계의 법칙들을 심오하게 인식하고 있는 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가 자기 앞에 내세우는 목적들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행정 및 근로 대중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력사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일체의 착취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와는 직접적으로 대립되며 일체의 미신과 편견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하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특징이 원칙적으로 변화한다. 그것은 철두철미 과학적이며 혁명적이며 근로자들의 근본적 리해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는 진정한 인도주의——인간의 복리에 대한, 개인의 모든 전면한 수요의 충족에 대한,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과의 조화적 결합에 대한, 인민의 창조력의 개화에 대한 배려가 특징적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승냥이다』라는 원칙에 기초하는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에게 저속한 본능과 습성을 부식하며 『야수성』을 배양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에 기초하는 제도를 백방으로 지지한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과 제 민족 간의 친선, 평등의 위대한 원칙으로 일관되여 있다. 배외주의를 고취하며 이른바 약소하고 락후한 인민들을 동화하며 압도하려고 시도하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모든 인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그들의 접촉과 호상간의 문화 교류를 예상한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리해 관계의 결합과 같은 사회주의 사회의 그러한

중요한 특징과 밀접하게 련결되여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로동자, 끌호즈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지적(知的)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기 위하여 과학, 예술 등 전체 문화의 성과는 육체 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으로 되여야 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문화의 모든 전취물들을 소유하도록 로동자, 농민 대중을 고무하는바 과거에는 인민 대중은 착취 계급들에 의하여 이러한 문화의 소산으로부터 멀리 격리되여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있는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놀랠만한 현격(懸隔)을 합리화하며 육체 로동과 육체 로동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으로 되여 있다.

창조적인 대담성, 무한한 전진 운동, 낡고 락후한 것과의 투쟁에서의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의 발전—이러한 것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특징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과학, 문학, 예술의 발전, 모든 문화 령역의 발전은 유일한 과학적, 맑쓰주의적 세계관의 테두리 안에서의 의견 투쟁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의견 투쟁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전진 운동도, 사회주의적 문화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

낡은 부르죠아적 의식의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가일층의 발전—이것은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로부터 뒤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성과적 투쟁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로부터 뒤떨어진다는 그러한 법칙이 사회의 력사적 발전의 모든 단계에 고유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반영하기는 하지마는 사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당장에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다는 그것으로써 설명된다. 사람들을 재교육하며 맑쓰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들의 『일상적 의식』 즉 그들의 심리, 습성, 관습 등등을 개변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회 제도를 다른 사회 제도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보다도 비할 수 없이 긴 세월을 요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에 반영되는 행정은 복잡하다. 이 행정에서 인간은 자기들의 생활상 실천에 기초하여 현실을 인식하며 리해하며 현실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 행정은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다. 즉 그것은 한 편으로는 절대적 진리에 점점 더 접근하는, 주위 환경에 대한 지식의 완성, 발전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다른 편으로는 생활로부터의 사유의 괘리(乖離)의 가능성, 변천하는 현실의 이러 저러한 측면에 대한 오해 또는 일면적인 부당한 리해의 가능성도 역시 내포하는

것이다.

현실 특히 사회 생활에 대한 각이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리해(理解)는 사회적 생산 체계에서 이 계급들이 차지하는 특수한 처지로 말미암아 전연 상이한, 모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한 계급 내부에서의 각이한 그루빠의 사람들도 동일한 현상을 꼭 같이 리해하며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 생활과 정치 투쟁에 참가하는 정도의 차이에 의존하며 또 국가, 정당, 교회 기타 사회적 기관들이 각이한 사회적 그루빠에 속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주는 사상—정치적 영향 여하에 의존한다.

사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동이 거대하고 복잡한 현력사적 시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 지어는 선진적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까지도 사건들에 대하여 당장에 태도를 결정할 수 있고 사회적 현상들의 모든 측면과 그들간의 련계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하는 일이 많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침투되여 그들을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에로 추동하는 선진적 사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만 인습적인 낡은 사상, 관념, 견해, 관습 등을 청산하고 사람들의 『일상적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킬 수 있을 따름이며 그것을 단꺼번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낡은 사상, 관념, 풍습, 관습, 습관 등등이 그것들을 산생한 경제적 토대가 청산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다는 거기에도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자주성이 나타난다.

사회주의하에서도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은 그들의 사회적 존재보다 뒤떨어지는 것이다. 갖이 자본주의 사회와 교체된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 청소하여 자본주의의 『기미』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로부터 뒤떨어지는 원인은 또한 공산주의 건설의 행정에서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엄중한 곤난과 모순의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의 발전이 진행된다는 거기에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 그들의 견해, 사상 등 『일상적 의식』의 사회주의적 개변은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에 뒤이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이것은 낡은 것과 새 것과의 투쟁의 력사에서의 가장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변혁인 것이며 낡은 로폐한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하는 데 완강하게 반항하는 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낡은 제도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시대를 다 살고난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배 계급, 국가 및 전체 사회의 태도가 적대적 계급 사회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달라진다.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는 사회의 로폐한 착취 계급들의 이데올로기의 잔재와의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으며 투쟁 행정에서 사람들의

사상과 심리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제도의 잔재, 그리고 봉건 제도, 가부장 제도의 잔재들까지도 이를 극복하며 쏘베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의식을 그들의 사회주의적 존재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킨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 주민들의 기본 대중의 사상, 관념, 견해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풍습, 관습, 습관, 생활 양식에 있어서까지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켰다。

자기의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며 공산주의의 적극적 건설자이며 사회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 인민 대중은 쏘베트 국가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종 다양한 사건들을 리해하며 인식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국제 관계, 위대한 중국에서와 그리고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진행,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형편,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운명, 전 세계에서의 평화의 보장——이 모든 문제들이 쏘베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며 그들을 감동시킨다。 쏘련에서의 인민 대중의 절실한 리해 관계는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앙양, 처녀지 및 황무지의 개간, 축산업의 발전, 새 건설들의 친행, 산업 및 운수에서의 혁신 운동 등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최신의 성과들, 사회주의적 생산과의 그들의 련계, 철학, 경제학, 력사학 기타 과학들의 현실적 문제들——이러한 것들이 광범하게 쏘베트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실천과 리론에서 쏘베트 인민들 앞에 제기되는 다종다양한 문제들의 심오한 리해와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 맑쓰—레닌주의 세계관이 견고하고 확실한 지반을 제공하여 주는바 사회주의 제도의 조건하에서는 수백만 사람들——공산당원들, 공청원들, 쏘베트 인테리들, 열성적 로동자들과 꼴호즈원들 그리고 점차로 전체 근로자들이 이 세계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적 세계관이 대중의 의식을 점유하게 되므로 해서 가장 광범한 사회층이 국가적 립장에서 사물을 고찰하게 되며 사건들에 대하여 옳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사회 발전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확고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과학적 세계관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존재가 제기하는 높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쏘베트 사람들의 기본 대중의 의식에서 지배적인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쏘베트 사회의 일부 성원들의 의식에 남아 있는 낡은 로폐한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견해 및 관념들의 집요한 잔재들 간의 모순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오유일 것이다。 과거의 잔재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집착(執着)과 그들의 낮은 의식 수준 및 문화 수준이 성문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러나 확고하게 형성된 사회주의적 공동 생활의 규률을 파괴하며 건전한 쏘베트적 생활 양식의 제 원칙으로부터 물러 서게 하며 생활 자체의 요구로부터 뒤떨어지게 하는 근원으로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사회주의 사회의 성원들 중에서 자본주의 잔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비단 과거에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래동안 생활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다。 이미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 출생하고 장성하였으나 그러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에서 사상—정치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사회주의 사회의 젊은 성원들도 자본주의 잔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잔재들 중에서 가장 집요한 것의 하나는 종교적 편견들이다。 근년에 와서는 종교적 세계관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이 약화되였으며 과학적—무신론적 선전과 문화—계몽 사업이 불만족하게 진행되였다。 일부의 당, 직맹, 공청 및 기타 단체들은 쏘련 헌법이 허여하는바 량심의 자유,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도 과학적—무신론적 선전의 거부라고 일면적으로 리해하였다。 이것은 종교적 잔재도 포함한 일체의 낡은 것의 잔재를 극복하며 이데올로기적, 교육적 수단으로써 그것들과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지향하는 당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다。

전체 쏘베트 사람들의 문화 수준과 공산주의적 교양을 가일층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학—무신론적 선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주민들 속에서의 과학적—무신론적 선전 사업에서의 오유들에 관하여』라는 자기의 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업에 있어서 신앙가, 교회 근무자들의 감정에 대한 여하한 모욕도, 그리고 교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 간섭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반과학적, 종교적 세계관을 반대하는 과학적 세계관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은 오늘날 대부분 쏘베트 사회의 진실하고 적극적인 공민들인 신앙가들과 쏘베트 주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재 대부분 충실한 립장을 취하는 교회 근무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결코 아닌 것이다。

우의적 계급들로써 구성되여 있는 쏘베트 사회에는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위한 사회적 지반은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령역에서의 첨예한 계급 투쟁도 역시 외부로 향해진다。 공산당은 전 세계 앞에서 반동적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인민에 대한 적의를 폭로하며 그것에 고유한 민족주의, 꼬쓰모뽈리찌즘, 인종론, 군국주의, 관념론 및 신비주의를 폭로하며 쏘베트 사람들 속에 이 이데올로기가 침투되는 것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싸운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고무되고 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베트 사회는 자체에 잔존하는 부르죠아 사회의 인습과 세력을 반대하여,

즉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소부르죠아적 태도를 반대하며 민족주의적 편견과 꼬쓰모뽈리찌즘의 변종과 이것들의 지지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여기에 국내에서의 계급 투쟁의 요소가 표현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의 정신—정치적 통일이 확립되였고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쏘베트 사람들의 기본 군중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그의 잔재를 반대하며 그 이데올로기의 소지자들로서 공산주의 건설 사업을 저해하는 자들을 반대하여 진격한다.

그러나 쏘베트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분야에서의 모든 투쟁이 반드시 계급 투쟁의 표현으로 되며 쏘베트 사회와 그에 적대되는 세력 간의 정치적 모순을 반영한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물론 민족들 간의 불화를 재생시키려고 시도하는 민족주의의 적극적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소지자들인 맑쓰주의 수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나, 사회주의적 생산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략취를 조직하는, 사회주의와는 인연 없는 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공통한 과학적 세계관의 테두리 안에서 과학의 이러저러한 경향과 류파들을 대표하는 과학적 견해들 간의 투쟁이나, 사회주의적 문화와 예술에서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원칙들에 복종하는 창조적 스찔들과 쟌르들 간의 경쟁은 비록 이들 비적대적 모순이 충돌의 형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실지에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급 투쟁의 표현은 아닌 것이다.

어떤 개별적 리론 일꾼들과 선전원들은 사람들의 의식에서의 자본주의의 잔재는 마치 사회주의의 경제적 「미숙성」으로써 즉 상품 생산, 상업 및 사회주의적 분배 방법의 존재로써 설명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옳지 못하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자본주의 잔재의 보유를 상품 생산, 상업,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 등등의 존재와 관련시키려는 시도는 마치 사회주의하에서의 꼴호즈적 소유, 상품 생산 및 상품 류통의 가일층의 발전이 그 자체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의식에서의 자본주의적 잔재의 확대 강화를 가져오리라는 듯한 불합리한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하는 동기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꼴호즈적 소유와 사회주의적 분배, 쏘베트 상업 등등을 포함한 사회주의의 사회의 경제 생활의 모든 측면의 강화 발전은 자본주의 잔재의 청산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잔재들의 완전한 극복은 발전된 사회주의적 생산과 전개된 쏘베트 상업과 사회주의적 분배 방법의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행정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잔재의 보유는 쏘베트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는 곤난과 경제 체계에서의 모순을 조장한다. 쏘베트 사회에서는 나라의 장성하는 수요로부터의 농업 생산의 락후성, 상업 발전의 불충분한 수준 등등과 관련된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투기적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 일부 꼴호즈원들이 공동경리에서의 작업을 적게 하려는 경향, 기타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간의 다른 형식의 대립들이 이상과 같은 모순들과 관련되여 있다는 것은 리해할만한 일이다.

사회주의의 조건하에서 보유되여 있는 낡은 제도의 「기미」들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개별적 로동자, 꼴호즈원, 인테리들의 비량심적인 작업, 일부 사회 성원들이 물질적 생산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치않는 경향 등등이 있는바 후자는 르동에 대한 옳지 못한 부르죠아적 견해와 련결되여 있다. 자본주의의 「기미」로서는 또 아직도 남아 있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 부족한 상품으로써의 투기 행위, 국가 자금 횡령 등등은 또한 자본주의의 「기미」이다.

불가항의 자연력이나 여러가지 불의의 사변들에 의하여 조성되는 곤난, 례하면 흉년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행같은 것이 또한 일부 사람들에 있어서 락후한 기분—소소유자적, 종교적 기분 등등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쏘베트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잔재의 집요성은 또한 우리의 주체적 요인들, 례하면 우리의 개별적 기관들이나 단체들의 사업에서의 실책이나 결함들에 의해서도 조장되는 것이다. 꼴호즈 건설에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실들, 농업 생산 계획 작성에서의 오유들, 꼴호즈원들의 개인 부업 경리에 대한 홀시 등—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一九五三년 九월 전원 회의와 그후 전원 회의들의 결정에서 지적된 결함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의 발전에서의 곤난을 증대시키는 주체적 요인들로서는 또한 낡은 제도의 잔재와의 불철저한 투쟁, 문화—교양 사업의 불만족한 조직, 과학적—무신론적 선전의 미약 등등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에서의 자본주의 잔재들의 집요성이 경제 생활에서의 모순, 곤난들과 관련되여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 잔재들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가지 문화—교양 사업만으로써는 부족하다는 그것이다. 낡은 제도의 잔재들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일정한 물질적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당은 인민 소비품 생산의 확대, 쏘베트 상업의 원만한 조정 등등을 위하여 투쟁을 전개하는바 이 투쟁은 투기적 경향의 뿌리를 파헤쳐 버린다. 일부의 꼴호즈원들이 공동 로동에 대한 등한한 태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은 꼴호즈의 공동 경리가 가일층 앙양되고 그의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되여 있는바 이것은 공동 경리 발전에 대한 모든 꼴호즈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증대시켜

준다。

인테리 층에서의 이 잔재들의 발현을 반대하는 투쟁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공산주의적 교양 및 그들의 의식에서의 자본주의 잔재의 극복을 위하여 특별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교양자 자신이 교양되여야 한다。 쏘베트 제도와 쏘베트 인민의 신뢰의 덕택으로 교육과 높은 자격을 받은 인테리 층에서의 개별적 분자들、국가 기관의 일부 일꾼들이 관료주의자로 행세하며 국가 재산을 랑비하며 국가의 희생으로 돈벌이를 하려 하며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가치없게 행동하는 등등의 일이 드물지 않은바 이러한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준엄한 비판을 주며 작가、학자、예술 및 문화 활동가、쏘베트 일꾼들 속에서의 사상—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잘 소유하여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부르죠아적 습성을 극복하여야만 할 것이다。 일부 인테리들 가운데서의 자본주의 잔재의 근절、그들의 개인주의、맹종、아첨、출세주의、구습 묵수와 같은 불건전한 현상들을 론죄(論罪)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교양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자기네들 사이에서의 자본주의 잔재를 반대하는 선진적 쏘베트 인테리들의 투쟁을 신랄하게 묘사한 문학、예술 작품들이다。 최근에 나온 그러한 작품들로서는 르·레오노브의 『로씨야의 숲』、브·까쵸또브의 『청춘은 우리와 함께』、그·니꼴라예바의 『엠·떼·에쓰의 지배인과 주임 농학 기사의 이야기』、드·그라닌의 『탐구자』 기타를 들 수 있다。

수백만 쏘베트 사람들의 의식에 점유된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에로의 쏘련의 전진 운동의 위력한 요인으로 되여 있다。 주위의 현실을 진정하게 반영하는 사회주의적 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의 투쟁의 행정과 전망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순결성을 위한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의 투쟁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조건하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은 해마다 장성하고 있다。 대중적 사회주의 경쟁과 로력 혁신에서 표현되는 로동자、꼴호즈원들의 광범한 층에서의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의 장성、인민들 간의 친선과 평등의 사상의 승리、쏘련의 제 인민의 민족 문화의 개화、쏘베트 애국주의의 가일층의 강화、세계 과학에서 제一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쏘베트 학자들이 달성한 탁월한 성과、쏘베트 예술의 높은 사상성을 위한 성과적 투쟁 등등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보급 침투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전후 년간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쏘련의 인민 경제의 단순한 복구로써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의 급속한 장성 속도로써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一九五四년에 쏘련의 산업 생산 수준은 전쟁전 수준에 비하여 二·八배로 장성하였는바 그중 중공업은 三·四배로 장성하였다。 나라의 전체 인민 경제의 복구 및 가일층의 앙양을 위한 거대한 과업은 대중의 열성이 없이는、가장 광범한 근로자 층의 사회주의적 교양을 위한 당의 거대한 조직자적 및 사상—정치적 사업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쏘련에서의 사상 및 문화 발전의 현 시기는 근로자들의 문화적 요구、정신적 수요의 미증유의 장성으로써 특징지어진다。 一九四〇년에 모든 종류의 교육 기관에 四천만명의 사람들이 망라되여 있었다면 一九五三년에는 약 六천만명의 사람들이 망라되여 있었다。 쏘련에서는 대략 세사람에 한사람씩은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 수다한 선진적 기업소들(쓰딸린 명칭 자동차 공장、깔로므나 기관차 제작 공장、우랄 기계 제작 공장、칼·맑쓰 명칭 레닌그라드 공장、꾸빠빈 박라사(薄羅紗)공장 등등)에서는 로동자들의 현저한 부분이 七학년 교육 또는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쏘베트 출판물、라디오、영화、문학、예술、과학 등 전체 쏘베트 사회주의적 문화는 쏘련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국경을 넘어서까지 점점 더 장성하는 영향을 뵈여 주고 있다。 쏘베트 영화 필림과 문학、예술 작품、과학적 로작과 교과서 등은 외국 특히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수백만 사람들의 공동의 재산으로 되고 있다。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순결성을 위하여、무사상성、객관주의、민족주의、꼬쓰모뽈리찌즘、기타 사상、문화 령역에서의 변종들을 반대하여 전개하는 투쟁은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투쟁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후 년간에 수 많은 탁월한 문학、예술 작품들과 또 과학적 로작들이 창작되였는바 이것들은 쏘베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교양하고 있으며 그들 앞에 공산주의 건설의 광활한 전망을 열어주고 있으며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쏘베트 사회가 달성한 성과들을 진실하게 뵈여 주며 쏘베트 생활에서의 곤난과 결함들을 드러내 보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과업들의 해결에로 근로자들을 추동하여 줄 사명을 지니고 있다。 위대한 레닌은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 도취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유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현실을 음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로에서 부닥치는 곤난과 모순을 과장하는 것도 유해하며 우리의 거대한 성과를 과소 평가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우리의 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것, 병적인 것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도 유해로운 일이다. 쏘베트 사회는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낡고, 자기 시대를 다 살고난 것을 반대하는 새 것의 승리적 투쟁을 드러내 뵈여 줄 것을 쏘베트 문학과 예술에 기대하고 있다. 쏘베트 사회는 쏘베트적 생활에서 광범하게 볼 수 있는 사회주의적 로동과 공산주의적 도덕의 훌륭한 실례들을 문학과 예술들이 선명하게 그려내여 줄 것을 요구한다.

공산당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퇴각을 의미하는 소위 무갈등의 리론이 예술과 문학에서 오래동안 행세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바이다. 이 『리론』은 또한 철학과 정치 경제학에서도, 문학론과 예술학에 있어서도 표현되였다. 이 『리론』에 의한다면 쏘베트 사회에서는, 모순은 오직 좋은 것과 보다 좋은 것과의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바 그 리유는 쏘베트 제도가 마치 자동적이여서 단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써 모든 나쁜 것을 배제하며 따라서 쏘베트 사회에는 마치 새 것과 낡은 것과의 사이에 첨예한 모순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니만큼 더욱 그들 사이에 갈등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유해로운 리론이 전파됨과 관련하여 문학과 예술의 개별적 작품들에서는 특히 꼴호즈 농촌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현실을 분식(粉飾)하는 일들이 있었다. 례하면 『꾸반 까자크들』, 『풍요한 여름』과 같은 영화에서와 꼴호즈 농촌에 관한 일부 문학 작품들에서는 꼴호즈 농민들의 생활이 축연(祝宴)이나 즐거운 산보 등등으로써 끝을 맺는 전면적 풍요와 완전한 만족으로 묘사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꼴호즈들의 생활에서의 부정적 현상들을 폭로 제거하며 일련의 경리 부문에서의 공동 생산의 락후성, 로동 규률의 문란,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위반 등등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았다. 일부의 예술 및 문학 활동가들은, 예술의 임무는 우리들의 생활에서의 전형적 현상들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면서 그 중에서 부정적 성격을 띤 현상들을 반대하여 예리한 비판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망각하였다. 부정적 현상들은 쏘베트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전형적일 수는 있는 것이다.

공산당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외곡, 생활적 진리로부터의 퇴각은 또한 일부의 문학, 예술 작품들에서 쏘베트 사회에서의 병적인 현상들을 자연주의적으로 로출시키는 데서도 표현되였다. 그러한 작품들에서는 새 것과 낡은 것, 선진적인 것과 락후한 것간의 투쟁, 진실한 사람들과 허위적인 사람들 간의 투쟁에서 낡은 것, 허위적인 것, 침체한 것이 주도적 측으로 등장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베트적 생활을 외곡되게 묘사한 작품들로서는 르·조린의 『방문객』, 느·비르따의 『뽐뻬예브의 멸망』, 아·마리엔고프의 『태자』 기

타 쏘베트적 현실을 시커먼 도료로 그려놓은 희곡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희곡들은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제 원칙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퇴각이며 현실을 그의 모순들에서, 혁명적 발전에서 진실하게, 전면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묘사하라는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요구로부터의 직접적인 퇴각인 것이다.

잡지 『새 세계』에는 일련의 평론 론문들(브·뽀메란쩨브, 프·아브라모브, 므·쉐글로브 기타의)이 게재되였는바 거기에서는 쏘베트 사람들의 생활을 묘사한 거의 모든 작품들을 비난하고 있다: 지어는 르·레오노브의 『로씨야의 숲』 기타와 같은 최근에 나온 탁월한 작품들까지도 『망탕 비난을 받고 있다』. 쏘베트 작가들은 쏘베트적 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것을 뵈여 주고 폭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쏘베트 사회의 선진적 활동가들의 형상은 높이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일부 평론가들은 프·아브라모브와 같이 쏘베트 문학에서 창작된 긍정적 인물들의 형상을 비방하며 조소하려고 시도하였다. 브·뽀메란쩨브는 문학 작품의 가치의 주되는 기준은 성실성이라고 선언하면서 실지에는 성실성 대신에 쏘베트 사회에서 매일매시로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에 대한 속물적인 무차별성을 슬적 바꾸어 놓았다. 성실성은 물론 진정한 예술 작품의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성실성에도 호상 대립되는 것들이 있다. 모든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을 증오하는 원쑤들의 성실성과는 달리 쏘베트 예술가, 작가들의 성실성은 인민의 리익에의 헌신성 및 모든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여 있다. 브·뽀메란쩨브와 기타 일부의 문학가들은 문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산주의적 사상성, 당성이며 이것은 이미 진정한 성실성——주관적, 『내면적』 감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면적이고 심각한 맑쓰주의적 리해에 기초한——을 예상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일부의 쏘베트 작가들과 예술 활동가들이 한 극단으로부터 다른 극단에로, 례하면 『무갈등론』으로부터 병적 현상을 꼬집어 파는 자연주의적 경향에로 갑자기 기울어지군 하는 사실은 일부 작가들과 평론가들의 사상—정치적 미숙성, 리론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문학, 예술 일꾼들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더욱 심각하게 소유하여야 할 필요성을 증시해 주는 것이다.

광범한 쏘베트 사람들 속에서는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쏘베트적 생활 양식의 사회주의적 원칙들이 발전되였으며 확립되였는바 그것은 쏘베트 사회의 대다수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다. 비도덕적 현상들——알콜 중독과 방자(放恣), 건달 습성과 로동에서의 무조직성, 탐욕과 리기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방, 중상과 기타의 비렬한 행위들에 대한 쏘베

트 사람들의 비타협성이 날카롭게 강화되였다。 그런데 한편 정기 간행물들과 당、로동자、꼴호즈원들의 회의들에서 제기되고 쏘베트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수다한 도덕적 문제들이 우리의 리론적 로작들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고 웅당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학 작품들과 기타의 예술 작품들에서 훌륭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당은 개별적인 쏘베트 사람들의 의식에서의 민족주의의 잔재를 반대하는 진격을 강화하였다。 개별적인 문학、예술、력사 과학 작품들에 나타난바 쏘련의 제 인민을 호상 분리시키며 현재 그들을 통일시키고 있는 그 무엇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그들을 분렬시켰던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며 쏘베트 시기에 들어와서의 그들의 문화의 달성을 과소 평가하며 쏘련 제 인민의 문화를 외국의 영향의 결과로 묘사하며 그것을 선진적 로씨야 문화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등등의 시도들이 폭로되였다。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에 의하여 수행된 꼬쓰모뽈리찌즘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거대한 의의는 이를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과대 평가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투쟁의 결과로 쏘련 제 인민의 력사에 관한 애국주의적、과학적 로작들이 창작되였으며 과학 및 문화의 력사에 있어서 세계 문화의 여러 부문들에서의 로씨야 인민의 선진적인 과학적、철학적 및 사회적 사상의 선도적 지위와 그들의 문학、예술의 천재성과 위대성이 증시되였으며 부르죠아 제도와 부르죠아 문화에 대한 쏘베트 제도와 그 문화의 우월성이 새로운 힘으로써 천명되였다。

꼬쓰모뽈리찌즘을 반대하는 투쟁은 자기 인민의 문화 유산에 대한 존중 뿐만 아니라 다른 인민의 문화 유산에 대한 존중도 또한 예상한다。 그런데 어떤 개별적 리론 일꾼들은 꼬쓰모뽈리찌즘을 반대하는 투쟁을 서구라파 철학 및 과학의 연구의 거부로、서구라파의 과학적、사회적 및 철학적 사상 일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리해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레닌주의와 모순된다。 레닌은 우리들에게 세계 문명의 유산들을 쏘베트 인민과 세계의 다른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도록 비판적으로 개작하면서 이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쏘련은 국제적 규모에서의 위대한 력량이며 쏘베트 학자들과 예술 활동가들 앞에는 국제적 성격의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과업이 나서 있다。 쏘련의 문학가、학자、예술 활동가、철학자들이 아니고 그 누가 과거의 과학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설명을 줄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쏘베트 사람들에게는 외국의 형제들이 현대 부르죠아 반동으로부터 진보적인 민족적 전통——그중에는 제 인민의 가장 우수한 철학적 전통까지도——을 고수하는 것을 방조해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는 과학 령역에서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반대하여、관념론、형이상학 기타 부르죠아적 세계관의 변종들의 발현을 반대하여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당의 향도적 지도하에서 철학、생물학、생리학、언어학、정치 경제학 및 기타의 과학 부문들에서의 과학적 토론회가 진행되였는바 그 결과 이러한 학술 령역에서의 부르죠아적 세계관의 발현에는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다。 이것은 쏘베트 생물학자、생리학자、언어학자、철학자、경제학자 및 기타 과학 부문 학자들이 더욱 심오하게 맑쓰주의를 소유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이로써 현대 과학의 기본 문제들의 진정한 과학적 취급 및 해결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조건하에서는 과학에서의 토론은 대부분 유일한 과학적、유물론적 세계관의 테두리안에서의 의견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례하면 우주 발생론의 문제에 관한 토론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에서의 적대적 세계관의 영향을 반대하는 투쟁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적 의식의 다른 임의의 령역에서와 같이 과학에 있어서도 외부로부터 즉 자본주의 국가들 측으로부터와 그리고 내부로부터 즉 쏘베트 주권에 적의를 품은 그루빠들의、당에 의하여 진멸되지 않은 잔재들 측으로부터의 적대적 견해、사상 및 기분들이 우리를 침습하는데 대하여 우리가 보장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당 중앙 위원회와 당 출판물은 최근 년간에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저해하는、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련의 외곡、선전 사업 및 리론 사업에서의 결함들과 오유들을 적발하였다。 이것은 례하면 일부의 리론 일꾼들과 선전원들 및 실지 사업 일꾼들에게서 사회주의에 대한 소부르죠아적、유토피아—균등주의적、관념론적 리해가 나타난 사실에서 표현되였다。 그들에게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마치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개인적 리익과 그들의 물질적 관심 및 보장이 하등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회 제도인 것처럼、다만 대중적 열성과 우수한 조직에만 기초하는 사회 제도인 것처럼 뵈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개인적 리익은 마치 사회적 리익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처럼 간주하면서 개인적 리익을 위해서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균등주의적、소부르죠아적 사회주의 리론에 비슷한 것이다。

다른 일꾼들은 또 리론적 론문들과 강의들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발전의 중요한 자극으로서의 로동자 및 꼴호즈원들의 물질적 관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잡갔다』。

일부의 일꾼들은 다만 성과들에 대하여서만 말하는데 습관되여 결함들과 곤난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회피하고 쏘베트 공민들이 향유하는 특전들과 우월한 점들에 대하여 말하는 편을 택하면서 로동 규률 강화, 매개 로동자들에 대한 요구성의 제고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기피한다.

리론적 사업 및 선전 사업에서는 가끔 주관주의와 아직 지나가지 않은 발전 단계를 『뛰여 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 사실 상업으로부터 직접적 생산물 교환(이것은 미래의 일이다)에로의 이행의 과업이 마치 오늘날의 현실적 과업인 것처럼 그릇되게 리해되였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즉시로 이 과업을 실천에 옮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는바 여기에서 그들은 쏘베트 상업을 백방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망각하고 있다.

어떤 개별적 론문, 강의 및 문학 작품들에서는 꼴호즈원들이 개인 부업 경리를 그만두기 위한 객관적 전제 조건들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이때에 그것을 즉시로 그만둘 것을 선전하고 있다. 꼴호즈원들의 개인 부업 경리는 꼴호즈의 공동 경리 발전을 장해한다는 유해로운 관념 및 이와 관련하여 꼴호즈 농민들의 부업 경리를 침해한 사실들은 농촌 경리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는바 이러한 것은 당 정책과 농업 아르쩰리 규약의 요구에 모순되는 것이다.

선전 사업 및 리론적 사업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적 로동의 진정한 역할이 언제나 반드시 정당하게 특징지어지지는 않았으며 또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의 절멸을 위해서는 로동자들이 물질적 생산 분야로부터 다른 활동 분야로 넘어가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으로 물질적 생산에 종사하는 산업 및 농촌 경리 로동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지적(知的)로력 일꾼들의 문화—기술 수준에까지 점차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쏘련의 거의 모든 로동자, 농민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교양있는 사람들로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지에 이 력사적 과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중등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에는 육체 로동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가 조성되였으니 농촌 경리 및 산업에서의 생산 로동을 『천한』로동, 『최하급』의 직업 등등으로 보는 소부르죠아적 견해가 발로되였다. 높은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중등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분—비록 상당히 많은 수효이기는 하지마는—만이 고급 학교들에 채용될 수 있게 되여 있다. 뿐만 아니라 쏘베트 사회와 쏘베트 인민의 리익은 중등 학교 졸업생들의 상당한 수효가 산업과 농촌 경리에 흡수되여 생산으로부터 유리됨이 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당 단체들은 국가 기관들의 간소화 및 개선과 관련하여 기관 사업으로부터 해방되는 일꾼들이 직접 생산 로동에로, 산업 기업소들과 엠·떼·에쓰, 쏩호즈들에로 넘어갈 필요성을 리해하게끔 국가 기관 근무자들 사이에서 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비속화로서 들어야 할 것은 또 일부의 리론 일꾼들 및 선전 일꾼들이 분배의 문제를 첫자리에 내세우는 사실이다.

어떤 철학자들과 경제 학자들은 자기들의 론문들에서나 강연들에서 수요에 의한 공산주의적 분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것인가를 추상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적 분배에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생산 수단의 생산을 훨씬 증대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확대하며 그리고 로동이 쏘베트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첫째가는 생활적 요구로 되는데까지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려에 넣지 않으면서 공산주의적 분배는 빵의 무료 분여로부터 혹은 무료 운수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등등으로 추상하였다.

집단적 소유 형태를 가진 농업 아르쩰리는 마치 현재 이미 사회의 생산력 발전과 모순되게 된 것처럼 말하며 따라서 꼴호즈적—협동 조합적 소유를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전 인민적 소유로 전변시켜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개별적 리론 일꾼들 및 선전 일꾼들의 론의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비속화이다. 실제에는 꼴호즈들을 조직적—경제적으로 강화하는 투쟁을 약화시킬 따름인 이와 같은 『좌경적』, 몽상가적 견해를 비난하면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一九五三년 九월 전원회의 결정에서, 꼴호즈의 아르쩰리 형태는 사회주의의 전기간을 통하여 집단 경리의 유일하게 정당한 형태라는 것을 명백하고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적 명제들의 외곡은 또한 객관적 경제 법칙들의 주관주의적 취급 및 관념론적 개인 숭배에서도 발현되였다. 맑쓰—레닌주의의 원칙들에 충실한 쏘베트 사람들은 당과 더불어, 개인 숭배를 비난하였으며 쏘베트 나라를 영명하고 믿음직하게 레닌의 길로 인도하는 공산당과 쏘련 공산당의 집체적 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쏘베트 과학에서는 맑쓰주의를 비속화하며 외곡하는 일부 자들과의 토론을 위한 여지를 주어서는 안된다. 일부의 경제학자들(예·까찌모브쓰끼, 삐·므쓰찌쓸라브쓰끼, 드·꾸즈네쪼브, 아·빨리쩨브 기타)은 맑쓰주의 경제 학설에서의 정초(定礎)적 원칙들 중의 하나인—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는, 특히 사회주의하에서는 제二부문(소비재 생산)에 대한 제一부문(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적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명제를 재검토하려고 시도하였다.

중공업의 백방으로의 급속한 발전이야말로 전체 인민 경제와 불패의 국방력의 확고한 기초라고 언제나 간주하였으며 또 간주하고 있는 당의 총 로선을 수정하면서 이 경제학자들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위적 발전에 관한 명제는 마치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과 모순되게 되였다는 듯이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을 해석하면서 이를 비속화하였다. 『…우리 당이 쏘베트 인민의 전 력량을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과업의 해결에로 돌리고 있는 현시의 조건하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발광적으로 전쟁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러한 반레닌주의적 견해의 선전은 특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느·쓰·흐루쑈브).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외곡은 그것이 아무리 『비난의 자유』 또는 『의견 투쟁』이라는 깃발로써 자체를 음폐한다 할지라도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묵과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쏘베트 인민에게는 인연이 없는 것이며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맑쓰—레닌주의 사상의 보물고의 모든 재부를 부단히 그리고 심각하게 연구하며 생활을 인식하는 데 그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데올로기적 오유와 외곡을 피할 수 있으며 쏘베트 문화를 가일층 앙양시키고 그 성과들을 전 세계에 보급시킬 수 있으며 세계 과학에서의 첫자리를 위한 투쟁에서 쏘베트 학자들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전후 년간에 있어서의 쏘베트 과학은 력사적인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쏘베트 과학의 이 성과들은 전체 쏘베트 학자들에게 과학과 생산과의 긴밀한 련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며 과학의 여러 부문들에서 아직도 발현되고 있는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진출할 것을 각별히 책임지우고 있다. 생물학과 농업 경제학과 같은 쏘베트 과학의 그런 선진적 부문들에 있어서조차 농업 생산의 장성하는 실천적 요구로부터의 락후성과 이러 저러한 과학 리론들에 대한 교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실례로 되는 것은 윌리암쓰의 목초—곡물 순환 경작법을 나라의 모든 구역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실이였다. 생물학 및 농업 경제학에서는 의견 투쟁이 약하게 전개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꼬무니쓰트』는 『과학과 생활』이라고 제목한 자기의 권두언에서 생물학 기관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감히 비판적 언사를 던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모조리 와이즈만—모르간주의자니, 반맑쓰주의자니 하는 등등의 끄리표를 부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농업 생물학의 활동가들이 범한 오유나 그들의 결함에 대한 공정한 비판이 아직도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은 일부의 와이즈만—모르간주의 지지자들에 의하여 이 반

동적 리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시도에 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운명지어져 있다. 쏘련에서 이 관념론적, 반동적 조류가 부활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소생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는 쏘련의 학자들과 전 쏘베트 사회층으로부터의 항거에 부닥치고 있다.

과학적 비판의 발전은 각이한 관념론적 편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조건하에서라야 유효하고 성과적으로 될 수 있는바 이러한 편향들은 최근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연 아직도 례하면 철학의 대상은 다만 인식론에 국한되여야 한다, 즉 철학은 자연과 사회의 어떠한 일반적 법칙도 연구하지 않는다는 듯이 주장들을 하는 『견지』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적 철학가들, 그리고 또한 일부의 수학자, 물리학자들도 옳지 못한 견지를 지키면서 자연 과학은 스스로 자기의 철학적 방법론을 작성해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실증주의자들 (『과학은 그 자체로서 철학이다』 등등)의 길에 들어 서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데올로기 사업에서는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적, 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의 투쟁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 * *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는 무엇보다도 중공업의 발전의 높은 템포를 보장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중공업, 이것은 그 토대 우에서만 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들이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민 경제의 기초의 기초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一월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의 계속 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쏘베트 인민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전체 쏘베트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살게 하며 그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매일같이 장성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며 확장할 것이며 농촌 경리를 가장 선진적 기술과 최선의 간부들로써 장비할 것이며 전체 인민 경제를 전기화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은 쏘베트 사람들 앞에 로동 생산성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생산에서의 선진 분자들, 혁신자들의 경험을 전체 근로자 대중에게 보급시키며 쏘베트 나라에서 창조된 위력한 사회주의적 기술의 완전하고 철저한 소유와 리용을 보장할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당은 쏘베

트 국가의 기술적、경제적、군사적 및 정치적 위력을 더욱 더 강화하며 제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사업 및 문화 사업 활동가들의 임무는 이 전 인민적 과업 해결에로 전체 쏘베트 사람들을 고무 추동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운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적인 것、침체한 것、락후한 것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그들의 력량을 돌리게 하는 데 있어서 당을 방조하는 것이다。

(『철학 제 문제』 一九五五년 제一호에서)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빈궁화

강 계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근로자들의 처지는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쓰딸린은 자기의 로작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 문제』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주요 제 특징 및 제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소여의 나라의 인구의 대다수의 착취、령락 및 빈궁화、다른 나라들 특히 락후한 나라의 인민들의 노예화 및 계통적 략탈、끝으로 최고 리윤의 보장을 위하여 리용되고 있는 전쟁 및 국민 경제의 군사화에 의한 최대한의 자본주의적 리윤의 보장』이라고。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은 독점 자본에 대하여서는 최대한의 리윤의 법칙이지만 그와 반대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최대한의 빈궁의 법칙으로써 표현된다。맑쓰는 『자본론』 제一권에서 잉여 가치 법칙、자본주의적 리윤의 발생과 증대의 법칙、자본의 축적의 법칙이 로동 계급의 빈궁화의 법칙으로 표현되는데 대하여 과학적으로 상세히 론증하였다。

독점 자본주의의 제 조건에서 최대한의 리윤 법칙은 로동 계급에 대하여 그의 절대적、상대적 빈궁화의 강화、독점 자본의 착취에 의한 략탈、전쟁 및 경제의 군사화에 의한 극도의 빈궁화로써 표현된다。여기에 최대한 리윤 법칙의 계급적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전체 생산이 인민에게 그리고 그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복종되는 사회주의 사회와는 달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인간은 독점체들의 최대한의 리윤 획득을 위한 무자비한 법칙에 종속되게 되며 빈궁、실업、류혈적 전쟁、고통과 재난 속에서 신음하게 된다。

* * *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본국의 대다수 주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그들을 파산과 빈궁에 몰아 넣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모든 수단을 다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 와서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얼마나 강화되였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실례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 상업성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회사들이 매개 미국 로동자들로부터 짜내는 잉여가치는 一九三九년에 四백 一一딸라였다면 一九四四년에는 九백三三딸라, 一九五二년에는 一천 七백九六딸라로 증대되였다. 이와 같이 착취가 강화된 결과 오늘 미국 로동자들은 자기가 생산한 가치의 五분의 一 내지 六분의 一밖에 받지 못한다. 이는 오늘 미국 로동자들이 하루 八시간 로동을 한다면 자기를 위하여서는 한시간 반, 자본가를 위하여서는 六시간 반을 일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가는 각종 형식으로써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더 확대한다. 로동 강도의 제고는 그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바 자본가들은 로임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로동의 긴장화를 더욱 더 강요하는 비인간적 각종 방법을 적용한다. 례를 들어 미국에서는 테일러 시스템, 포드 시스템 등 로동 제도가 광범히 실시되고 있는바 일찌기 레닌은 이와 같은 제도를 「과학적」으로 피 땀을 착취하는 제도라고 불렀다.

자본가는 로동자들의 로동을 전문적으로 재촉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포드 공장에서는 일초의 시간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자동 기계를 리용하여 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또 이 공장에서는 로동자들의 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영화 촬영사들로 하여금 비밀리에 공작 정형을 촬영하게 한다. 공장의 행정 당국은 매개 로동자들의 로동하는 형편이 촬영되여 있는 필림을 보고 만약 어느한 로동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를 해고한다.

자본주의 나라 기업소들에서 비생산 부문 일꾼들의 수가 로동자의 수에 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것은 로동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표식으로 된다. 자본주의 독점체들은 비생산 부문 일꾼들을 동원하여 로동자들을 강박함으로써 일을 독촉하게 한다. 一八九九년에 미국 가공 제조업의 비생산 부문 일꾼의 수가 로동자 수의 七·七%를 차지하였으나 一九五四년에는 二三% 이상으로 제고되였다.

로동 강도의 강화로써 자본가는 동일한 시간 내에 로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착취한다. 그러나 반대로 로동자들은 五년 내지 一○년 간의 긴장한 로동을 한 후에는 반폐질자로 되여 공장에서 축출 당하든가 로임이 매우 낮은 보조 로동 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로동 보호 및 안전 기술 시설을 위한 지출은 감소시키면서도 로동 강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추가 리윤을 얻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불상사고 건수와 직업병자 수는 급격히 증대된다. 자본주

의 국가들에서의 불상 사고와 폐질자 수는 특히 전후 시기에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미국 로동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불상 사고는 一九三八년에 一三七만건이였는 데 전후 시기인 一九五一년과 一九五二년 두해 동안에만도 작업시 불상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로동자의 수는 三만 一천명에 달하며 폐질자 수는 四一○만(그중 一七만 五천명은 영구 폐질자)을 초과하였다. 一九五三년에 이태리에서의 작업시 불상 사고 건수는 九四만 三천 八四○건이였던 것이 一九五四년에는 一○八만 六천 八五三건으로 증대되였다. 서부 독일에서는 一九五四년 한해 동안에만 하여도 불상사고 건수와 직업병자 수는 二二○만에 달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빈궁화가 증대됨에 따라 녀성 로동과 소년 로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二차 세계 대전 전에 녀성은 一전 공업 부문 로동자의 二五%를 차지하였었는데 一九五一년에는 그 수가 三一%로 증대되였다. 영국에서는 같은 기간에 녀성 로동자의 비중이 二七%로부터 三三%로 증대되였다.

자본가들은 녀성 로동자들을 리용하며 그들의 로임을 남성 로동자들에게 비하여 저하시킴으로써 거대한 추가 리윤을 획득한다. 一九五一년 미국 녀성 로동자들은 남성 로동자와 같은 로동을 하고서도 四一%나 더 적은 로임을 받았다. 같은 해에 남성과 동일한 로동을 하면서도 영국 녀성 로동자들은 四六%, 서부 독일 녀성 로동자들은 四二%, 이태리 녀성 로동자들은 四○—六○%나 더 적은 로임을 받았다.

자본가는 값싼 로동력을 추구하여 자기 공장에서 나어린 소년 로동을 광범히 리용하며 비인간적으로 착취한다. 소년 로동은 근로 인민의 빈궁화의 가장 선명한 표현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一四세부터 一七세까지의 소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고용 로동을 하고 있는바 一九五四년에 근로 대중의 자녀들 중에서 二○○만의 어린 학생들은 고용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一九四五년부터 一九五四년까지의 전후 시기의 一○년 간에 미국의 생산 부문에서 로동하는 아동의 수는 二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태리에서는 가장 중하고 유해로운 로동에까지 소년 로동력을 리용하고 있다.

인종 차별도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토착민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하여 비인간적인 인종 차별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레닌은 미국 흑인의 지위는 문명 국가의 치욕이라고 말하였다. 흑인 로동자들은 백인 로동자들에 비하여 더 힘든 일을 하지만 로임은 백인들의 六○%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이와 같은 인종 차별적인 로임 제도에 의하여서만도 매년 四○억 딸

라의 추가 리윤을 획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 뿐만 아니라 인도인、 멕시코인、 유태인、 중국인들도 참혹한 인종 차별과 민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인종 차별을 백인 로동자들의 로임을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업 현상은 근로 인민의 빈궁화의 주요 표징의 하나이다。 실업 현상의 격화는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의 중요 특징의 하나로 된다。

제二차 세계 대전 행정에서와 그 후에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결과 자본주의 세계 시장이 더욱 협소하여 졌다。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축소는 기업소들의 만성적인 불완전 조업을 초래하였으며 기업소들의 불완전 조업은 만성적인 실업 상태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전체 종업원 수에 대한 실업자 수의 비중이 관방 통계에만 의하더라도 一九二九년에 一一%였다면 一九五五년에 와서는 二六% 이상으로 증대되였으며 이태리에 있어서는 一九三七년에 一三%였던 것이 一九五一년에 이르러서는 二五%로 증대되였다。

제一차 세계 대전 전의 미국 실업자 수는 一二三〇만명이였었는 데 一九五四년에 와서는 완전 및 불완전 실업자 수가 一、六〇〇만명으로 증대되였다。 영국의 실업자 수는 一九四四년부터 一九五〇년까지의 기간에 三배반으로 증가하였으며 불란서의 실업자 수는 一九四九년부터 一九五〇년까지의 기간에 六배로 증가하였다。

격화되는 실업 상태는 로동자들에 대하여는 기아와 죽음을 의미하지만 자본가들에 대하여서는 거대한 리윤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된다。 왜냐 하면 자본가들은 이 조건을 리용하여 로임을 최저한도로 저하시키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로동자들과 로쇠한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 대신 더 온순하고 원기 생생한 로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가들은 만성적 실업 상태를 리용하여 로동 강도를 극도로 강화함으로써 로동 시간을 단축하여 적은 로임으로써 더 많은 리윤을 획득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 매일 三—四시간의 로동 시간 밖에 차례지지 않는 반실업자의 급격한 증대는 바로 이에 기인되는 것이다。

반동적 부르죠아 출판물들은 만성적인 실업 상태를 자본가들의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공공연히 인정하면서 실업자 수를 더 많이 증가시킬 것을 철면피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업 상태가 격화됨에 따라 취업 로동자들의 생활 형편도 악화되며 그들의 실질 임금도 부단히 저하된다。

독점 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 부면에서 뿐만 아니라 류통 부면에서도 근로자들을 략탈한다。 독점체들은 실제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독점 가격을 설정하여 근로 인민들을 략탈함으로써 거대한 추가 리윤을 획득한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통화 팽창에 의한 고물가 정책은 독점체들이 거액의 리윤을 얻는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된다。 주요 자본주의 제국가 독점체들은 전후 시기 특히 조선 전쟁 도발 후에 군비 경쟁과 물가 등귀와 세금 증가 등으로써 근로자들의 무거운 생활비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독점체들은 물가 중에서도 특히 대중 소비품 가격 및 기타 생활비를 등귀시키고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저하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략탈한다。 미국에서는 一九五一년에 생활 필수품인 빵、 뻐터、 사탕、 감자 가격은 一九三七년에 비하여 二배내지 二·五배로 증가되였으며 같은 기간에 의복、 신발은 二·五배、 고기는 三배로 증가되였다。 집세、 까스 및 전기 료금、 전차、 뻐스、 기차 등의 교통비도 비상히 등귀되였다。

세금의 증대、 물가 등귀는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과 구매력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一九五一년도의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전전에 비하여 영국은 八〇%、 불란서、 일본、 이태리는 五〇% 미만이다。 독점체들은 최대한의 리윤 추구를 위하여 로동력 가치보다 매우 낮은 임금을 지출함으로써 로동자들을 빈곤한 반기아 생활을 하게 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로임은 부르죠아 통계가들이 계급적 대립을 음폐할 목적으로 산출해낸 최저 생활비보다도 더 낮다。 최저 생활비에 대한 로임의 비중을 본다면 미국(一九五〇년)은 七二%、 서부 독일(一九四九년)은 六三%、 이태리(一九五一년)는 五〇% 밖에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빈궁의 격화는 생활 필수품 특히 식료품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써 표현된다。 一九五三년에 미국에서의 뻐터 소비량은 一九二九년의 대 공황 시기에 비하여 五〇%이상 감소 되였으며 치즈 소비량은 一九五三년 한해 동안에만도 一一·三%나 감소되였다。 영양 가치가 있는 식료품 소비는 감소되는 반면에 영양 가치가 적고 품질이 저급한 인조 식료품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一九五三년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조 뻐터의 소비가 전전에 비하여 二배반으로 증가되였다。 근로자들의 식료품 소비량은 감소되고 그 질은 저하되여 수천만 실업 및 반실업자들이 기아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빈궁화는 주택 난에서 도 명백히 표현된다。 미국 호적국의 자료에 의하면 一九五三년에 미국에는 전국 인구의 二八%를 차지하는 四천八백만 이상의 주민들이 빈민굴과 비위생적인 파괴되고 불결한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수백만명이 집이 없이 각지를 류랑하고 있었다。 오늘 자본주의 문화와 『미국

식 생활 양식』을 자랑하는 뉴욕시에서는 一백만명의 주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이 방황하고 있으며 二백만 명의 주민들이 빈민굴에서 살고 있다。 이 빈민굴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六〇%는 폐결핵에 걸려 있다。

영국、불란서、이태리 등 기타 자본주의 국가 대도시들에서도 이와 같은 비위생적이며 온갖 질병과 전염병의 온상으로 되고 있는 빈민굴이 존재한다。 빈민굴조차 차례지지 않는 자들은 류동하는 화차 속에서도 살고 있다。 영국에는 화차 속에서 살고 있는 류동 인구만도 三〇만을 초과한다。

일본、서부 독일、영국 등의 미군 주둔 지구들에서는 미군의 군사 기지 설치와 관련하여 수백만의 주민들이 축출 당하여 거주할 곳 없이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 수는 一九五三년에 영국에서는 二백 五三만명 이상에 달하였다。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은 최저 한도의 식량과 주택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각종 질병에 신음하고 있으나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회 보험 제도란 없으며 의료비는 굉장히 높다。 一九五三년의 미국 관방 통계에 의하면 九、七〇〇만의 미국인들이 치료비가 없어서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속수 무책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독점체들과 금융 재벌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면서 근로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그들을 령락 시킨다。 독점체들과 금융 재벌들에 의한 토지 점탈、근로 농민들과의 노예적인 수매 계약 체결、농산물에 대한 낮은 가격의 설정、공업 제품 특히 농기구、기계 및 비료에 대한 높은 독점 가격의 제정、고리 대금 및 지대의 증가 등 정책은 농민 대중의 빈궁화와 그의 령락 과정을 촉진시킨다。

자기의 땅을 빼앗긴 중 소농민들은 방랑하는 농업 로동자들의 대렬을 부단히 보충한다。 미국 농업성이 평가한 데 의하면 一九四二년부터 一九五二년에 이르는 一〇년 동안에 농토에서 구축 당한 농호 수는 七〇여만 호에 달한다。 그러나 농업 위기가 더욱 격심하여진 一九五三년 이후에는 단 두해 동안에만도 一三八만 九천호의 농호가 몰락되여 구축되였다。 현재 미국에는 의지할 곳 없이 류랑하면서 반거지 생활을 하는 농업 로동자만 하여도 二백만을 초과한다。

❁ ❁ ❁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최대한의 리윤 획득을 위하여 다른 나라 특히 락후한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을 계통적으로 략탈하며 노예화한다。

레닌은、제국주의 시기에는 식민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독립 국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재정 및 외교 방면에서 타국에 의존하고 있는 예속국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식민지 및 예속국들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이다。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 락후한 봉건적 생산 관계를 유지하며 그 나라들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식민지 및 예속국들을 자기들의 영원한 상품 및 자본 수출 시장으로、원료 략탈지로 유지하려 한다。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의 예속 자본가 및 봉건적 토착 지주들과 결탁하여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바 그 결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은 풍부한 자연 부원과 로동 후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 당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빈궁화는 극도에 달하여 수천 수백만 인민들이 기아 선상에서 헤매이고 있다。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극단한 빈궁화는 우선 이 나라들의 국민 수입이 극히 낮은 데서 똑똑히 볼 수 있다。 一九四九년에 식민지 종주국들인 영국의 국민 수입은 七七三딸라、미국은 一、四五三딸라였다면 식민지와 예속 국가들인 파키스탄의 국민 수입은 五一딸라、비률빈은 四四딸라、리베리아는 三八딸라、타이는 三六딸라에 불과하였다。 식민지 예속 국가 근로 인민들의 극단한 빈궁화는 그들의 보잘 것 없는 임금 액수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실례로 一九五四년에 영국 식민지 게니야에서는 백인 로동자들의 임금이 五〇——一五〇파운드였다면 토착민 로동자들의 임금은 五——一〇파운드였다。 기타 많은 식민지 및 예속국 근로 인민들의 로임은 생활비의 절반도 못된다。

이리하여 많은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은 만성적인 기아에 빠지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대체로 三〇세를 넘지 못한다。 례를 들어 파키스탄에서는 평균 수명이 二七세에 불과하다。

식민지 및 예속국 인민들의 이와 같은 극단한 빈궁화는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국가들의 독점체들이 이 나라들에서 자연 부원을 략탈하고 이 나라 인민들에게 예속적인 무역 정책과 자본 수출을 강요하는 데서 더욱 심각화되여 가고 있다。

대다수의 식민지 예속 국가들은 광대하고 비옥한 농경지와 풍부한 지하 자원의 대부분을 외국 독점체들에게 강탈 당하고 있다。 실례로 남아프리카 련방에 있어서 전국 경지 총면적의 八七%는 구라파 독점체들에게 점유 당하고 있으며 八〇〇만 토착 주민들은 경지 총면적의 八%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도 대부분 경작이나 목축에 적당치 못한 척박한 토지들이다。 마레이 고무원의 四분의 三은 영국 독점 자본가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큐바의 사탕 생산의 五四%는 미국 독점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유나이테드 과실 회사는 코스타리카의 전 경지 면적의 三분의 一과 혼쥬라

스의 바나나 생산의 九〇%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라틴 아메리카 제국의 농경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국주의 독점체들에 의한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 대한 토지 수탈 정책의 결과 이 나라 인민들 특히 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범한 농민들이 대규모적으로 파산, 령락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 나라들에서는 실업자들이 더욱 더 증대되여 가고 있으며 또한 취업 로동자들의 생활 형편도 더욱 악화되여 가고 있다。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 대한 자본 수출을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자원과 로동력을 더욱 무자비하게 략탈하며 착취하고 있다。 특히 미제는 소위 「원조」라는 미명하에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 뿐만 아니라 서구라파의 일련의 나라들까지도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통치 계층은 자기네들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을 강압하여 민주 진영 제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실시하며 부등가 교환에 기초한 예속적인 무역 관계를 강요하며 각종 군사 조약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일련의 서구라파 제국에 대한 미제의 「마샬안」, 락후한 국가들에 대한 「제四항 원조」 및 최근에 몹시 선전하고 있는 「아세아에 대한 마샬 계획」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략탈적 및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대한의 리윤 추구와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려고 야망하고 있는 미국의 독점체들은 현대의 가장 반동적인 략탈자로 나서고 있으며 뒤떨어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산업 및 무역의 파괴자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패국들인 독일, 일본, 이태리의 시장 뿐만 아니라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약화된 영국, 불란서 및 기타 일련의 서구라파 자본주의 제 국가의 시장의 대부분을 탈취하고 있다。 미제는 덤핑의 방법에 의하여 자기 나라의 수출은 증대시키고 있으나 자국의 시장에 외국 상품들이 침투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구실밑에 민주 진영 제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감행함으로써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과 그의 식민지들을 사실상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파렴치한 부등가 교환으로써 그를 강탈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적 경제 정책은 미국과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제 모순을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는 이전의 종주국 독점체들과 함께 새로 침입한 미국 독점체들의 략탈과 압박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미제 점령하의 남조선, 일본, 서부 독일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피비릿내나는 팟쇼 통치 제도하에서 기아와 빈궁, 공갈, 테로의 생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二백만 이상(一九五五년 二월 현재)의 실업자들과 파산 당한 중소 기업가들과 농민들이 기아와 학대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 실업자의 이러한 증대는 남조선의 산업과 농업의 파괴를 반영하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일본에서는 一九五四년에 생활난으로 인하여 퇴학한 소 중학교 학생 수는 三四만명에 달하며 기아와 실업으로 인한 자살자 수는 매일 격증하고 있다。

* * *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자기 나라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착취하며 다른 나라를 략탈하는 것만으로써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대한의 리윤 획득을 위하여 좋은 「비지네스」로 되는 전쟁과 경제의 군사화를 리용하여 미증유의 규모로 근로 대중을 략탈한다。

독점체들은 제一차 및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거대한 리윤을 획득하였다。 두 차례의 대전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리윤을 얻은 것은 미국의 억만 장자들이다。 그들은 지어 영, 불과 같은 나라들까지도 자기의 조공자로 만들었다。 미국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통치 집단들은 전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축소 및 이와 관련하여 더욱 격화된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 진영 내의 모순을 타개하며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을 새로운 침략 전쟁 도발과 발광적인 군비 경쟁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 독점체들에 의한 경제의 군사화는 우선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인민 소득과는 관련없는 군사비에 지출하며 증대되는 이 거액의 부담을 세금 형태로써 인민들에게 부과시킨다。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세금의 급격한 증대는 전후 시기의 가장 전형적인 현상의 하나로 되고 있다。 一九三八년에 미국의 군사비가 一〇억 딸라였다면 一九五三년에는 五八三억 딸라로 증대되였으며 같은 기간에 미국인 매인당 세금 부담액은 八딸라로부터 五〇〇딸라로 격증되였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인들은 자기 수입의 三분의 一 이상을 세금으로써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제의 침략 정책을 추종하고 있는 북대서양 쁠럭 참가국들의 군사비도 격증되고 있다。 이 나라들의 직접 군사비는 一九四九년도에는 一八五억 딸라였던 것이 一九五四년에는 五六一억 딸라로 증대되였다。 미제의 예속하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제국에서도 군사비가 격증하였는바 아르젠틴, 브라질, 치리 및 콜롬비야 제국의 군사비는 전전 시기에 비하여 전후 시기의 최근 년간에 一〇——一五배로 증가되였다。 「중립국」이라고 하는 서서도 또한 「五개년 군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부 예산의 절반을 군사비에 충당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 정전 이후에도 계속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실례로 一九五五년도의 직접 군사비는 四一九억 딸라인바 이는 조선 침략 전쟁 三년 간의 직접 군사비의 매년 평균액 四一三억 딸라를 초과하는 것이다。 금년도의 영국의 군사비도 작년도에 비하여 一억 九천만 파운드를 초과하고 있다。 一九五五년도의 불란서의 군사비도 미국의 인도지나에 대한 군사 원조액을 고려한다면 그 전해보다 더 많다。

이와 같이 독점체들은 자기들에게 예속된 국가 기관을 리용하여 과중한 제금을 근로 인민들에게 부담시키고 국가 예산으로부터 거액의 군수품 주문、보조금、신용 대부 등등의 방법으로써 거대한 리윤을 획득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점체들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군수 공장 및 국가 자원에 대한 무상에 가까운 불하 또는 경영권 양도、감가 상각 적립금 면제、원료의 우선적 보장 등으로 막대한 리윤을 획득하고 있다。

독점체들은 국가 기관을 리용하여 전국의 공장、기업소들을 군사 감옥으로 전변시키고 로동 계급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비인간적인 착취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함으로써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한다。 이리하여 경제의 군사화 시기에 있어서 독점체들은 국가 기관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최대한의 리윤 추구를 거대한 규모로써 급속히 장성시킨다。 공식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 독점가들은 제二차 대전의 『황금 시기』까지 포함한 一九四五년 이전의 九년 간에 一、一九○억 딸라의 리윤을 획득하였다면 一九四五년부터 一九五三년까지의 八년 간에는 二、九九三억 딸라의 리윤을 획득하였다。 경제 위기가 심각화되는 조건하에서도 대독점체들은 군비 경쟁을 계속함으로써 자기들의 리윤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의 제네랄 모터스 회사의 리윤은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三억 一천 二백 八○만 딸라였던 것이 一九五四년 상반년에는 四억 二천 五백 二○만 딸라로 증대되였으며 같은 기간에 뉴·져지야·스탄다드 석유 회사의 리윤은 二억 六천 八백만 딸라로부터 二억 九천 二백만 딸라로 증대되였다。

전쟁과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독점체들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여 주지만 이는 더 큰 파괴력과 심각성을 가진 새로운 경제 위기를 조성한다。 제금 증대、물가 등귀、실질 임금 저하는 근로자들의 빈궁화와 구매력 저하를 더욱 더 촉진시킨다。 공업품과 식료품에 대한 인민들의 구매력 저하는 민수 공업과 농업을 위축시키며 우선 이 부문의 실업자와 상품 퇴적량의 증대를 동반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야기시킨다。 一九五四년에 미국에서는 팔리지 않아 창고에 퇴적된 상품량은 八○○억 딸라였다。 이외에도 미국 륙군에서만 퇴적된 상품들이 적어도 三五○억 딸라나 된다。 민수 공업의 위축은 민수 공업 부문、기계、원료

등을 생산하는 부문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는 야금 공업、기계 건조 공업、석탄 및 기타 공업 부문의 생산이 부단히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一九五三년 중기 이래 미국 공업 생산은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 그중 개별적 생산 부문의 저하는 더욱 격심하다。

미국에서 농업 위기는 더욱 엄중하다。 一九五三년 七월 이후 미국에서의 一년 간의 과잉 소맥은 五억 六천만 붓셸로부터 九억 三○○만 붓셸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과잉 면화는 七五% 증가하였다。 독점가들은 경제 위기로 인한 제 부담을 근로자들과 중 소부르죠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경제 위기시에 독점가들은 취업 로동자를 축소하고 임금을 인하하면서도 로동 강도를 제고시키며 중 소부르죠아들의 파산、령락을 촉진함으로써 계급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킨다。

미국 독점가들은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을 다른 나라들에 전가시키려고 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과잉 공업 산품들과 과잉 농산물들을 타국의 시장에 덤핑하면서도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하여 수입 제한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영국、불란서 등 일련의 서구라파 제국의 딸라 지구에 대한 수출은 부단히 감소되고 있으며 딸라 공황에 위협 당하고 있다。 미국의 과잉 농산물 수출로 인하여 미국과 농산물 수출 국가들인 카나다、호주、아르젠틴、브라질 등 제국들과의 모순은 격화되고 있다。 미국 독점체들은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 산출되는 원료의 가격을 저하시키며 수입량을 감축함으로써 이 나라들에 대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명백히 뵈여 주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작용은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절대적 빈궁화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궁화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의 강화는 국민 소득 중에서 로동자 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다。 국민 소득 중에서 로동자 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一九五一년 이후 경제의 군사화와 경제 위기로 인하여 더욱 격심히 저하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궁화의 격화는 독점가들이 자국 인민들과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특히 전쟁과 국민 경제의 군사화를 통하여 국민 소득의 분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어서 최대한의 리윤 법칙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오늘처럼 빈부의 차가 격심한 시기는 없었다。 미국에서는 오늘 주민의 불과 一—五%가 전 국민 소득의 一七—三三%를 점유하는 반면에 전 주민의 二○%에게는 국민 소득의 三%가 겨우 배당된다는 것을 회상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빈부의 격심한

대립은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 계급 간의 모순과 투쟁을 더욱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로동 계급은 날로 악화되여 가는 생활 수준에 대하여、자기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까지 말살하려는 퐈쑈 통치 계층에 대하여 더는 참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전후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파업 운동은 날로 확대 앙양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고 있다。 사실을 외곡한 부르죠아 통계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의 파업 총전수는 전전 시기의 五년간 (一九三六—四〇년) 에는 매년 평균 一천 九백 六一건이였다면 전후 시기인 一九五四년에는 一월부터 九월까지의 九개월 간에만도 四천 三백여건으로 증대되였다。 미국、영국、불란서、서부 독일、일본、이태리 및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실업자 군의 증대、실질 임금의 저하와 함께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다。 부르죠아 출판물들까지도 一九五五년은 조선 전쟁 이후 로동 운동에서 『가장 다사한 一년』으로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파업 투쟁의 특징은 그의 선명한 정치성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절대 다수의 파업에 있어서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 투쟁과 민주주의적 권리 및 평화 옹호를 위한 투쟁을 결부시키고 있다。 정치적 리유로 진행되는 대규모적인 파업 투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실례로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과 불、미 제국주의자들의 월남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파업은 미국、불란서、일본 및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났으며 침략적 파리 협정을 반대하는 파업과 기타 각종 형식의 투쟁이 불란서、서부 독일을 위시한 구라파 각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전후 시기의 로동 운동은 공산당의 령도하에서 우익 사회 민주주의자들을 폭로 고립시키면서 로동 계급의 통일과 국제적 련대성을 날로 강화하는 조건하에서 다수 경우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또한 그 특징으로 된다。

전후 시기에 있어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식민지 체계의 위기를 더 한층 심각화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전후 시기에 중국、조선、월남 인민들은 이미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벗어 던졌으며 인도、인도네시야、 비르마가 식민지 제도를 파기하였다。

오늘 말라이、비룰빈、알제리야、튜니샤、모록코、케니야 등지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이 무장 투쟁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세아、아프리카 제국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더는 용허하려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야 반둥에서 一二억 인구를 가진 二九개국 대표들의 참가하에 개최되였던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는 이 국가들이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용허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명시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제국들에서도 오늘 빈궁과 실업을 반대하는 투쟁이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반미 투쟁과 결부되여 광범한 규모로써 발전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은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위력의 장성과 이 나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급속한 향상에 고무되여 자기들도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을 가지고 제국주의 통치층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팟쇼적 경향의 강화 (주一)

월러암 포스터

최근 년간 특히 「랭정 전쟁」 시기에 미국은 점점 더 극반동적 립법과 극반동적 정부 정책의 무대로 되고 있다. 취해진 방책들 중에서 많은 것이 의심할 바 없이 팟쇼적 성격을 띠였는바 이것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파시즘의 위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팟쇼화 위협성이 강화되는 데 대하여 공산당이 신호를 준 것은 한 두번만이 아니였으며 또 다른 많은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도 이러 저러한 정도로 경고한바 있었다. 그것은 미국 로동 련맹, 산업별 직업 동맹 콩그레스, 독립 직업 동맹이 그리하였으며 심지어 전 대통령 트루맨과 상원 의원 리멘, 플란더스와 같은 보수주의자들까지도 맥카르티즘을 파시즘이라고 성격지었다. 역시 그와 같은 정신에서 기독교 주교 쉐리와 많은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출연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팟쇼화 위협성의 장성에 대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공산주의적, 직업 동맹적 및 자유주의적 출판물들에서 론의되고 있다.

八월에 채택된 공산주의 활동 통제에 대한 수치스러운 법령은 공산당을 공식적으로 질식시키며 직업 동맹을 친팟쇼적 파괴 활동 통제국의 감시하에 두려는 것인바 이 법령 채택은 미국에서의 파시즘의 장성에 관한 위구를 미국과 국외에서 현저한 정도로 강화하였다.

반공산주의 법령보다 더 치욕적인 것은 없는바 협박의 환경 속에서 국회는 이 불명예스러운 문건을 채택하였다. 명백히 적극적인 인간 증오주의자들——상원 의원 헴프리, 모제 및 기타——에 의하여 추동된 국회 량원 의원들은 놀랜 양떼 모양으로 이 법령에 찬성 투표하였다. 법안이 상 하원에서 통과될 때 이 립법 기관들의 의원들은 사실상 완전한 립법 초안을 가지지 못한채 심의에 들어 갔던 것이다. 국회의 전 력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와 같이 불명예스러운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정형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활동 통제법이 채택된 후의 팟쇼화 경향의 위험성이 어떠한 것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은 특히 현 시기에 이 경향이 미국으로 하여금 사실상 파시즘의 첫 시기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질적 약화에로 이끌지 않았는가 하는 구체적 문제에 대답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쓰라린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들은 팟쇼적 위험성에 대한 옳지 않은 평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위험성의 과대 평가는 실제적 투쟁의 방법을 희망 없는 것이라고 거부하는 데로 이끌 수 있으며 「될、 깃발을 내릴 것 없이 결전에서 침몰하고 말자」라는 좌경적 기분에로 이끌 수 있다. 파시즘의 위협성의 과소 평가는 우경적 오유 즉 로동자들과 그의 동맹자들을 정치적 위혁과의 투쟁에로 궐기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데로 이끌 수 있는바 이 위혁은 만일 그것을 경시한다면 로동자들과 그 동맹자들을 위하여 파탄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현 모멘트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기본적 위협성은 로동자 대중이 현재 강력한 팟쇼적 경향 속에 숨어 있는 엄중한 위혁을 리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바 이것은 팟쇼적 경향을 타승하기 위하여 충분한 단결을 가지고 정력적인 보무(步武)를 취하는 데 있어서 로동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팟쇼 분자들은 진격하고 있다

북미 합중국에서 트루맨 정부나 아이젠하워 정부 시기에 있어서 국회와 여러 주(州)의 립법 회의들이 최근에 채택한 허다한 반동적 법령들은 단순히 반동적 (말의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인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명백히 팟쇼적 성격의 새로운 불길한 요소가 내포되여 있다. 그러한 주요한 사실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스미트법은 그에 기초하여 미국과 하와이 및 프에르또—리꼬에서 一四〇명의 공산당원들을 체포하여 날조된 기소로써 재판에 회부하였고 마치 그들이 미국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할 것을 호소하였다는 듯한 허위적 구실로써 투옥하였다. 타프트—하트리법은 직업 동맹을 전례없는 통제하에 얽매여 놓고 파업에 대한 로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로동 쟁의시에 있어서의 판결에 의한 파업 금지 방법을 설정하고 있으며 직업이 있고 직맹에 망라된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서약을 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맥카렌법은 외국 출신 로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야수적 공격과 동시에 공산당과 기타 진보적 단체들을 외국 앞잡이로 보아 정부 기관에 등록하며 이에 기초하여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련의 집중화

된 정치범 수용소를 창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공산주의 활동 통제법이 채택되였는바 그것은 공산당을 공식적으로 비법화할 뿐만 아니라 극반동적인 과괴활동 통제국에 전권을 부여하여 이 통제국이 비난하거나 혹은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동맹을 제멋대로 금지하거나 혹은 허가할 수 있게 하였다。

전국、주 혹은 도시의 범위에서 실시되는 극반동적인 법령과 정치적 대책들——그 중에는 국가 공무 기관、무력 부대、교육 기관、산업 기업소、문화 부문 및 기타에서의 충성심에 대한 허다한 검열이 있다——의 쓰레기통에서와 같이 이 모든 반공산주의적、반직업동맹적 법령들에서는 파시즘의 냄새가 풍긴다。자본주의적 사법 제도는 재판에서 점점 더 증대되는 비법적 첩보 체계 때문에 특히 심하게 악변되였다。게다가、전국적 범위에서와 같이 지방들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사상 통제를 위한 무수한 위원회들과 벨트、제너 및 각 주들과 도시들에서의 보다 적은 수다한 반동들에 의하여 명출되는 정탐배들이 전국을 못살게 굴고 있다。이 체계는 상원 의원 맥카르티의 어마 어마한 활동에서 더욱 더 추악하게 표현되고 있다。미국 인민은 현재와 같이 파시쓰트들이 사축하는 전면적인 협박 공갈 운동에 의하여 사상 분야에서 위혁 당하고 공포에 휩싸여 본적은 일찌기 없었다—비록 썩 낮은 정도에서도 역시 없었다。

가장 반동적인 분자들의 첫째 목적은 공산당을 마비시키며 혹은 청산하여 버리는 것인바 이것은 언제나 파시쓰트들의 첫 과업이였다。이 사실은 우리 당이 비록 당원 수는 적지만은 힘 있고도 명백한 목소리로써 말하며 실제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위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로써 설명된다。국내에서나 대외적으로나 점점 더 첨예화하는 경제적、정치적 형편에 처하게 되여 지배층은 대중의 잠재적 지도자로서의 공산당을 겁낸다。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박해는 언제나 온갖 팟쇼적 공격의 불가분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은 수백명의 우리의 우수한 이전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당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언론、집회의 자유、공정한 배심 재판의 권리、산업에서의 로동의 권리、국가 직무에 종사할 권리、군대 복무의 권리、직업 동맹 일군으로서 활동할 권리、교육 받을 권리、인신 불가침의 권리、자유로운 려행의 권리 및 이와 류사한 헌법상의 허다한 초보적 권리까지 박탈하였다。

명백히 팟쇼적 내용을 띤 반동적 운동이 로동자 단체들을 반대하여 특별한 힘을 기울이고 있다。一、六〇〇만명의 맹원을 가진 직업 동맹은 실로 독점 자본가들과 그들의 전쟁 계획 및 착취의 강화에 명백히 엄중한 잠재적 위협으로 되고 있다。

가혹한 반공산주의법에 기초한、공산당 및 민주주

의적 자유 일반에 대한 공격은 물론 동시에 직업 동맹에 대한 진격으로도 되지만은 직업 동맹은 또한 직업적인 공격을 받기도 한다。

공산주의 활동 통제법에 포괄된 타프트—하트리법과 배틀리 법안 조항들(각주와 도시에서 채택된 허다한 위험한 반직업 동맹법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도)의 일반적 목적은 독점가들에게 종속된 주권인 정부의 통제하에 직업 동맹을 더욱 더 전적으로 예속시키며 직업 동맹의 내부 생활에의 정부 관리들의 관료적 간섭을 강화하며 파업에 대한 로동자들의 권리를 압살하며 직업 동맹을 위협하며 직업 동맹의 전투적 창발성과 력량을 파괴하려는 데 있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이며 가장 온화한 기분을 가진 직맹 관료들까지도 이 팟쇼적 립법이 직맹들에 대한 엄중한 위혁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직업 동맹에 대한 직접적 박해는 아직 공산당에 대한 공세처럼 날카로운 성격을 띠지 않았으며(적어도 현재에는) 히틀러식으로 직업 동맹을 파괴하는 명백한 결단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자본가들이 로동.계급과 행동에서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접성으로써와 그리고 특히는 자기들의 침략적 대외정책이 직맹 관료배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극히 필요한 그 거대한 비즈네스가 자기들의 날카로운 반직맹적 경향을 적어도 일시 억제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로써 설명된다。독점 자본가들에게는 미국의 로동자들을 제국주의적 선전의 독소로써 중독시키기 위하여 로동 운동의 가짜 수령들이 요구되는 것이다。이 가짜 지도자들은 로동자들의 대렬내에 혼란을 가져 오며 미제의 침략 계획에 대한 로동자들의 반항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독점 자본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반동의 공격때마다 언제나 사격의 목표로 되여 온 흑인들이 이번에도 반동의 주목 밖에 설 수는 없었다。강화되는 팟쇼적 조류는 특히 흑인들에게 위험하다。공산당 강령(주二)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맥카르티즘의 장성하는 위혁은 흑인들에게 새로운 그리고 엄중한 위혐성을 조성하고 있다。파시즘과 전쟁에로의 길을 따르는 운동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가일층의 진보를 위혁 방해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달성된 일정한 성과의 보전 자체를 위혁하는 것으로 된다』。

이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현재 산업 기업소들에서 광범히 실시되는 해고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흑인들에 대한 란포한 차별 대우、때때로 조직되는 흑인 가족 주택에 대한 무뢰한적 침해、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무수한 롱락 사건、특히는 얼마전 대심원의 반동적 결정—학교들에서의 인종 차별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적대 행동、현재 남방에서 꾸—끌룩쓰—크란과 그와 류사한 단체들、례하면 악명 높은 백인 진보 촉진 전국 협회같은 것이 후안 무치하게 시위하는 적대 행동 등에서 표

현되고 있다。

장구하고도 곤난한 투쟁의 대가로서 농산물 가격 유지 체계 설정을 쟁취하였던 근로 농민들에게도 공격은 가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는 그 체계마저 허물어지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공격을 받는바 그들은 미국 공민권을 란포하게 박탈 당하며 북미 합중국으로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주 축출 당한다。

반동의 공격 특히는 국회 소속 팟쇼적 조사 위원회와 주 립법 기관의 공격의 다른 대상으로 되는 것은 자유주의 인테리겐챠 더우기 미 제국주의 전쟁 정책을 감히 이러저러하게 비판하는 그의 대표자들이다。 인테리겐챠에 대한 그와 같은 사냥(狩)은 할리웃드의 배우들、학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과학 기관、라디오、텔레비존、출판물에서、예술 문학에서、교회 전도(傳道)및 기타에서 진행된다。 친팟쇼 분자들은 어떠한 형식으로써든지 평화와 민주주의 옹호에 대하여 감히 말하려는 모든 인테리들을 조소하며 침묵하도록 강요한다。 이와 같이 하여 친팟쇼 분자들은 미국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테로 통치를 설정하였다。

반동의 이 모든 활동에서 명백한 팟쇼적 요소의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미국 인민들을 제멋대로 전쟁 히스테리 및 반공산주의 히스테리 소동 속에 압도(押倒)해 버리려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쏘베트 련맹에 대한 증오의 가장 맹렬한 선동 깜빠니야와 적색(赤色)에 대한 사냥(狩)은 심지어 히틀러나 뭇쏘리니도 일찌기 할 수 없었던 정도의 것이다。

이상에서 인용한 모든 것에 보충하여 심각한 의의를 가지는 두 가지의 친팟쇼적 사태 발전에 대하여 더 지적하여야 하겠다。

一、합중국에서 팟쇼 전염병 원천의 두목들인 월—스트리트의 대자본가 대표들로서의 아이젠하워 내각의 충만。 二、정부 정책 결정에서의 고급 군사 간부들의 증대된 역할。 맥카더、리치웨이、레드포드、클라크 등등과 같은 극반동 분자들이 그 견지를 결정하는 뻰따곤(미국의 군부가 자리잡고 있는 곳—역자)은 미국에서의 팟쇼적 위혁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 하나를 대표한다。

북미 합중국에 현재 파시즘이 존재하는가?

이 극반동적이며 팟쇼적인 경향은 월—스트리트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파시즘과 전쟁을 지향하는 그리고 이 길에서 생기는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는 미국 독점가들의 운동의 불가분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기본 목적은 미국 대독점가들의 세계 제패를 위한 전쟁에 대하여 성과적으로 반항하기에 대중이

무력하게 될 그러한 정도까지 로동 계급과 광범한 대중을 사상적으로나、조직적으로나 무장 해제시키는 데 있다。 이 모든 친팟쇼적 공격의 히틀러주의와의 근본적 류사점(類似点)은 아주 명백하다。

이 팟쇼적 위협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공산당 강령은 맥카르티즘——미국 파시즘의 가장 위험한 표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당히 분석하였다。

『맥카르티즘은 나라를 파시즘에 얽매여 놓으며 제멋대로의 위혁과 데마고기적 강령의 도움으로 국가에 대한 통제를 장악하려고 지향한다。…맥카르티즘은 힘으로써 모든 자주적 견해를 압살하며 사고하는 매개 인간들을 압살하려고 기도한다。 맥카르티즘은 서적을 불살라 버리며 예술과 문화를 말살한다。 맥카르티즘은 로동 운동을 궤멸시키며 흑인들을 더욱 더 노예적으로 예속시키며 인종론과 반유태인주의를 선동하여 젊은 세대들의 입을 틀어 막으며 그들을 횡포하게 만들며 모든 자유의 잔재마저 없애 버리려고 시도한다。 맥카르티즘은 미국을 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첩보원들의 나라로、거기에서는 애국주의가 배외주의로、자주적 사상이 판에 박은 사고로、용감성이 노예적 굴종으로 교체된 그러한 나라로 전변시키려고 시도한다』。

이 극반동적 경향은 의심할 바 없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가장 큰 위험성으로 되는 것이며 팟쇼화 행정의 강화를 실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정의 발전은 현재 아직 미국에 『금융 자본가들의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배외주의적이고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자들』의 공개적 테로 독재가 수립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말하여야 할 그러한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파시즘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맑쓰—레닌주의적 규정에 부합되는 사태가 아직 미국에 조성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금융 자본가들의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배외주의적이며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자들을 대표하는 그루빠에는 상원 의원들인 노울랜도、맥카르티、헴프리、문트、제너、주 지사들인 비론스、똘메즈 및 기타가 전형적이다。 그들은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그들은 아직까지는 정부에 대한 자기들의 결정적 통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부르죠아지 특히는 독점 자본의 대표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적인 세계 지배를 수립하는 수단으로서 결정적으로 세계 전쟁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전쟁 로선은 미국에서의 파시즘의 중요 원천으로 되고 있으며 독점가들은 지금까지 통례로 파시즘에로의 도상에서 취하여진 가장 중요한 전진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전쟁 로선에서 출발은 하면서도 모든 자본가들이 다 맥카르티즘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파시즘의 완전 수립에로 나가기에 준비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의 현재의 그들의 내부 분

쟁 특히는 선거 투쟁과 맥카르티즘 때문에 격화된 혼란은 완전한 팟쇼 제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독점 자본가들의 통일이 결여되고 있다는 데 대한 실증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되는 것은 데마고그인 트루맨 대통령이 독점 자본가들의 많은 부분의 명의로 출연하면서 타프트—하트리법과 맥카렌법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그 자체로서 팟쇼 정부는 아니지만 그의 총방향은 파시즘측으로 향해지고 있다. 당 강령에는 이것도 고려하였는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현 공화국 정부는 맥카르티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맥카르티즘을 용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대내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볼 수 있다.

반동들과 추악한 파시쓰트들은 권리에 대한 선언에서 보장된 것이라고 인정되였던 우리 나라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의심할 바 없이 엄중하게 유린하였고 또 로동 운동의 일반적 지위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이 공격은 아직 파시즘——그 첫 단계 혹은 다른 어떤 단계에서도——을 수립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몹시 파괴되였으나 그러나 아직 그 기초가 청산되지는 않았다. 로동자들 및 기타 주민의 민주주의적 계층은 아직은 조직되며 파업하며 투표하며 또한 국가 앞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의할 초보적 권리를 장악하고 있다.

소여의 모멘트에 있어서 우리는 팟쇼적 경향과 팟쇼 제도와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에는 론의할 여지 없이 파시즘에로의 강력한 경향이 존재하나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은 원인으로 그것은 정당하게 팟쇼 정치 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강력한 팟쇼적 경향이 파시즘의 지배에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미래만이 뵈여 줄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로동 계급과 그의 반팟쇼 동맹자들이 앞으로 자기 력량을 동원하여 파시즘의 세력을 궤멸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최근 공산주의 활동 통제에 대한 추악한 법령 채택과 관련하여 북미 합중국에서의 정치 정세를 특징지으면서 공산당은 八월 二七일부 자기 성명에서 새 법령은 『성격에 있어서 팟쇼적이며』 『경찰 국가 창설에로의 길에서의 거대한 일보』라고 칭하였다. 이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이미 파시즘의 제一 단계에 처하였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북미 합중국에 실제적인 파시즘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엄중하고도 급속히 장성하는 팟쇼적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론은 공산당 강령이 내포하는 분석에 있어서나 그가 규정한

파시즘과의 투쟁 로선에 있어서나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 강령은 『맥카르티즘, 미국 파시즘의 위험성은 현실적이며 엄중하며 강화되고 있다』, 그의 목적은 『우리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자유를 점차적으로 청산』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무제한한 위혁과 데마고기적 강령의 도움으로』 우리 나라를 제압하려고 지향한다고 가르쳤다. 공산주의 활동 통제에 대한 팟쇼적 법령의 채택은 이 모든 반동적 경향에 적응한 것이였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강령에 그려진 기본적인 정치적 전술은 낡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와서 이전보다 더욱 더 긴절하게 필요한 것으로 되였다는 사실이다.

파시즘의 위혁은 증대되고 있는가?

북미 합중국에서 파시즘의 위혁이 증대되고 있는가 하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확고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맥카르티가 부닥치고 있는 저항이 파시즘의 위혁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추측하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된다. 파시즘의 위혁이 증대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서는 이미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전후기에 있어서의 허다한 친팟쇼적 현상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일반적 전망, 만일 로동 계급의 결정적 반항이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팟쇼적 위험성의 가일층의 증대일 것이다. 독점 자본가들은 비록 아직도 많은 재원(財源)과 기만 술책을 위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전통적 한계내에서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며 자기의 최대한의 리윤과 자기의 침략적 대외 정책을 보전하기가 점점 더 곤난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심각화 및 미제국주의의 일반적 지위의 약화——이것은 앞으로 론쟁할 여지 없는 전망이다——에 따라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가장 중요한 그루빠들은 점점 더 높은 정도로 파시즘의 방법과 목적을 따를 것이다. 현재 미국 독점가들로부터 이와 다른 어떤 로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둔한 일일 것이다.

당초부터 히틀러 운동에 특징적이였던 민주주의의 자체의 거부, 수령주의 원칙에의 경도(傾倒), 전쟁 찬양, 열광적인 반유태인주의 및 『아리야족』의 우월성에 대한 공개적이며 파렴치한 설교는 비록 미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명백히 존재하며 장성하고는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아주 낮은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진짜 반동들은——적어도 현 모멘트까지는 주로 마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는 듯한 가장 세련된 데마고그적 출연의 방법으로써와 보통 사람들의 복리에 대한 위선적 배려의 방법으로써 주권에서의 자기들의 지위를 공고화하려고 시도한다. 맥카르티즘의 방법은 대중들의 눈 앞에서 독점 자본의 반동적 강령의 진실로 팟

쇼적인 성격을 폭로할 수 있으며 또 그리함으로써 대중속에서 그 강령에 대한 광범한 반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느니만큼 많은 반동 분자들이 맥카르티와 원칙에 있어서는 일치하면서도 그의 방법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상의 사실로써 설명된다。

북미 합중국에서 맥카르티즘과 파시즘 일반의 발전을 반대하는 요소들을 평가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민주주의적 력량의 압력의 거대한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쏘련、인민 중국、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총 자본주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필사적(그러나 무익한) 시도에 있어서 약간의 민주주의적 외관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세력의 목전에서 자체를 폭로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애쓴다。 전 세계 로동자들과 기타 민주주의적 요소들은 북미 합중국의 「민주주의적」 외관에 대하여 더욱 더 의심스럽게 대하게 되였다。 바로 이에 대한 고려는 얼마 전에 대심원이 학교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민족 차별을 반대하는 결정을 채택하게 하는 데 결정적 자극으로 되였으며 또 최근에는 흑인들에게 기타 약간의 정치적 양보를 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국외에서 민주주의 세력의 불만이 강화되는 데 대한 공포가 독점가들에 의한 미국에서의 명백한 파시즘의 확대를 본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즉 맥카르티의 란포하고도 자체 폭로적인 수법을 반대하는 자본가들의 항의라던가、워트킨스 꼬미샤가 맥카르티에게 가한 비난이라던가、한때 「새 로선」의 지지자였던 상원 의원 헴프리가 제기한 바와 같이 공산당원이라는 죄목으로 사람들을 금고형에 처하는 가혹한 판결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를 아이젠하워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다분히 설명해 준다。 미국에서의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력한 국제적、민주주의적 사회 여론—력량의 압력은 우리들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의 파시즘 발전의 특징의 하나는 구라파에서의 히틀러、뭇쏠리니、프랑코 및 기타 파시쓰트들의 운동과는 달리 미국의 파시즘이 개별적、독립적 정당에로 조직되지 않고 있다는 그 점에 있다 (비록 마코미크 대좌의 신문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특수하게 나타난 바와 같은 독립적 정당 조직의 약간의 경향은 존재하지만은)。

지금까지 대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극 반동적인 정책의 무기로서 두개의 기본 정당을 리용하는 데 성공하였다。 독점 자본의 주요 정당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다。 그러나 독점 자본은 또한 민주당도 강력한 통제하에 장악하고 용이하게 이를 리용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트루맨의 반동적 정책이 증명해 준다。 지금까지 모든 반동적 법령들 특히는 그 본질에 있어서 팟쇼적이

라고 여기에서 지적한 법령들과 또한 월가의 극히 침략적인 대외 정책은 주로 량당적 기초 우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류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팟쇼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에 집결되여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도 그가 로동 계급의 아주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파시쓰트들의 강력한 영향하에 놓여 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상원 의원 맥카렌과 버드、주 지사 비른스와 톨메즈 그리고 기타 남부의 지끄시끄라트들이 증시하여 주었으며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회가 채택한 과거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팟쇼적인 법령인 공산주의 활동 통제에 대한 악명높은 법령이 상원 의원 헴프리를 수반으로 하는 민주당 지도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문자 그대로 겨우 통과된 불길한 사실로써 다시금 확증되였다。

최근 수년간에 있어서의 맥카르티즘의 장성은 미국이 파시즘의 편으로 강력하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많은 표징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약간의 반동적 독점가들이 일반적으로 구라파 파시즘에 특징적이였던 그러한 팟쇼적 방법에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 강령은 매우 정당하게 맥카르티즘을 특별히 비판하였는바 이에 있어서 맥카르티즘과 미국에서의 파시즘의 모든 다른 형태들을 배양하는 그 광범한 반동적 조류가 망각되지 않았다。

파시즘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북미 합중국에는 엄중하고 점점 장성하는 파시즘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파시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파시즘은 언제나 산업 국가에서 로동 계급이 결정적 패배를 당하였거나 혹은 양보하였거나 한 후에 비로소 나타났다。 파시즘이 나타난 나라에서 로동자들이 가능한 한 그를 반대하여 싸우지 않은 그러한 실례는 없다。 그리고 만일 어떤 경우에 로동자들과 그의 동맹자들이 파시즘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패배 당하였다면 그것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국내 및 국외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변절로써 설명된다。

만일 뭇쏠리니가 이태리에서 파시즘의 주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一九二〇년도에 이태리 금속 공업 로동자들의 거대한 혁명적 총파업을 진압할 가능성을 자본가들에게 지어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반역적 립장에 기인한 것이였다。 히틀러도 역시 사회—민주주의적 지도자들의 변절에 의하여 초래된 로동 계급의 장기간에 걸친 패배 후에 一九三三년에 독일에서 주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돌푸스 지도하의 오지리에 있어서의 파시즘의 장성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프랑코를 수반으로

하는 서반아 파시쓰트들은 오직 첨예한 三년간의 국내 전쟁 후에야 주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 데 그때 서반아 인민은 자국내에서와 특히는 국제적 범위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수치스러운 배반을 당하였던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 측으로부터의 변절과 로동 계급의 패배의 력사는 전쟁 전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파시즘의 출현을 동반하였다。

로동자들이 이 모든 전투에서 반드시 실패 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례하면 불란서에서 一九三四년에 파시쓰트들이 주권을 장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공산당이 파시즘을 반대하여 대중을 궐기시킨 인민 전선에 대한 전투적이며 결정적인 지도를 보장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였기 때문에 파시쓰트들은 섬멸적 반항에 봉착하게 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 로동자들과 그 동맹자들이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파시즘에게 군사적 패배를 주어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고통스러운 노예 상태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력사적 경험으로부터 로동 계급과 그 동맹자들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불가피적으로 항쟁하여 파시즘의 위협을 분쇄하리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에서 평화、번영、민주주의에 대한 위선적 구호의 도움으로 인민들을 기만하여 파시즘에로 이끌려는 지향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오직 대중의 목적 지향적이며 결정적인 투쟁의 기초 우에서만 미국에서 파시즘에 대한 승리는 획득될 수 있다。 북미 합중국에서의 강력한 민주주의적 전통 그 자체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의 파시즘이 타승하지 못할 장애로는 되지 못한다。 이 전통은 물론 중대한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로동 계급과 기타 민주주의적 요소들의 강력한 활동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테로와 궁핍과 몰락의 어떠한 공포가 우리 나라에서의 파시즘의 위협과 련결되여 있는가 하는 의식에까지 로동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력량을 단합하여야 한다。 북미 합중국에서 그와 같은 력량은 운동의 필수적인 지도자로서의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들、흑인들、인테리겐챠 그리고 광범한 소기업가 층이다。 이 력량은 미국 인민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준비、조직 및 지도 여하에 따라 계급 투쟁의 어떠한 부면에서든지 독점 자본과 그 력량을 타도할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광범한 인민 전선을 결성함에 있어서 직선적이며 단순한 길은 없다。 이 문제는 복잡한 전략과 전술에 관계되며 투쟁의 축차적 단계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 로동 계급과 기타 주민의 민주주의적 계층들 속에는 론쟁할 여지없이 강력한 불만이 존재하

고 있다。 대중은 경제적 상태의 악화와 맥카르티적 파시즘의 장성으로 말미암아 심한 불안에 빠져 있으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쟁의 위협성 때문에 모든 다른 나라 인민들과 같이 위구하고 있다。 그와 같은 기분으로부터 파시쓰트、독점가、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성과적 투쟁이 장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분은 불가피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파시즘의 장성을 가져오는 그 가장 기본적인 힘——경제 공황의 심각화、독점 자본가들의 필사적인 최대한의 리윤 추구、부단한 전쟁의 위협——바로 인민들의 자유와 안녕을 위협하는 이 위협을 반대하는 인민 전선 운동의 장성을 가져오고 있다。

파시즘、전쟁、세계 제패 및 인민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에로 나아가는 미 제국주의의 지향에 대답하여 전 세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적 운동이 급속히 장성되고 있다。 이 운동의 발전은 만약 기회만 있으면 원자탄 및 수소탄을 사용하려는 우리 나라의 명백한 기도 때문에 특히 촉진되고 있다。 미국 인민은 비록 그들이 그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보다 완만하게 활동한다 하더라도 월가의 극반동적인 계획을 반대하는 이 전 세계적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 정책을 위한 자기의 투쟁에서、이미 미국의 대외 정책에 일련의 심각한 패배를 주었으며——조선과 인도지나에서의 정전、『구라파 방위 공동체』의 파탄의 형식으로——그 정책으로 하여금 파멸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였다。 앞날에는 민주주의 운동의 가일층의 앙양과 미 제국주의의 새롭고 거의 의심할 여지없는 결정적인 패배가 닥쳐오고 있다。 민주주의적 력량의 전 세계적 앙양에 있어서 물론 쏘련과 인민 중국、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현 시기 국제 정세의 다른 특징은 각자의 타산을 가진 전 세계의 많은 자본가 그루빠들이 월가의 세계 제패 계획과 히틀러적 구호 하에서 진행되는 반공산주의적 진격에 대하여、점점 더 커가는 불찬성과 때로는 적의를 가지고 대하는 거기에 있다。 그와 같은 반대과적 자본주의 요소들은 영국、불란서、이태리、일본、독일 및 기타 나라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북미 합중국에도 존재하는바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의 심각화、미 제국주의의 지위의 약화에 따라 그 수효는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 독점 자본의 그 어떤 부분이 파시즘을 반대하여 싸우게 되리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우둔한 일일 것이다。 인민 전선을 결성하려고 계획하는 민주주의 력량의 이 력사적 과업은 적당한 조직과 적당한 지도가 있다면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십분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될 것이다。 파시즘은 결코 불가피적인 것은 아

니다。

파시즘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

미국의 로동 계급과 그 동맹자들은 박두하는 경제 공황과 파시즘 및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이 모든 것은 미국의 독점적 반동들의 강령 전체를 반대하는 일반적 투쟁의 구성 부분이지만은—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의식성과 에네르기야와 전투 정신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이 투쟁을 유일적인 투쟁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저러한 분야에서 그들이 당하는 공격의 정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때문에 우리、당의 기본 과업의 하나는 모든 대중적 진출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로동자들에게 이 전투적 진출들의 심각한 호상 련관을 해설하여 주는 데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미국 로동자들은 주로 경제적 상태의 악화로 인한 자기들의 절박한 요구의 충족을 위하여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왜냐 하면 여기에서 불행이 가장 날카롭게 느껴지며 가장 공공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최근의 많은 동맹 파업들은 로동자들의 높은 전투 정신과 투쟁에로의 그들의 의지를 확충하였다。

실업군의 장성이 또한 그들을 격동시키고 있는바 현재 적어도 五〇〇만명의 실업자가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만 부분적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기간에 형편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경제 문제의 해결을 달성하면서 로동자들은 미국 로동 련맹과 산업별 직업 동맹 콩그레스를 지도하는 거만한 관료배들조차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불경기와 투쟁하기 위한 어떤 강령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게 한 그와 같은 강력한 압력을 증시하고 있다。경제 투쟁은 더욱 높은 단계—정치 투쟁에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 투쟁은 장성되는 팟쇼적 위협의 모든 형태들을 반대하는 데로 돌려지게끔 자체에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며 확대하여야 한다。

맥카르티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로동자들은 거대한 정치적 각성과 전투 정신을 발양하였다。결과에 미국 로동 련맹、산업별 직업 동맹 콩그레스 및 기타 여러 직업 동맹 단체들과 그리고 또 각종 흑인 그루빠들、농장주 그루빠 등등까지도 타프트—하트리법、스미트법、맥카렌법、그리고 공산주의 활동 통제법과 같은 친팟쇼적 법령들을 반대하여 진출하게 되였다。로동 운동은 또한 흑인들의 평등권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반동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다。그러나 이 투쟁 분야 내부에는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기본적 약점은 로동자 단체들의 성원들이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사실 즉 적색에 대한 무제한적 사냥과 현재 공산당을

반대하는 데로 돌려지고 있는 포악한 탄압적 법령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모든 로동 운동과 진보적 운동을 반대하는 데로 돌려지고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전혀 명백하게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기에 있다。이렇기 때문에 최근의 제강 공업 직업 동맹 전국 대회는 하나의 비극적 장면으로 되였었다。일방으로 대회는 맥카르티즘과 팟쇼 법령의 모든 쓰레기들을 비난하였는가 하면 타방으로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직맹원이 될 권리、따라서 제강 공업에서 로동할 권리를 거부하는 극악한 파시쓰트적 제안들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평화를 위한 투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로동자들과 기타 민주주의적 계층은 전 세계의 인민들에게 고유한、전쟁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로동자 단체의 많은 상층부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대외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위선적인 평화 구호로써 언제나 대중 속에 월가의 전쟁 강령을 전파시키고 있다。례하면 미국 로동 련맹 최근 대회에서 채택된『평화』강령은 상원 의원 맥카르티가 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였다。결국 근로 대중은 평화 문제에 있어서 공산당과 독립적인 진보적 직업 동맹 및 기타 약간의 그루빠들이 주는 지도(指導)이외에는 다른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전쟁을 반대하여 진출하는 로동자들과 기타 력량은 침략적 미 제국주의에 대한 현저한 반항을 전개하였으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약간의 중요한 승리들을 쟁취하기까지 하였다。이러한 성과들로써는 전반적 군사 훈련에 대한 대중의 장기적인 위력한 반대、중국의 도시들을 원자탄으로 폭격하려고 제의한 것을 반대한 인민들의 진출、조선 및 인도지나에로의 출전을 결정적으로 반대한 것、그리고 이 전쟁들을 더 계속하려는 월가의 명백한 흉책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전을 달성하려는 모든 사회 인민들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지지한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한 미국 대중들의 이와 같은 광범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연 발생적인 운동은 의심할 바 없이 사활적 중요성을 가진 것이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로써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그러나 파시즘 일반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와 같이 여기서는 한갓 자연 발생성만으로써는 부족한 것이다。로동자、흑인 및 기타 주민의 민주주의적 계층들의 거대한 대중적 조직들을 통일적 투쟁에로 인입하여야 한다。이 것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현재의 팟쇼적 위협은 또한 공산당의 역할의 의의와 당을 마비시키며 청산하여 버리려는 정부의 어떠한 흉책 앞에서도 자기 립장을 고수하여야 할 긴절한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파시즘과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로동자들과 일반 대중들에 대한 기본적인 위험과 장해는 미국 로동 련맹、산업별 직업 동맹 콩크레스、철도 로동자 협회、석탄 산업 로동자 동맹、반동적인 독립적 직

업 동맹、 기타 각종 대중 단체들을 지도하고 있는 기회주의적、 개량주의적 지도자들이 조성해 내고 있다。 어지도자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사업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항상 로동자들의 머리를 제국주의적 구호로써 중독시킨다。 그들은 로동자들과 그 동맹자들의 전진을 걸음마다 방해한다。 그 지도자들 중 많은 자들은 만일 상전인 독점가들이 요구한다면 파시즘과 전쟁에로 곧바로 나갈 것이며 직맹 운동이 자기들을 따라 오게끔 강요하려고 시도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태리、 독일、 파란 및 기타 국가들에서의 우익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파시즘에 접근하던 때보다도 더 광범한 범위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들의 반역 행위는 미국에서 파시즘이 장성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二중으로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반동적 관료배들이 직맹 운동과 진보적 운동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보유하고 있어 거기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결론한다면 그것은 큰 오유일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정세는 공산당과 궐기하는 대중의 영향 하에 큰 직업 동맹 단체들을 활동에로 추동할 수 있게 되였으며 약간의 직맹 관료배들의 그루빠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진보적 립장을 취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되였다는 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일련의 직업 동맹 지도에서의 분렬은 팟쇼적 위협의 장성에 따라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진보적 운동의 놀랄만한 실례로 되는 것은 二○년 전에 산업별 직업 동맹 콩크레스가 일으킨 그 운동이다。

개별적 직맹 지도자들이 여러가지 론쟁 문제들을 가지고 출연하기 시작한 현재 이러한 경향은 미국 로동 운동과 진보적 운동 앞에 직접 나서고 있는 심중한 투쟁 형식에 속한다는 사실의 점점 더 새로운 표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시즘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정치적 활동

공산주의 활동 통제법의 채택은 우리 나라에서의 팟쇼 위협성의 심각한 첨예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혁의 장성으로부터 공산당과 모든 로동 운동은 리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필요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것은 전쟁 방화자들과 파시쓰트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인민의 매개 조직들을 적극화시키며 계급 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배가의 에네르기야를 가지고 전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 정치 투쟁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당 강령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 근로 농민들、 흑인 및 중소 기업가들의 공동적 및 동시적 활동에」 기초한 광범한 인민적 련합에로 민주주의적 평화 애호적 력량을

단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광범한 정치 운동의 요구는 우리 나라의 광범한 근로 대중이 자기들의 독자적 대중적 정당을 가지지 못한 데로부터 야기되는 만성적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로동 계급과 그 정치적 동맹자들은 자기들의 독자적인 대중적 정치 조직——인민 전선의 기초로 되여야 할 로동자와 근로 농민들의 광범한 당——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효과적인 정치적 역할을 놀기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미국의 근로 대중이 아직도 부르죠아지의 정당들에 많이 집착되여 있다는 바로 여기에 다른 어떤 산업 국가에서도 선례가 없는 그러한 비극과 약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중들의 모든 정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와 같은 부자연한 사태는 종식되여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장성하는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의 발전은 전국적으로 로동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계급적 모순을 첨예화함으로써 로동 계급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지배의 포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 활동의 길에 진출하도록 할 것이다。 로동자와 근로 농민들의 대중적 정당의 창건——이것은 먼 장래에로 연기될 문제는 아니다。 공산당은 항상 이 과업을 해설하여야 하며 그의 옹호자가 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을 창건할 위력한 력량——로동 계급、 흑인들、 근로 농민들、 기타 민주주의적 계층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광범한 당의 창건은 당분간 직접적 과업으로 되지 않는다。 이 계층들의 압도적 대중은 아직도 민주당과 공화당 특히 전자의 립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상기 계층들 속에서 사업하는 것은 이 두 기본 정당내에서 사업하는 것으로도 된다。 이것은 공산당 강령에도 설명되여 있다。

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九五四년과 一九五六년도 선거를 결정하는 열쇠는 비록 현존하는 량 당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조직된 로동자들이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서 진출하는 능력 여하에 있다。 로동자들은 나라를 위한 명백하고 기본적인 자기의 고유한 강령을 가지고 다른 독립적 선거자 층과의 자기의 고유한 련계와 동맹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잘 조직되고 활동적인 자기의 독자적 선거 기관을 가지고 민족 앞에 출현하여야 한다。 그들은 전 국가적 범위에서의 민주당 내부에서와 또한 지방에서의 공화당의 개별적 조직들의 재편성과 재조직을 촉진시킬 목적을 내세워야 한다」。

강령에는 여러 지방들에서、 말하자면 진보당、 미국 로동당과 같은 그러한 조직의 립후보들의 개별적 명단이나 혹은 로동자 조직들의 립후보자들의 종합된 명단이 요구된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

공산당 강령에 서술된 총 선거전 일반적 정책의 정

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산주의 활동 통제법이 채택된 후에는 이 정책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 팟쇼적 법령은 강령에서 서술한 총 선거전 일반적 전술의 결정적 적용을 더욱 더 긴요한 것으로 하고 있다。

공산당원이 대중 속에서 일하며 민주당 대렬 내에서까지 대중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이 당이 진보적 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광범한 로동자 대중이 이 당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층부는 수백만 로동자들이 그의 일반적 지도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쏘베트 련맹과 공산주의를 증오함에 있어서 공화당 상층부와 서로 경쟁할 정도이다。 이리하여 트루맨、스티븐손、다글라스、하리만 기타와 같은 자들이 공화당 정부는 자기의 『온화한』 대외 정책으로써 민주당에 의하여 쟁취된 제국주의 세계에서의 지도권을 상실하였으며 마치 군사비 지출을 축소하여 『원쑤』의 면전에서 민족적 방위를 희생으로 하였다는 듯이 말하는 주장을 선거전 깜빠니야의 기본 문제로 전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리하여 국회에서 헴프리 기타 민주당 지도자들이 아이젠하워 정부조차도 감히 하지 못하는 횡포한 징벌을 예견하는 공산주의 활동 통제법을 들고 나온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간섭이 없이는 정부가 공산주의 활동 통제법의 기본 요소로 되는 반동적 배틀리 법안을 채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뒤꼬리를 따라가는 로동자들을 반동적 상층부의 전횡에 방임해 두라는 리유로 될 수는 없다。 그와 반대로 우리들은 공산당 강령에 서술된 견지에 적응하여 그들을 위하여 더욱 더 투쟁하여야 한다。 바로 조직된 로동자들이 반동적 민주당원의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동 분자들을 폭로하며 그자들과 싸워야하는 것이다。

우리의 강령이 경고한 바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의 그와 같은 투쟁은 민주당을 로동자들과 근로 농민들의 당으로 전변시키지 않는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대중적 정당을 창건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투쟁은 지금 민주당의 지도를 따르는 근로 대중을 단결시킬 수 있으며 이 지도에서의 분렬을 일으킬 수 있으며 로동자들을 앞으로의 중요한 전진에로 준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미국 로동당과 진보당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자들과 기타 민주주의적 력량은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및 정치적 정세의 가일층의 악화가 주는 장성되는 영향하에서 정치적 의식이 각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독점 자본가들에 의하여 발현되는 강력한 팟쇼화 경향은 파시즘과 전쟁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옹호하여 장성되고 있

는 이 운동을 타파하고 압도할 수는 없다。 三〇년대에 우리 나라 로동자들은 특히 기본적인 트레스트화한 산업 부문에서 직업 동맹을 조직하기 위한 력사적 투쟁에서 엄중한 경제적 및 정치적 탄압의 조건 하에서도 높은 전투적 기질의 모범을 보이였다。 그러한 탄압은 현재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바 로동자들과 그 동맹자들의 임무는 『새 로선』 시기에 있어서 보다도 더욱 준엄하고 더욱 원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 대중 운동에서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파멸적 오유일 것이다。

이 투쟁에 큰 로동자 조직들이 인입되여야 한다。 공산당의 최고 과업은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하의 대중 운동에 가능한 최대한의 실제적 지도를 주는 데 있다。 이것은 당이 자체의 투쟁을 강화하며 자체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은 우경적 및 『좌경』적 위험성과도 싸워야 하는바 그것은 현 정세하에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로동 운동은 북미 합중국으로 하여금 파시즘과 전쟁의 파멸적 진탕 속에 빠뜨리기를 갈망하는 반동 력량에겐 아무런 좋은 것을 약속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전진을 할 수 있게끔 준비되여 있다。

(주一) 미국 공산당 위원장 윌리암 포스터의 이 론문은 『미국은 파시즘의 첫 단계에 처하여 있는가?』라는 표재 하에 一九五四년 一一월 잡지 『뽈리찌칼 애페르스』에 발표되였다。 그 론문을 축소하여 게재한다。

(주二) 미국 공산당 전국 위원회에서 작성되여 一九五四년 八월 뉴욕에서 열린 미국 공산당 전국 선거전 꼰페렌찌야에서 채택된 『로동、평등、평화 및 민주주의에로의 아메리카의 길』이라는 강령적 문헌을 념두에 둔 것이다。

(『꼼무니쓰트』 一九五五년 제一호에서)

끈술따찌야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

박 성 욱

우리 조선은 위대한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 조국 남반부에 진주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역도들의 매국적 행위로 말미암아 해방 一〇년을 맞이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은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지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은 아직도 전체성으로 보아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단계에 처해 있다.

우리 혁명이 비록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단계에 처해 있지만은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문제와 아울러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 즉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하는 문제가 제기되여 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만약 우리가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의거하여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리해함이 없었더라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 머물러 있는 조건하에서 북반부에서 먼저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하는 문제를 당면 임무로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에 있어서는 그의 심한 불균형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혁명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수행되지 못하고 최초에는 한 나라 혹은 몇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되여 세계 혁명의 물질적, 사상적 기지가 구축되며 다음에는 또 한 나라 혹은 몇개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자본주의의 체계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주의의 체계가 확대 발전하면서

결국 자본주의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자본주의 체계는 미증유로 약화되여 종국적 멸망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반면에 사회주의 체계는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우리 당은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맑쓰—레닌주의 리론과 그 리론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현 시기의 국제 국내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축성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서고 있다. 이에 있어서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관한 맑쓰—레닌주의 리론은 사회주의 기초 축성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투쟁을 고무 격려하여 준다.

* * *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은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생산 관계의 성격은 생산 수단이 누구의 소유, 누구의 처분하에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소유의 상태는 생산 수단과 물질적 부가 사회의 성원들 중에서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명시하여 준다. 이와 같이 생산 관계의 기본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의 일정한 형태이다.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 우선 생산 도구의 변화 발전에 뒤이어 해당한 변화를 일으키는바 그들 간에는 호상 변증법적 작용이 진행된다. 즉 생산력의 변화 발전이 생산 관계의 변화 발전에 작용하는 한편 생산 관계의 변화 발전도 또한 생산력의 변화 발전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생산력은 그의 상태에 생산 관계가 적응되는 조건하에서만 발전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생산 관계도 생산력 발전의 수준과 성격에 적응되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혁명으로써 반드시 낡은 생산 관계를 교체한다. 이와 같이 사회 발전의 경제 법칙은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인 것이다.

이 법칙으로 말미암아 인류 력사는 다섯개의 생산 관계 즉 원시 공동체적 생산 관계, 노예 소유제적 생산 관계, 봉건적 생산 관계,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알게 되였다. 환언하면 일정한 단계까지는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던 생산 관계가 다른 단계에 이르러서는 생산력의 발전을 저애하는 질곡으로 전화하였을 때 달성된 생산력의 수준과 성격에 적응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그 낡은 생산 관계를 법칙적으로 교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화한 봉건적 생산 관계를 교체한 후 생산력이 불과 백년간에 수천년에 걸친 선행의 사회 제도들에서 달성된 생산력 수준보다 수배나 초과하였으나 그 후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벌써 달성된 생산력의 수준과 성격에 완전히 적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발로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달성된 생산력 수준에 적응

치 않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경제 공황에서 뚜렷히 표현된다。 자본주의적 경제 공황은 과잉 생산의 공황인바 이것은 전체 인민의 생활 필수품이 사실상 필요 이상으로 풍족하여진 데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공황이 발생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간의 모순에 의해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능력이 장성되면 장성될수록 근로 대중의 빈궁과 기아는 더 심혹하여지며 구매력이 점점 저하되는 데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에 기초한 개별적 자본가들은 인민들의 구매력을 타산함이 없이 제각기 자기의 치부만을 위하여 무계획적으로 생산하는바 이로 인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잉 생산 공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과잉 생산 공황은 一九세기 말까지에는 대체로 一〇년에 一차씩, 二〇세기에 들어와서는 약 六년에 一차씩 주기적으로 진행되였는데 한 공황의 시초로부터 다음 공황의 시초까지를 주기라고 칭하며 그 주기는 대략 四개 단계로 구분된다。

그의 제一 단계는 공황이라고 칭하는바 이 단계에 있어 자본주의의 생산 능력의 장성과 구매력의 상대적 축소간의 모순이 첨예하게 표현된다。 즉 대중의 구매력이 극도로 저하되여 상품들이 체화 상태에 처하게 되며 『과잉』 생산이 즉시 발로된다。 그리하여 상품 가격이 급격히 저하되며 생산이 축소되며 실업이 장성되며 임금이 저하되며 공장들이 폐쇄되며 기계 시설들이 일부 휴지되여 일반적으로 생산력이 파괴된다。 생산력의 이러한 부분적 파괴 방법으로 인하여 생산의 량이 감소되여 구매력의 수준에 접근하게 된다。 제二 단계는 침체기라고 칭하는바 이 단계는 산업 생산은 침체 상태에 있으며 상품 가격은 낮으며 상업은 활발히 전개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금후 부흥 향상의 전제 조건이 조성된다。 축적된 상품 예비의 일부는 청산되며 일부는 렴가로 매각된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생산비를 저하하는 방법으로 침체기로부터 벗어 나려고 한다。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한 방면으로는 임금을 저하하며 로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착취를 강화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기업소의 설비를 개선하며 고정 자본을 갱신하며 기술적 개조를 실시한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비를 저하시켜 상품 가격이 낮아진 공황기에 있어서도 역시 리윤을 획득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여기에서 리윤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 자본의 갱신으로 인하여 일련의 부문 생산들이 발전되여 간다。 즉 공장 시설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새로운 주문을 받음과 관련하여 각종의 원료와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소들도 새로운 주문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침체기에 있어서 차후 부흥 향상의 전제 조건이 조성되여 간다。

제三 단계는 부흥기라고 칭하는데 이 단계에서 공황기 이후까지 보존된 기업소들이 정돈되여 가면서 생산 확대에 착수한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생산의 수준이 종전의 수준에 달하며 상품 가격이 향상되며 리윤이 장성된다。

제四 단계는 향상기라고 칭하는데 이 단계에 이르러서 생산은 공황 직전의 수준에 달한다。 새 산업 기업소들과 철도 및 기타가 건설되며 상품의 가격이 높아 간다。 상업가들은 금후의 상품 가격의 인상을 타산하면서 대량의 상품을 주문하게 되는바 이것은 산업가들로 하여금 생산 확대에로 고무한다。 그리고 또 은행들은 상 공업가들에게 거액의 대부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자본가들은 또한 앞으로의 대중의 구매력을 타산함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생산하며 과잉 생산 공황의 조건을 조성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과잉 생산 공황은 주기적 성격을 띠게 된다。

공황은 거액의 새로운 투자의 출발점을 조성한다。 이상에 서술한 바와 같이 자본가들은 상품 가격이 급격히 저락된 공황기에도 자기의 기업소의 리윤 획득을 보장하려고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과 아울러 고정 자본을 대량적으로 갱신하게 되며 그리고 또 대산업의 중요 부문들에서의 기본 생산 수단들의 수명이 비록 오래 계속된다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것을 약 一〇년에 一차씩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바 이러한 것이 모두 자본주의의 전 력사에 걸쳐 항상 반복되는 주기적 공황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것이다。

이 주기적 공황은 다만 산업 부문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잉 생산 공황이 실업과 임금 저하를 초래하여 농업 생산물에 대한 대중의 구매력까지도 축소시키는 까닭에 농촌 경리의 분야에서도 과잉 생산의 만성적 농업 공황이 불가피적인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과잉 생산 공황은 인민 경제의 각 분야를 포괄하는바 그것은 한 나라의 범위에서만이 아니라 전 자본주의 세계에 파급된다。

공황기마다 생산은 극히 축소되며 상품과 주권의 가격이 폭락되며 대내 대외에서의 상업적 범위가 협소하여 진다。 그리하여 매 공황기에 있어 생산의 범위가 수년 전의 수준에까지 저락된다。 공황기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생활의 수준이 一九세기에 있어서는 거의 三—五년 전의 수준에까지 퇴락되였으며 二〇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수십년 전의 수준에까지 퇴락된다。

이와 같이 공황은 거대한 생산력을 파괴하는바 그 결과에 근로 대중은 헤아릴 수 없는 빈궁과 기아의 궁지에 빠지게 된다。 이 현상은 자본주의에 의하여 조성된 생산력의 수준이 벌써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규모를 벗어 났음을 명시하여 주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

이 썼다: 『만약 토지, 공장, 기계 및 기타가 소수의 개인 소유자들에게 강점되지 않았더라면 현대 사회는 비할 수 없이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여 전체 근로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며 수백만을 인민적 빈궁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공황은 명시하여 준다』(『레닌 전집』 五권 七六페지).

그러므로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설정되여야만 과잉 공황이 퇴치되고 생산력이 무한히 발전되여 전체 인민이 착취와 압박을 모르며 빈궁과 기아를 모르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수백만의 군대와 경찰과 헌병들과 형사 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 의하여 수호되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자기의 발전 과정에서 소생산자들을 파산시켜 프로레타리아트 대렬을 계속 확장하면서 소수의 자본가들의 수중에 거대한 부를 집중시킨다. 이것은 한 방면으로는 대규모적 생산을 조성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를 조성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자본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 투쟁을 조직 지도할 수 있는 프로레타리아 계급 즉 자본주의의 매장자를 양성하여 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불가피적으로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그는 저절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를 위하여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혁명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가 사회 발전 법칙과 혁명적 학설로 무장한 새 형의 맑쓰주의당의 지도하에서 광범한 근로 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결속하여 가지고 무장적 폭력으로써 자본가들의 주권을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이 위대한 력사적 사명은 임의의 시기에 또는 용이하게 순간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맑쓰와 엥겔쓰가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사명을 천명한 이후 약 반세기를 지난 제국주의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멸망하기 시작하였다.

* * *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 이르러 자본주의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레닌은 제국주의를 『썩어가며 죽어가는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이라고 규정하였다.

자유 경쟁이 지배하던 독점전 자본주의——산업 자본주의는 지난 세기 六〇——七〇년대에 최고봉에 올라섰다가 一九세기 말 二〇세기 초엽에 이르러 종국적으로 독점 자본주의——제국주의의 단계에로 이행하였는바 그

의 기본 특징은 자유 경쟁이 독점으로 교체된 것이다.

一九세기 말 二〇세기 초엽에 대 기술적 전진이 진행되고 산업이 장성 집중되였다. 새 강철 용해법이 도입되고 신형의 발동기들이 리용되여 산업과 운수 기재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 시기의 과학과 기술의 온갖 성과는 현대적 기계 공업——중공업의 발전에 일대 충격을 주었으며 一八七三년 경제 공황에 의한 수다한 중소 기업들의 파산은 자본의 집적, 집중에 또한 일대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주요 자본주의 제국에 자본이 대규모적으로 집적, 집중되여 현대적, 대규모적 중공업은 경공업에 비하여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례하면 북미 합중국에서는 一九〇四년에 백만 딸라 이상의 생산 기업소가 전체 생산 기업들의 ○·九%를 차지하였으나 그 기업소들에 국내 전체 로동자 수의 二五·六%에 해당하는 로동자와 전국적 생산의 三八%가 집중되였으며 一九三三년에는 五·六%의 대기업소들에 전국 로동자 전체 수의 五五%와 六七·五%의 생산이 담당 집중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이 대규모적으로 집중, 집적되면서 최단 기간에 (一八七〇——一九〇〇년) 세계의 공업 생산품이 三배나 장성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제국은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였다. 즉 선진 자본주의의 국가들은 뒤떨어지고 후진 국가들은 앞서 나갔다. 례하면 一九세기 七〇년대에 영국은 방직 공업, 철, 석탄 생산에 있어서 북미 합중국, 독일, 불란서, 이태리, 로씨야, 일본의 생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였으나 一九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북미 합중국이 세계의 제一위를 차지하고 독일이 구라파에서 제二위를 차지하게 되고 짜리 로씨야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섬과 관련하여 영국의 독점적 지위가 세계 시장에서 패배된 것이 곧 그것이다.

자본주의의 이 불균형적 발전은 첫째로 후진 국가들에는 기존 공업 시설이 적은 규모로 진행되였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즉시 도입할 수 있으나 선진 국가에서는 기존 공업 시설이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였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즉시로 도입할 수 없는 것. 둘째로는 선진 국가 례하면 영국에서는 후진 국가들에서보다 먼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산력 발전을 장애하기 시작하였던 바로 거기에 기인된다.

이 두 기본 원인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되는 독점 자본주의——제국주의를 위대한 레닌은 천재적으로 분석 천명하였다. 레닌은 제一차 세계 대전 직전에 자기의 로작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서 맑쓰와 엥겔쓰가 발견한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멸망의 법칙에 의거하면서 제국주의의 五대 특징과 三대 모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확증하였다.

레닌에 의하여 천명된 제국주의의 五대 특징은 다음

과 같다:

一、생산의 집중과 독점。

독점전 자본주의 시대、자유 경쟁의 지배하에서의 자본의 집중 집적 법칙의 작용은 결국 대기업소들의 승리를 보장하고 독점을 초래하였다。

생산의 집중의 형태 중의 하나는 일련의 생산부문을 한개의 기업내에 종합하는 그러한 형태이다。 대기업소들은 이러한 종합으로 인하여 경쟁에서 우세를 가지게 된다。

생산의 집중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독점을 초래한다。 대기업소들은 대기업소들과의 치렬한 경쟁에서 견디여 내며 금후의 생산 확대의 가능성을 가지기 위하여 거액의 리윤을 요구하는 데 그러한 높은 리윤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만이 보장하여 준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수십개의 대기업소들은 수백 수천의 소기업소들보다 서로 협의에 도달하기 용이하다。 이리하여 자유 경쟁이 필경 독점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이다。

독점이란 한개 혹은 몇개 생산 부문의 생산물의 생산 및 판매 시장을 자기들의 수중에 집적한 자본가들이 상품에 대한 높은 가격으로써 독점적 최대 리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그들 호상간에 체결한 협정、동맹 혹은 련합을 의미한다。

독점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판매 가격에 대한 자본가들의 단기간의 협정인바 그의 가장 발전된 형태는 까르쩰리、씬지까트、트레스트、꼰체른 등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독점 회사들이 경제 생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중공업은 물론 경공업、철도、수상 운수、은행、대내 상업과 대외 무역까지도 장악하고 농업 경리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한다。

一九五二년에는 북미 합중국의 야금 공업에 있어서 八개의 대독점 회사가 전국 강철 생산 능력의 八四%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원유 공업에 있어서는『쓰탄다드·오일』트레스트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였고 자동차 공업에 있어서는 三개의 독점 회사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은 제국주의의 이러한 대규모적 생산의 집중과 독점이 자본주의 제도의 경제 및 생산의 무정부성과 공황을 제거한다고 떠버리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제국주의는 경제 및 생산의 무정부성과 공황을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킨다。

레닌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를 개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독점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과 혼란성을 더욱 강화하며 경쟁을 더욱 첨예화시키는바 그것은 첫째로 경쟁이 독점 내부에서 중지되지 않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씬지까트와 까르쩰리에 가입한 자들은 더 유리한 시장과 더 많은 상품의 량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트레스트에와 꼰체른에 가입한 자들은 지도적 지위와·리윤 분배 및 기타를 위하여 서로 경쟁한다。

둘째로 산업의 동일한 부문이나 혹은 각이한 부문들의 독점 회사 간에 있어서 경쟁이 진행되는 사실이다。

세째로 그것은 독점 회사들과 독점 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소들 간에 경쟁이 첨예화하여지는 사실들로서 설명된다。

그리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독점은 자유경쟁에서 발생하여 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에 혹은 그와 함께 존재하면서 일련의 특히 첨예하고 급격한 모순과 마찰과 충돌을 산출한다』(전집 二二권 二五三페지)。

독점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 형태 간의 모순을 더욱 더 첨예화한다。

二、산업 자본과 은행 자본과의 융합 및 그에 기초한 금융 자본의 형성。

산업에서와 같이 은행에서도 자본이 집중되여 자유경쟁이 독점으로 이행한다。 처음에 은행은 주로 지불행위에서 중개역을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자본의 상업가로서 활동하게 되였다。 산업에서의 자본의 축적과 생산의 집중은 거액의 유휴 화폐가 은행들에 집적되여 리윤 획득에 리용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은행들에서 금융 사업이 부단히 장성되였다。

은행에서의 집중은 산업에서와 같이 독점을 초래하였다。 대은행들은 주권을 구매하며 융자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소은행들을 복종시키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호상 세력 범위의 분할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 그리하여 은행들의 독점 회사가 형성된다。 이러한 독점 회사들은 수십 수백의 소은행들을 지배하는바 그들은 실제에 있어 대은행들의 지점에 불과하다。 대은행들은 지점망들을 통하여 수다한 기업소들의 화폐자본을 자기의 금고에 수집하는 까닭에 자본 계급의 거의 전체의、화폐 자본과 각계 각층 주민들의 저금이 소수의 은행가들의 처분하에 들어 가게 된다。

산업의 집중과 은행 독점의 형성은 은행과 산업 간의 호상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경시켰다。 기업소들의 장성과 관련하여 산업 자본가들에게 제공되는 은행의 장기간의 융자가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데 은행가들은 자기들의 처분하에 들어오는 거액의 예금으로 산업가들에게 장기간의 융자를 제공하면서 기업소들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또 은행들이 화폐 자본을 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널리 보급된 형태는 이러 저러한 기업소들의 주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은행은 중개역으로부터 화폐 시장에서의

만능의 독점자로 화한다。 은행과 산업 기업소들의 리해 관계는 점점 더 밀접하여 간다。 은행이 산업 기업소들의 주권과 공채를 구매하여 장기 대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산업 기업소의 소유자로 또는 통제자로 되는 한편 산업 독점들이 또한 자기들과 관련된 은행들의 주권을 소유하며 은행가로 화한다。 이와 같이 독점적 은행자본과 산업 자본이 융합되여 자본의 새 형태——금융 자본을 형성한다。 금융 자본가들은 산업가、 은행가、 상업가의 역할을 하며 또 은행과 산업 독점 회사의 지도자들로까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그들은 주식 회사의 체계를 거쳐 거액의 자본까지도 처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금융 자본가들은 주식 회사의 결성、 주권과 공채의 발행、 국가 공채 보급、 유리한 국가 주문들에서 거액의 리윤을 획득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는 몇명되지 않는 이러한 금융 자본가들이 국가의 정치、 경제 생활을 좌우한다。 가령 미국에서는 八대 금융 재벌이 그 국가의 대내 대외 정책을 좌우한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 억만장자들의 사환군에 불과한 것이다。

三、 자본의 수출。

독점전 자본주의 시기、자유 경쟁이 지배하던 때에는 자본주의 제국이 주로 상품을 수출하였었다。 그러나 二○세기에 이르러 부강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거액의 자본이 축적됨과 관련하여 소위 잉여 자본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은 주로 원료 원천이 풍부하고 로동력이 값싸고 토지 가격이 비교적 낮으며 자본이 적은 락후한 국가들로 수출되였다。 왜냐 하면 그러한 후진국들에서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 수출은 주로 차관 형식이나 혹은 후진국에 직접 기업소 건설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였는데 차관에 의한 리자와 기업소들에서의 최대 리윤은 독점 자본가들에게 거대한 리윤을 제공하였으며 후진국 인민들에게는 二중 三중의 압박과 착취를 가져왔다。

부르죠아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자본 수출을 『원조』 혹은 『자선』 사업이라고 설교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락후한 국가들을 식민지로、 예속국으로 만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미제가 우리 공화국 남반부에 『원조』를 준다는 구실하에서 차관을 주며 상품을 수출하는 등의 행위는 조선을 미제의 상품 시장으로、 식민지로 전화하려는 제국주의적 정책인 것은 의심없는 것이다。

자본 수출은 독점 자본가들에게 최대 리윤을 제공하며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야수적 압박과 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거기에 산업을 발전시켜 현대적 산업 프로레타리아트 즉 자본주의 매장자들을 육성하게 된다。

四、 독점들 간의 세계의 경제적 분할。

대독점들의 자본 수출의 장성과 자본주의 렬강의 『세력 범위』의 확대에 따라 대독점들 간의 세계 시장 분할의 조건이 지어진다。 그리하여 국제적 독점이 형성되는바 그것은 각국의 대독점 간의 시장 분할、 가격 정책、 생산의 량、 기타에 대한 협약 등이다。 이러한 국제적 독점의 형성은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새 단계에서 진행됨을 의미한다。

국제적 독점 비호자들은 독점가들의 국제적 협약이 마치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발생되는 모순을 평화적 방법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듯이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 간의 세력 변동에 따라 시장 분할을 위한 투쟁이 더 첨예하게 진행된다。

五、 세계 자본주의 렬강 간의 령토 분할의 완료 및 그의 재분할을 위한 투쟁。

자본주의 독점들간의 세계의 경제적 분할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세계의 령토적 분할을 위한 투쟁 즉 식민지 분할을 위한 투쟁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이 아직 현저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 분할을 위한 투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一九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 렬강 간의 식민지 분할이 이미 완료되여 세계의 절대 다수의 인민이 식민지 노예의 기반에 얽매이게 되였다。 그런데 一九세기말 二○세기 초에 이르러 자본주의 렬강의 현저한 불균형적 발전과 관련하여 이미 분할이 완료된 세계를 재분할할 문제가 제기되였다。 이 재분할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렬강 간의 불가피적 전쟁을 초래하게 되며 수천만의 생명 재산을 희생케 한다。 그 반면에 독점가들은 최대 리윤을 흡수한다。

위대한 레닌이 분석한 제국주의의 이상의 五대 특징은 자본주의가 최후 단계에 들어 섰음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사회적 생산력의 수준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협소한 테두리를 벗어 났기 때문에 생산력의 수준에 대한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 법칙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 교체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의 지배는 생산의 무정부성、 경쟁、 파잉 공황、 실업、 전쟁、 대중의 빈궁화를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 증대시키고 강화한다。

또한 독점의 지배는 시장에서의 높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새 기술의 적용을 방해한다。 그리하여 현재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는 거대한 과학적 발견들과 기술적 발명들이 인간의 물질적 복리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원자력이 평화적 생산에 도입되고 있는데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그와 반대로 대량 살륙 무기 생산에

리용되고 있다。이와 같은 사실은 독점의 지배가 생산력의 발전을 장애하여 자본주의가 이미 부패하여 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부패성은 자본 계급의 기생성에서도 나타난다。독점의 지배하에서 자본가들은 생산에 참가함이 없이 유가 증권에 의한 수입으로 무위 도식하는 기생충으로 되며 독점 자본의 지배를 받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반식민지 국가들에 자본을 수출함과 관련하여 폭리를 얻으면서 고리 대금업자—국가로 전화한다。그리하여 세계의 소수를 차지하는 부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세계의 절대 다수의 국가들을 자기들의 최대 리윤의 원천지로、그의 인민들을 식민지 노예로 전환시키는바 이것 또한 자본주의의 부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부패성은 거대한 생산력을 파괴하는 전쟁 준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현대 자본주의 렬강은 최고 리윤 흡수를 위하여 날뛰면서 세계 재분할을 위한 대중 살륙 전쟁을 도발하려고 광분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본주의의 부패성은 제한된 부르죠아 민주 제도까지도 팟쑈 독재로 체대하며 일반적으로 정치적 반동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서 표현된다。부르죠아 민주 제도로부터 팟쑈 독재에로의 이행은 현대 자본주의의 강대성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취약성、부패성의 표현인 것이다。

이 부패성은 현대 자본주의가 죽어가며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에 처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작용은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을 더욱 첨예화하여 혁명을 초래케 하는바 그의 모순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三대 모순이다。

一、로동과 자본 간의 모순。자본주의 제국에서의 독점과 금융 자본의 지배는 근로 계급들에 대한 착취를 가일층 강화한다。로동 계급의 물질적 처지의 급격한 악화 또는 그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강화는 자본 계급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계급 투쟁을 첨예화한다。독점 자본주의 조건하에서의 로동 계급의 활로는 오직 사회주의 혁명에 있다。독점 자본가들이 최대 리윤의 극소 부분을 로동 귀족의 매수에 리용하여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려 하며 우익 사회당들이 독점 자본의 앞잡이로 나서서 로동 계급에게 부르죠아적 독소를 취입하나 세계 로동 계급은 공산당과 로동당의 지도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二、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제국주의 렬강 간에는 원료 원천과 판매 시장과 세력 범위 확대를 위한 가렬한 투쟁이 불가피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투쟁은 제국주의 렬강 간에 제국주의적 전쟁을 야기시킨다。제국주의적 전쟁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진영을 약화시키며 사회주의 혁명을 촉진시킨다。

三、식민지 예속 국가 피압박 인민들과 제국주의

종주국들간의 모순。식민지와 반 식민지에 거액의 자본의 수출이 진행됨과 관련하여 거기에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그의 수억만 인민들에게는 二중 三중의 비인간적 착취와 압박이 가하여졌다。그리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운동에서 자기들의 활로를 찾게 되는 것이다。오늘 아세아、아프리카에서 치렬히 일어나는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은 바로 이 모순의 폭발인 것이다。그리하여 식민지 예속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후비력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후비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상의 三대 기본 모순은 죽어가는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를 특징짓는 것이다。그러나 제국주의가 『자동적으로 붕괴』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그것은 다만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당면 문제로 제기되였으며 또 그 혁명이 수행될 유리한 조건이 성숙되였으므로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멸망이 불가피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자본주의를 종결적으로 멸망시키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사명은 장구하고 강인한 투쟁을 거쳐서만 실행되는 것이다。

* * *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 자본주의는 불가피적으로 멸망할 것이다。그는 삽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한 나라 한 나라씩 또는 몇개 나라씩 멸망하여갈 것이다。

맑쓰와 엥겔쓰는 승리적 사회주의 혁명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든지 혹은 자본주의의 중요 국가들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부적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부인하였었다。맑쓰와 엥겔쓰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정이 옳은 것이였다。왜냐 하면 그 때에는 아직 자본주의의 국가들 호상간의 모순이 첨예화하지 않은 까닭에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을 반대하여 자본주의 제국이 련합될 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레닌은 맑쓰와 엥겔쓰의 시대보다 다른 제국주의에 있어서 이 시대의 특징 특히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 법칙에 의거하여 국부적 사회주의의 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전 세계에서의 동시적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리론을 부인하였다。이것은 맑쓰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제국주의 시기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적응하여 이미 새 력사적 조건에는 맞지 않은 맑쓰의 낡은 명제를 새로운 명제로 바꾸어 놓은 것이였다。

국부적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의 새로운 혁명 리론은 멘쉐위끼、뜨로쯔끼、지노비예브、부하린 등 반역자들의 악랄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혁명적 전망을 열어 주었다。이 새로운 혁명 리론에 고무된 로씨야 프로레타

리아트는 레닌—쓰딸린당의 지도하에서 一九一七년 一〇월에 전 세계 六분의一 우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제국주의 전선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으로써 세계 피압박 민족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고무하면서 그들의 동정과 지지를 쟁취하였다.

이리하여 로써야 一〇월 혁명은 제국주의 전선만을 돌파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배후까지를 공격하여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를 더욱 심화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세력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였다. 위대한 쏘련의 해방적 사명에 의하여 팟쑈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이 타도되고 동남 구라파와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에 민족 해방 운동이 치렬히 전개되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세력은 확대 장성되여 九억만의 인구가 자본주의 체계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제二 단계는 더욱 심화되였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불가피적 멸망에 직면하였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자본주의를 구원하여 보려고 광분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은 새 세계 전쟁에서 자본주의를 구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체계 전체를 상실케 될 것이다.

세계 인민들이 만약 평화 옹호 운동에 한 사람처럼 나서서 제국주의자들을 견제한다면 세계 평화가 유지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새 세계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승리는 사회주의 진영에 반드시 올 것이다.

미제가 『북대서양 동맹』, 『동남 아세아 동맹』등을 조작하여 가지고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려 하지만 그들 간의 내부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공고한 통일이 달성될 수는 없다.

만약 그 통일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약 三억에 불과한 힘인 데 그 중에는 자본주의 렬강의 프로레타리아트, 농민 기타 우리의 진실한 동맹자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진영에는 九억만 인구를 가진 쏘련, 중국,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우수한 사회 제도가 있으며 자본주의 제국의 수준을 릉가하는 자연 부원과 생산이 있으며 국제주의적, 애국주의적 정신으로 무장된 현대적 무력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평화와 자유를 념원하는 아세아—아프리카의 수십억 인민의 동정과 지지가 있다.

이와 같이 력량 대비를 보면 절대적 우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혁명은 수출품이나 수입품이 아니므로 우리는 현재 평화적 공존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국

주의 호전 분자들이 만약 자기들의 암둔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영을 침범하여 새 세계 전쟁을 도발한다면 어느 한나라의 제국주의자들만이 타도될 것이 아니라 전체 자본주의 체계가 종결적 치명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진영은 전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의 선두에 나서서 새 전쟁 도발 음모를 폭로하며 새 전쟁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온갖 우연성에서 당황치 않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라파에서 파리 협정이 비준되고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이 『북대서양 동맹』에 인입됨과 관련하여 구라파 제국 모쓰크바 회의 참가국들은 와르샤와 회의에서 우호 협조 호상 원조 동맹을 체결하고 합동군 사령부까지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진영이 호전 분자들에 의한 온갖 우연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일반적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불가피적 멸망에 직면하였다.

근로자 제六호 (루계 제一一五호)

一九五五년 六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五년 六월 二五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로동 신문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六〇원)

ㄱ—30112호